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00호 2010년 12월

발행처: 서울대미주동창회
456 Frontage Rd., Ste 3
Northfield, IL 60093, USA
Tel/Fax: (847) 441-0011
Email: snuahq@gmail.com

컬럼비아대 물리학 교수 김필립 동문

노벨물리학상 문턱에서 놓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적, 학계에서 공인받아
수상자 가임 교수는 '공동수상'에 동조 표시

세계적인 과학전문지 'Nature'가 지난 11월 24일자 온라인 뉴스에서 Georgia Tech. Walter De Heer 교수의 말을 인용해 "노벨상위원회가 올해 물리학상 수상자로 Andre Geim 교수와 Konstantin Novoselov 교수만 선정할 때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노벨상위'는 두 학자가 2004년 'Science'지에 탄소의 단층 구조체인 Graphene의 합성과 관련한 논문을 게재한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De Heer 교수는 "2004년 논문에서의 물질은 Graphene이 아닌 탄소의 몇 개 층 구조체인 Graphite였으며, 실제 Graphene 특성을 실험한 결과는 2005년 Nature에 실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수상자들의 Graphene 관련 논문은 2005년 Nature 438호 197~200페이지에 실렸으며, 같은 호 201~204페이지에는 컬럼비아대 김필립(43·사진) 교수의 Graphene 연구결과가 Back to Back형식으로 소개됐다.

De Heer 교수는 "노벨상위원회는 김 교수의 성과를 과소평가했으나 많은 학자들은 김 교수가 공동수상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상자 Geim 교수도 Nature 인

터뷰에서 김 교수에 대해 "그는 중요한 기여를 해 그와 상을 같이 받았으면 기뻐할 것(He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and I would gladly have shared the prize with him.)"으로 말했다고 Nature는 전했다.

이같은 사건의 전말은 'Nature' 온라인 뉴스가 "노벨위원회에 전해진 한 통의 메일이 노벨물리학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전하면서부터였다.

문제의 메일을 보낸 사람이 바로 De Heer 조지아텍 교수로 그는 수상자인 Geim 영국 Manchester대 교수와 Novoselov 교수에게 노벨물리학상을 안겨준 2004년 'Science' 논문은 엄격히 보면 Graphene을 처음 분리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이다. 순수한 Graphene은 한 층의 탄소 구조인데, 이 논문은 여러 층의 탄소로 구성된 물질을 다뤘다는 것이다.

전혀 Graphene은 수상자들이 2005년 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나오는 데 바로 옆 페이지에는 수상자들과 별도로

김 필립 교수도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결국 김 교수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어야 한다는 얘기다. Nature는 또 De Heer교수가 '노벨상위'에 대해 "The Nobel prize committee did not do its homework."로 비난했다고 말했다.

Nature는 De Heer 교수의 주장에 대해 '노벨상위' 위원장 Ingemar Lundstrom이 "We will make a correction to the Web Version. Some of the things we also think are mistakes."라고 논문에 대한 문서상의 잘못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모교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장 강병남 교수는 "한국 물리계는 김 필립 교수가 지금까지 한국인 어떤 과학자보다 노벨상에 근접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가적 자원이 있었다면 김 교수의 노벨상 공동 수상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 했다.

한편 김필립 교수는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Graphene을 처음 분리해낸 영국 연구팀에게 돌아간 것은 당연하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김필립 동문은 모교 서울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자 바로 하버드대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해 1999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간 버클리대 물리학과에서 박사후 과정(Post-doc)을 밟았다.

김 동문은 박사후 과정 동안 고체내 전자의 특성을 측정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그뒤 지난 2001년 컬럼비아대 교수로 임용된 김필립 동문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탄소의 다층구조체인 Graphite를 한 층씩 분리하는 연구에 몰

두, 지난 2005년 Nature에 Graphene의 특성을 처음으로 규명한 'Graphene의 양자홀 효과'에 관한 논문을 게재했다. 이로써 국제 물리계에서도 유력한 노벨 물리학상 후보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Graphene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의 전기 전도도로 물리·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데다가 가볍고 투명하며 유연성이 뛰어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태양전지 등 미래 IT산업의 핵심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Global Seoul National University

네덜란드 3개 대 총장 모교방문

네덜란드의 헨드릭 하멜 일행은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해 13년 동안 조선에 있다가 일본으로 탈출했다. 조선에서는 잡역을 하며 사실상 감금 생활을 했지만 일본에서는 서구 문물 전파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오연천 총장은 최근 잇달아 서울대를 찾아온 네덜란드의 대학 총장들을 만나 하멜 이야기로 대화를 열었다. 그로닝엔

대학, 바게닝엔 대학 등 네덜란드 최고 명문 대학의 총장들은 다시 양국간 교류를 강화해 보고 싶다고 답변했다.

오 총장은 70년대까지도 행정고시 합격자들을 네덜란드로 국비 유학보냈던 사실을 알려주며, "소장국이자 유럽 대국들의 진입로 역할을 하는 네덜란드야말로 한국이 벤치마킹할 만한 유럽 국가"라고 말했다.

농생명과학 분야 세계 2위(대만고등교육위원회 2010년 세계대학 연구성과 평가)로 꼽히는 바게닝엔 대학의 알트 디퀴젠 총장은 "유럽에서 식량 수출 2위인 네덜란드 농업의 학문적 기반을 연구하는 대학으로 서울대 농업생명대학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디퀴젠 총장은 "바게닝엔 대학이 식량 문제를 연구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나 환경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룰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공동의 문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싶다"

최근 모교를 방문한 네덜란드 총장들이 오연천 총장과 만나 교류를 협의했다. 왼쪽부터 Maastricht대 부총장, Wageningen대 총장, Groningen대 총장

교 전했다.

1614년 개교해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로닝엔 대학의 총장은 "공동 박사 학위제를 만들자"고 적극 건의했다.

양 총장은 국제 교류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그로닝엔 대학이 제안하는 공동 학위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마스트리히트 대학 부총장은 "경영대학과 매년 최소 2명 이상 학생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네덜란드의 대학 총장단과 오연천 총장은 국제교류가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 않고 결실을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적극 동의하고, 학생 교류나 공동학위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로 했다.

<글로벌 서울대 연관기사 2면>

PRSRT STD
NON-PROFIT
US POSTAGE PAID
PALATINE, IL
PERMIT No. PI 1068

시국 말법

연평도 패전과 국가지도자의 리더십.....8면

모교 · 미주동문

교류협정 · 동정



MD앤더슨 암 센터 김의신 동문

10만달러 추가기부 약정, 일정 밝혀

지난 10월 모교에 학술기금으로 10만 달러를 기부(동창회보 10월호 12면 참조)한 MD앤더슨 암 센터 방사선 및 내과 교수 김의신(의대 60) 동문이 다시 10만달러를 추가 기부하기로 하고 일정을 알려 왔다. 김 동문에 따르면 추가 10만 달러는 첫째 2만 달러, 이듬해 3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 해 5만달러를 각각 기증한다는 것이다. 이 Donation Form은 김 동문의 부인

에 의해 송부되는 데 이 기금은 김 동문의 딸과 사위의 협조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금은 'Prof. Euisin Edmond Kim Lectureship Fund'라는 이름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기금은 앞으로 모교 의대에서 핵 의학 분야의 연구 및 연구 활동과 저명학자 초청강연 등에 필요한 제반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10월 김의신 동문(오른쪽)이 모교 오연천 총장에게 10만 달러 출연식을 가진 후 함께 촬영한 장면이다.

김 동문은 지난 1966년 모교 의대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1980년부터 MD앤더슨 암 센터에서 재직해오고 있다. 김 동문은 그동안 연구 발표 논문만 350여편에 이를 정도로 지난 1991년과 1994년 두차례나 '미 최고 의사(The Best Doctors of America)'에 선정된 바 있을 정도로 그의 전공 분야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남가주 동창회장 김은종 동문

‘사회봉사 대통령상’ 은상 받아

남가주 동창회장 김은종(상대 59) 동문이 지난 10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사회봉사 부문 대통령상 은상’을 받았다. 이 상은 남가주 동창회가 올해로 3회째 커뮤니티 의료·법률 무료 봉사행사를 펼쳐온 공로에 따른 것이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5일 남가주의 세계 아가페교회의 커뮤니티 봉사행사에서 열렸다. 이날 김 회장(사진 앞줄 오른쪽)은 오형원 교문(앞줄 왼쪽)으로부터 오바마 대통령이 전해 준 ‘사회봉사 대통령상 은상’을 전달받았다.

내과 전문의 노갑준 동문

시카고 마당집서 커뮤니티 리더상

시카고에서 내과 전문의로 재직하고 있는 노갑준(의대 73·사진) 동문이 지난 10월 열린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기금 마련 행사에서 커뮤니티 리더십상을 수상했다.

한인 교육문화 마당집은 한인 입양인 교육 방문 및 2세 교육과 권익옹호 활동에 크게 도움을 준 노갑준 동문에게 그간의 공로를 치하해 이같은 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갑준 동문은 한인 교육문화 마당집 이사로 꾸준히 이 마당집을 후원해오고 있다.

노 동문은 마당집 뿐만 아니라 시카고 한인 아리랑라이온스클럽과 복지회 연례건강강진 등을 통해 한인사회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 동문은 “마당집이 지난 15년간 많은 발전을 거듭해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한인사회에 필요한 단체로 남길 바라며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Global Seoul National University

사우디의 킹 사우드 대학과 학술교류

모교는 지난 10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킹 사우드 대학(King Saud University)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었다.

킹 사우드 대학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1957년 최초로 설립한 왕립대학으로 모교처럼 국가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모교와 이번 협정을 맺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년간 노력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칼레드 빈

모하마드 알 앙퀴리 장관은 귀빈용 대형 버스가 가득찬 만큼 많은 수의 총장 및 교수들을 동행하고 모교 캠퍼스에 내려섰다. 2008년 이후 2년 만의 방문인 것이다.

이 날 방문단에는 킹 사우드 대학의 알 오트 총장과, 킹 압둘라지즈 대학의 오사마 빈 사디크 타에브 총장과 부총장, 또 킹 파하드 석유 대학 총장과 교수들이 포함됐다.

알 앙퀴리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이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등교육 모두에 크게 투자하고 있다. 교육강국인 한국으로부터 한 수 배우러 왔다”고 터놓고 말했다.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가 지식기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자국 대학의 발전에 힘쓰고 학생들의 해외 유학도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로트만 총장은 “킹 사우드 대학이 의과대학과 공과대학만큼은 강의를 영어로 진행하고 있고 수준도 높다. 향후에는 학생 교환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연천 총장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이 오랫동안 산업계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학에서도 서로 관계를 개선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사우디를 대표하는 1개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을 승인했다.

양국간의 공동 연구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다.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의 강인식 교수가 지난 7월부터 킹 압둘라지즈 대학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기후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화학부 정두수 교수는 킹 사우드 대학과 8만 달러 규모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모교 개학연도 1895년으로 결정

모교 총동창회(회장 임광수)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모교 개교원년 재조정 작업’이 결실을 맺어 지난 10월 7일 모교가 1895년을 새로운 ‘개학연도’로 지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현 개교원년인 1946년을 통합 전의 고등교육기관의 시원인 1895년으로 앞당기자는 동창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대학으로 모교를 설립한 ‘개교(開校)’와 근대 학문과 대학교육을 시작한 ‘개학(開

學)’의 개념을 분리한 것이다.

모교 최종 의결기구인 평의회는 이날 본 회의를 열고 “서울대는 종합대학교로 1946년 개교했지만 학문 분야에 따라 대학교육의 연원이 1895년 시작됐으므로 1895년을 ‘개학연도’로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교의 학문과 교육의 역사를 115년(1895-2010년)으로 말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간 : 이기준 논설위원 : 김일훈(제) 김창수(NY) 김재환(WA) 남재홍(NY) 백순(OC) 오강남(BC) 육길원(CD) 윤상래(MA) 이석구(NY) 이청광(A) 임승배(SI) 장석정(CD) 정홍택(PA) 한창섭(NY)
편집위원 : 조관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지(사) 정호(공) 홍혜례(사)

이번 호의 차례

3. 새로운 한일관계100년/동문 시 감상
- 4~7. 동문 동정
8. 연평도 폐전과 국가지도자 리더십/술이부작(述而不作)과 해석학
9. 남북 언어이질화 1천년/동문시감상
10. 프랑스의 예술가곡

11. 미라톤/ 뉴욕의 맛과 멋
12. 동양인과 서양인 안면성형술
13. 한민족의 우수성과 단일성/ 동문시감상
14. 직지 이야기/10월 어느날의 일지
15. 세계명화 지상감상<9>렘브란트
- 16~18. 미주 각 지부뉴스
19. 남부유럽의 도시 아름다운 손짓따라

20. 고국동문 신간안내
21. 고국동문 동정
- 22~23. 동창회비명목
- 24~29. 동문 업소특
30. 동창회 조직, 각 지부 회장단
31. 광고
32. 정운찬 전국무총리 모금강연회

특별기고

가깝고도 먼 이웃 일본

새로운 한일관계 100년 화해와 상생의 길



고병철 (법대 59)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명예교수 · 동창회보 편집위원장

이 글은 지난 10월29일 LA에서 열린 '제1회 미주 한인역사대회'에서 필자가 주제발표용으로 준비했던 것이다.

한일합방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일본이 한국을 36년간 강점하면서 저지른 만행을 규탄하기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두 나라와 국민들이 보다 화해롭게 상호 이득을 보는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하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한일 양국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일관계의 현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해 화해와 상생의 100년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갈등 요인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국교를 정상화함으로써 양국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무역과 경제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증가했고 문화적·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양국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군사적 동맹국을 가진 덕분에 '준동맹국'으로 부각했습니다. 한국전쟁시에는 일본이 중요한 병참기지(Logistical base)의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의 안전유지에 크게 공헌했을 뿐 아니라 자국의 경제개발에도 막대한 이득을 얻어냈습니다.

이 모든 유대는 한일간 정치적 관계 활성화로 연결돼 매년 양국정상이 상대국을 적어도 한번은 방문했고 빈번히 열리는 국제회담에서도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상례가 됐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과는 대조적으로 양국관계는 주로 역사에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기기에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위험수위에 접근하기도 하는 역사에 관련된 이슈(issue)들을 열거해 보면 ▶일본 정치인들이 조선 강점과 식민지화를 미화(美化)하는 발언-한국 언론에서 망언(忘言)으로 지칭 ▶같은 왜곡이

포함된 초·중·고교 교과서를 일본정부가 인가 ▶일본 정치인들이 2차 세계대전후 국제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자(Class A war criminal)로 낙인되고 처벌받은 14명의 위패(位牌)가 보관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방문 ▶독도(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로 호칭) 영유권에 관한 분쟁 ▶종군위안부문제 즉 2차대전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된 20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여성들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강도(強度)가 비교적 약한 갈등 요인으로 ▶어업을 둘러싼 분쟁과 ▶무역적자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현주소

2009의 통계를 토대로 한일관계의 현황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계부터 점검하면 양국간의 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게 중국 다음으로 큰 교역국이며, 한국은 일본에게 중국·미국 다음 3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입니다.

2009년의 한일 무역 규모는 712억 달러로 한국이 27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교역의 규모는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에 비해 324배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부품·소재(素材) 같은 중간재(中間材)와 제조기계 같은 자본재(資本財)를 많이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대일의존도는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수출량을 증가할수록 더 커지게 되는 구조적 적자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3년 한일투자협정이 발효한 이후 일본의 대한 투자환경이 대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본의 대한 투자규모는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2009년에 기록된 35.9%가 증가한 것입니다.

한일간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에 305만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했고 159만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이것은 한일간의 상호 방문자 수가 464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통계는 1999년 발족한 working holiday program-청년들이 방문중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참가자 7천200명이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200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 부터 중고교생·대학생·대학원생·교원이 1천500명가량 일본을 방문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들의 상호방문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아소 타로(麻生太郎) 총리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각각 1월과 10월 한국을 방문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6월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10년에도 정상들의 회담은 계속돼 5월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3자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간 나오토(菅直人)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화해와 상생의 길

위에 요약한 한일관계의 현황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양국간의 화해가 이미 기정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뿐 아니라 양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문화·인적 교류를 통해 많은 것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상생(相生)의 길을 이미 걷고 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듯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일관계의 역사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률을 감소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갈등의 빈도와 강도는 양국 정치지도층의 세대 교체와 양국간 경제·문화·인적 교류의 가속적인 확대에 정비례해서 감소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한일양국에 집권당이 변할 때 양국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간 나오토 정부 관계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간 총리는 금년 8월 10일 한일합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담화에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反)해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간 총리 담화는 1965년 무라야마(村山)총리 담화의 연장이지만 처음으로 일본에 의한 한국 지배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한국합방과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명시적 또는 우회적으로 인정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간 총리가 식민지배 때 강탈해 간 일본 궁내청(宮内廳)소장 조선왕실의례(儀軌)등 중요한 문화재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 내각 전원이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은 것은 한국·중국·필리핀 등 일본침략의 피해국들을 배려한 전례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도로 성숙된 한일간의 우호적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나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중

동문 시 감상

고향에 돌아와 보니...

김태환(법대 46)

내 나라 떠난지 30년
고향에 돌아와 보니
고향은 내 고향인데
그리던 옛 고향은 아니로다

마을의 옛길, 옛집 헐리고
살던 마을사람 떠나가고
모두 다 없어
어디로 갔나, 어디로...

그 사연이 개발인가, 발전인가
가

인간의 새로운 삶인가
세상은 변하고 무상하다
지난 날의 고향이 그림자

희망을 간직하고 거닐던 옛
마을길
행복하게 살던 옛집
오순 도순 같이 지냈던 옛
마을사람들

모두 다시 보고싶다
다시 보고싶다...

에서 영토분쟁이 잠재적으로 가장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또는 다케시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며 양국의 우호적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한국정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한일 양국이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독도(다케시마) 문제는 1965년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할 때 타협안을 내지 못하고 미해결로 남게 됐습니다. 일본은 역사적인 문헌을 인용해 17세기 중엽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1905년 일본정부가 다케시마를 시마네(島根)현에 편입해 영유권을 재확인했을 때 조선정부는 항의를 안함으로서 일본의 영유권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 역사적 문헌과 지도 등을 인용해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일본의 1905년 조치에 관해서는 당시 노·일 전쟁 이후 일본군이 조선을 사실상 점령하고 있었고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한을 빼앗아 간 상태에서 조선정부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항의할 능력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한국침략이 불분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한국에게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닌 역사문제와 혼합된 분쟁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법

국가간의 영토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는데 (1)협상 (2) 사법적 해결(국제재판), 그리고 (3)전쟁입니다.

일본은 네덜란드 헤이그(The Hague, the Netherlands)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이 문제를 위촉해서 사법적 해결을 하자고 여러번 제안했지만 한국은 그 제안을 거부하거나 무시해 왔습니다.

이 방법은 분쟁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953년부터 독도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한국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법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국제법상으로 볼때 영토의 소유권을 결정하는 기준은 어느 쪽이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주권 행사(continuous and peaceful display of authority)'를 해왔는가입니다. 일본정부가 적어도 1년에 한번씩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국의 독도 점유가 '평화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항의하고 국민들이 일본을 규탄하는 데모를 하는 것은 분쟁을 심화함으로써 한국의 독도 점유의 비평화적인 측면을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New York Times 등 세계적인 신문이 광고를 내거나 또는 New York의 변화기에 전자광고판을 게시하는 것도 국제법상으로는 역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이 독도의 실제적인 영유권 행사를 계속하면서 일본 정부의 직접·간접적인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은 독도에 관한 한 잠정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사실상의 주권행사(exercise of de facto sovereignty)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호적이고 양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일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과 행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국민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연결되는 ‘선순환(善循環 virtuous circle)’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주기적으로 독도(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한일관계의 오점으로 남아 있는 영토분쟁이 자취를 감출 수 있을 터지도 모르겠습니다.

동문동정

강연 · 출판 · 공연

대법관 안대희 동문 USC한국학 연구소 초청 강연

‘정의’ 는 가진자가 나누는 의무

안대희(55·사진) 동문이 최근 USC한국학 연구소 초청으로 LA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져 이를 요약해 전제한다.

‘너무 잘드는 칼...’ 검사 시절 안대희 대법관을 평가하는 말이다. 2003년 대검 중수부장 시절 그는 불법대선자금에 칼날을 겨누었다.

그후 ‘대선자금’ ‘국민검사’라는 명성도 얻었다. 안대희 팬클럽이 생기고 “안대희 검사(檢事)는 검사(檢査)를 많이 하다 보니 검사(劍士)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너무 잘드는’는 표현에는 그 칼에 나도 베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녹아 있다. 밝았던 만큼 긴 그림자를 만들어 냈다. 검찰총장도 하마평에 오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된 그는 얼마 전 공정사회 ‘총리후보’로도 꼽혔다.

“지난 8월 총리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탈세’ 등의 흠이 없어야 하는 공정사회에 부합하는 고위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죠.”

“제가 (후보군에) 들어갔던가요? 아직 대법관 임기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으로 안 대법관은 2012년 까지다.)

“본인은 깨끗이 처신하더라도 아버지로서 고민은 있었을 것 같은데 위장전입 같은 것을 생각해보는 적은 없습니까.”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 간 아들과 대학 1학년 딸이 있습니다. 강북에서 살다보니

솔직히 아내가 전입 얘기를 꺼낸 적은 있었지만 거절했죠.”

“자녀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많다고 하더군요.”

“‘안대희’ 하면 2003년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떠오릅니다.”

“철두철미하게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운 개념입니다. 불편부당도 의미하고, ‘공정’은 판검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세심 공정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불공정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또 과거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화제였습니다.”

“읽어봤습니다. ‘정의’란 법 앞에 평등을 의미하겠죠. 지도층 인사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나,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받는 것은 아닌가, 쉽게 사면받지 않나, 이런 의심들이 불식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소극적 의미의 정의라면 적극적 정의는 부자, 고위직이 나눠야 하는 의무지요.”

“‘정의’라는 측면에서 사법부 역시 개혁 대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다면 의심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선임정도에 따라 양형이 달라졌다는 지적입니다. 아직도 ‘전관예우’가 고려되고 있어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년을 지키는 검사가 없이 너무 빨리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니

의심사는 요소가 있습니다.”

“20살에 사시에 합격하셨지만 사회경험이 없는 20대 판사가 나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미국은 판사를 선거로 뽑습니다.”

“미국식이 좋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도 변호사·검사 등 어느 정도 법조경력을 쌓은 인사를 대상으로 판사를 선출하는 것으로 압니다.”

“2008년 국민참여재판이란 이름으로 배심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법원서 긍정적으로 보고 배심원제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한적 실시라 재판받는 사람들이 배심원 여부를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잘 선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OJ심슨 경우와 같이 배심원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최근 스포서 검사에 대한 문제도 나왔습니다.”

“어떤 분야나 다 잘됐다고 볼 수는 없죠. 구조적으로 나쁜 관행이 있었다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진통이 있습니다.”

“미주 한인들은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투표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입법의 문제나 사법의 문제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해외 한인들이 권익을 찾으려면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표에 어려움이 있어 멀리 애리조나 거주자도 LA에 와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입법적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한인들은 시민권을 적극 행사하



고 한국국적 한인들은 관망보다는 적극 참여가 바람직 합니다. 일단 (참정권 투표방법은) 입법부의 역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입법의 미비한 부분을 사법이 보완 해석합니다. 미국과 다른 점이죠. 미국은 동성결혼 문제 등 많은 것을 법원이 결정하지요.”

“‘너무 잘드는 칼’이라는 본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입니다. 저는 맡겨진 권한을 행사해 정당한 칼을 사용한 것이죠. 거꾸로 말하면 그 험한 수사를 마치고도 대법관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성인처럼

살지는 못했지만 처신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위선도 오래하다 보면 선이 된다는 말처럼 앞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적이 노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임기가 끝나는 2012년에는 어떤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까.”

“뒤편 열심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법원서도 그랬고, 그 생각 그대로 살 것입니다.”

안대희 대법관=1955년생. 경기고 졸업후 모교 법대 2학년 재학중 20세로 17회 사법시험에 합격. 검사 임관 이후 대검 중수1·3과장, 서울지검 특수1·3부장, 대검 중수부장 역임. 2006년 대법관 임명.



작가 김미미 동문 출판기념회

‘미시간 호숫가에 핀 계수나무’

수필집 ‘미시간 호숫가에 핀 계수나무 꽃’을 펴낸 수필가 김미미(사대) 동문이 지난 11월 23일 시카고 노스브룩의 힐튼 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김 동문 부부와 ‘로스트’, ‘NCIS’ 극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딸 크리스티나, 역시 작가와 프로듀서인 사위 크레이그 로젠버그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 동문은 “책을 내야겠다

고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 쓴 글이 모아져 한 권의 책이 됐다. 친구 같은 딸과 거의 매일 통화하며 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함께 책을 쓴 셈”이라고 말했다.

김 동문은 이어 “벌써 다음 책을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가족을 떠나 나만의 창작 세계로 들어가야겠다”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현재 작가와 수퍼바이징 프로

듀서로 일하는 크리스티나는 이날 기념회에서 “나 자신도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 작업인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항상 무엇인가를 쓰시는 어머니가 책을 낸 데 대해 놀라지 않았고 그런 어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미주 한국문인협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김 동문의 ‘미시간 호숫가에 핀 계수나무’는 한국서점과 알라딘 US 웹사이트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바리톤 조셉 림 동문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서부 우승

바리톤 조셉 림(본명 임경택·사진) 동문이 지난 11월 23일 열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서부지역 결선에서 우승했다.

지난 해 같은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던 조셉 림 동문은 이번 오디션에서 드디어 1등으로 입상함으로써 내년 3월 뉴욕에서 개최될 최종 파이널에 참가하게 됐다.

조셉 림 동문은 모교 음대와 USC 음대 대학원을 전액 장학금으로 졸업한 바 있어 그동안 성악계에서 그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

그는 이후 올해인 2010년 7월 샌타바바라의 마릴린 혼 성악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또한 2008년 팜 스프링스 오페라 길드 성악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바 있다.

이어 로렌 L. 제커리 전국대



회 입상 등 많은 수상 경력이 있으며, 다음 시즌 시카고 오페라의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선발되기도 했다.

이날 콩쿠르에는 LA오페라협회 보헤미안의 회원 18명이 참석해서 열렬히 응원해 그에 대한 인기를 대변했다.

동문 동정

파티 • 출판 • 전시회



김광호 동문 딸 제인 김

SF시 의원 당선 기념파티 열어

김광호 동문의 딸 제인 김이 지난 10월 치러진 선거에서 SF시 의원에 당선됐다.

제인 김은 지난 11월 2일 당선 확정 직후 SF 에리 스트리트의 한 연회장에서 지지자들과 축하 파티를 열고, 댄스 등을 즐기는 등 신세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했다.

이날 파티에는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동료들과 자원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 당선자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포옹과 악수를 나누고,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답소를 나누던 김 당선자는 흥겨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연회장 중앙으로 나와 춤을 추며, 파티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UC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한 제인 김 SF시 의원 당선자는 3대째 법조인으로 미 동포사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당선 축하파티에서 김 당선자와 자리를 함께 한 아버지 김

지난 11월 2일 샌프란시스코 에리 스트리트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축하파티에서 제인 김(오른쪽) SF시 의원 당선자가 지지자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다.

광호 동문은 “제인의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서울지방 검사장, 서울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며 “나 역시 1970년 유학차 도미, 1984년부터 뉴욕 퀸스 지방검찰청의 검사·변호사 등으로 근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개표 직전 제인이 많이 떨어 같이 시간을 보내느라 축하파티에 늦게 도착했다”며 “아버지로서 딸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청렴결백한 공직자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제인 김의 당선 축하파티에는 이정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킹(KOWIN) SF지회장 등 지역 한인들도 참석, 축하의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정순 회장은 “앞으로도 많은 한인 자녀들이 공직에 진출, 한인사회의 저력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김정향·백연희·임충섭·최일단 동문

뉴욕 중앙일보 갤러리서 자선전시회

화가 15인이 12월 뉴욕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자선 전시회를 열었다. ‘뉴욕 문단의 대모’ 김정기 시인은 15인전에 ‘겨울 무지개, 겨울 메아리(Winter Rainbow, Winter Echo)’라는 타이틀을 붙여주었다. 이 중 동문 화백들을 소개한다.

▶김명희(1949)=모교 미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후 이화여고 미술교사로 재직하다 1975년 뉴욕으로 이주해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90년 강원도 춘천 내평리의 폐교를 여름용 작업실로 개조해 뉴욕과 내평리를 오가며 작업하고 있다.

1972년 서울 독일문화원을 비롯, 한국과 일본서 6차례 개인전. 덕성여대와 강원대에 출강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환기미술관, 국회, 유관순기념관, 박수근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김정향(1955)=“명백한 산고(産苦)의 결과물이다. 훌륭한 창의성과 주의력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도 배격적이며 장식적 서술구조, 시와 아름다운을 혼합했다.”

뉴욕타임스는 2009년 동아일

랜드 다우링대에서 열린 김정향씨의 개인전에 대해 이같은 찬사를 보냈다.

모교 미대 서양화과 졸업후 1977년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1년 프랫인스티튜트대학원의 ‘프랫을 빛낸 동창상’ 수상. 2007년 뉴욕 브루클린의 크래센트 지하철역에 기차 바퀴와 태양을 모티브로 한 7개 페널 스테인글래스 작품을 영구 설치. 올 11월 파리의 갤러리89서 개인전을 열었다.

▶백연희(1945)=하늘과 별, 기하학적인 문양, 종교철학을 조화시킨 우주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 지질학자전 철학자였던 부친과 성악가였던 모친의 영향을 받아 광대한 자연과 우주관 속에 리드미컬한 이미지가 일관되게 흐른다.

모교 미대 졸업.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후 75년 SF아트페스티벌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다. 2007년 제 1회 국제인천여성비엔날레에 초청된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호암미술관, 새너제이뮤지엄 등지에서 소장하고 있다.

▶임충섭(1941)=올해 제 24회 김세중 조각상을 수상한 임충

뉴욕 중앙일보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가진 동문 화백들. 사진 왼쪽부터 김명희·김정향·백연희·임충섭 동문

섭 동문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향수, 현대문명과 자연 사이를 통찰하는 조형작업을 해왔다.

모교 미대 회화과 졸업후 1973년 뉴욕으로 이주해 뉴욕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80년 퀸즈뮤지엄 공모전에 당선, 81년 소호 OK헤리스 갤러리서 데뷔전 후 올 5월 서울 학교재 미술관까지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다.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워싱턴 DC 허쉬혼조각 뮤지엄, 호주국립박물관, 파천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선재미술관 등지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최일단(1936)=서울 동숭동에서 태어난 최일단씨는 1955년 모교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다가 2년 후 전공을 조소로 바꾸어 졸업했다. 1968년까지 중앙중학교 미술교사를 지낸 후 72년까지 미국인 직장에서 일하는 남편을 따라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이주해 프랑스어를 배웠다. 이후 3년간 파리의 이응로 화백에게 동양화를 배웠다. 75년 뉴욕으로 이주, 86년 나이 50에 복경의 중앙미술학원서 2년간 공부했다. 한국·미국·캐나다·대만 등지에서 개인전 6회.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그는 늘 여행 중이다.

캐나다 국제무역위 전 수석경제학자 엄인호 동문

‘북미의 무역구제제도’ 출간

캐나다 연방국제무역위원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에서 2007년 은퇴한 수석경제학자 엄인호(사진·현재 오타와 상록회 회장) 동문이 3명의 법률학자(Gregory W. Bowman, Nick Covelli, David A. Gantz)와 공동저술한 ‘북미의 무역구제제도(Trade Remedies in North America)’를 펴냈다.

이 책은 네덜란드 출판사 Kluwer Law International에서 2010년 3월 발행했다. 총 15 chapter로 구성된 양장본(hard cover)으로 744 페이지에 달하는 서적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법적 근거인 WTO(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북미주 3개국의 무역구제조치법에 관한 상세한 설명, 불공정 교역에 관한 조사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의 구성과 역할이다.

둘째, 불공정교역행위 대응책으로 생긴 무역구제조치법의 필요성 또는 당위성에 관해 경제학자 및 법률학자들간에는 논란이 많은데, 문헌조사를 통해 찬성 또는 반대쪽의 논리를 정돈, 이해를 높이고 있다.

셋째, 국내 동일품목 생산업자들에게 산업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판정하기 위해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구에서는 경제학적인 분석기법을 이용, 공정한 피해추산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업피해추산에 쓰여질 경제학적 모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넷째, WTO 탄생 이래 북미주 3개국의 무역구제조치법발동 현황을 대상수입 품목별 그리고 대상수출국 별로 분석해 북미주 3개국 내에서 발생한 통상마찰의 형태와 추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다섯째, 마지막 3개 chapter는 북미주 3개국 상호간에 발생한 통상마찰의 사례연구에 할애해 시멘트·철강·복제를 사례로 연구하고 있다. 사례연구를 통해 무역구제조치법의 활용, 산업피해 추산, 행정기구의 관행을 보여준다.

이지민 동문 앤드류샤이어 갤러리 개인전

신기루같은 의식의 세계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의식은 어떤 형태로 표현될 수 있을까?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꿈의 세계에 대한 탐구가 예술 각 분야에서 한창인 요즘, 오를랜드 작가 이지민 동문은 그림과 판화를 통해 그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 현실과 환상 사이, 시간과 공간의 간극이 느껴지는 그녀의 작품은 보는 이를 일순 생경하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장면으로 끌어들이는다.

앤드류샤이어 갤러리(관장 메이 정)는 ‘거울 속에서(In the Mirror)’라는 제목의 이지민 개인전을 11월11일부터 12월18

일까지 열었다.

유화와 에칭, 리토그래피, 그라비어 등 여러 프린트 매체를 사용해 그린 일상적인 장면들과 자화상을 통해 신기루 같은 우리의 의식을 보여주는 이지민 동문은 주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사물·풍경 속에 숨겨진 낯설고 특이한 아름다움을 끄집어낸다.

시선을 통해 우주의 본질을 탐구하는 진지한 작업이며 움직이는 세상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다시 응시하게 하는 작업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 비행기의 날개 위에서 내려다 본 아래 세상의 풍경, 바다로부터 보이는 해안선, 백미리를 이용한 컨셉 등이 자주 등장하는 작가의 작품은 누구나에게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다.

이지민 동문은 모교 미대에서 회화,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했고, 도쿄국립예술대학에서 판화를 공부했다.

1995년부터 북가주 베이 지역에 살면서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에서도 판화 석사과정을 마쳤다.

시카고·뉴욕·샌프란시스코·도쿄·호주·토론토·서울 현대갤러리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세계 화단에서 인정받는 여러 그룹전에도 참여했다. 현재 UC샌타크루즈의 미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문 동정

좌담회 · 강연 · 선임 ·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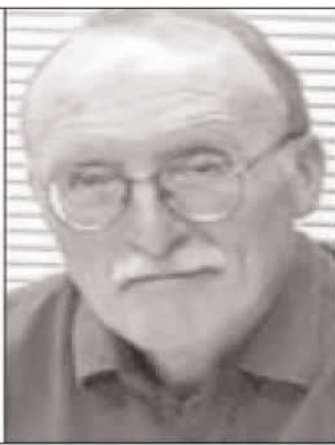
작가 천운영 동문

21세기 한국문화의 현주소 좌담회

작가 천운영(사진 왼쪽) 동문이 참여하는 21세기 한국 문화의 현주소와 문화의 역할, 문화와 사회 등을 짚어보는 좌담회가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 PNP(평화와 번영) 포럼, 워싱턴 문인회 등이 지난 11월 6일 타이슨스 우래옥에서 '한국에서 한국문화, 미국에서 한국문화'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것이다.

주최 측은 이 행사에 대해 "한국문학은 참여문학·실천문학·순수문학 등 다양한 모습을 띠며 변화해왔다"며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 군사독재 등을 거치며 변화해 온 한국 문화의 현주소를 생각해보기 위한 행사"라고 밝혔다.



작가 천운영 동문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브루스 폴턴 아시아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문화와 개인사회민주주의, 또 21세기 문화의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천운영 동문은 모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뒤 2000년 동아일보에 단편 '바늘'이 당선돼 등단했다.

2003년 신동엽 창작상, 2004년 올해의 예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소설 '바늘', '명량', '그녀의 눈을 사용법' 등이 있다.

브루스 폴턴 교수는 다수의 한국 문학을 영역한 한국 문학 전문가로 2009년 대산문화재단 번역상을 수상했다.

LA한국문화원 김재원 동문

한국문화알리기 어렵지만 재미난 작업

지난해 LA 한국 문화원 원장으로 부임,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를 치르며 한국문화 전파기에 여념이 없는 김재원(사진) 동문은 단순하지 않은 개념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이 "어렵지만 재미있는 작업"이라고 털어놓는다. 이상은 LA중앙일보와 인터뷰를 요약한 것이다.

"한국이 어디에 위치한 나라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다음 번 만났을 때 '잘 익은 김치를 가장 맛있게 서브하는 코리안 레스토랑을 추천해달라'고 물어왔을 때 느끼는 희열이랄까요. 전한다는 차원을 넘어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스텝들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글썽요. 문화원을 탐방하는 타 커뮤니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 좋은 결과 아닐까요."

김 동문은 부임하면서 문화원 개원 30주년이라는 특별한 상황에 놓이게 돼 엄청 바쁘지만 뜻있는 행사를 많이 치른 행운(?)도 누리고 있다며 기뻐한다. 우선 한국 전통 무용과 음악을 시간대별로, 또한 종류별로 체계적으로 보여 많은 타 커뮤니티인들에게 '한류'의 원천이 음악과 무용에서 유래했음을 인식시켰다는 것이 더

없이 큰 보람이다.

"지난 1월29일 선보인 '한국의 전통 음악과 무용의 하이라이트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중순까지 궁중무용·국악·판소리·고성 오광대, 서사극 사천의 광대, 예악의 크로스 오버 공연 등을 연이어 소개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런 무대를 통해 '한국 문화의 매력과 여러 문화권에 걸없이 다가갈 수 있는 친근함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인지 절감한 것'을 개인적 보너스였다고 생각한다.

김 동문은 문화원은 중국·일본·베트남·독일·라틴 등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 행사에 참여, 문화 교류에 노력했다.

문화원에서는 9~10월 미네소타·아이다호·네바다 라폴린·헨더슨·유타 세다시 등 여러 도시로 직접 전통 문화를 들고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무용과 음악·음식 등을 소개해 큰 환영을 받았다.

"미국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모두 느끼실 겁니다. 효과적 방법으로 접근하면 이제 한류를 각 분야 곳곳에서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속의 한인들 모두가



'문화 대사'임을 자각, 한국 문화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는 김 동문은 내년에도 30주년의 연속이라는 각오로 열심히 한국 문화 전파에 전심하겠다고 모든 한인들에게 동행을 위한 손을 내민다.

김재원 동문은 모교 법대 졸업 후 1987년 문화공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했다. 1996~1998년 세계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근무 후 문화관광부 게임음반과장, 2002년부터 2년 간 스포츠인연수, 2006~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문화관광부 미디어진흥단장으로 재임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관을 지낸 후 2009년 2월 LA한국문화원장으로 부임했다.



제41대 남가주 기독교협 회장 민종기 동문

네트웍으로 '두루사랑' 실천할 것

"1천350여 곳으로 추산되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수장으로 선출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겸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훌륭한 선배들의 조언과 임원들의 협조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교회들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 민종기(사진) 동문이 단독공천으로 지난 11월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41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지난 1년간 수석부회장으로 충실하게 일했던 민 동문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교협은 교회 공신력을 높여 기독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회장은 혼

자 일하는 자리가 아니므로 원로 목회자·학자·단체장 등이 이민사회의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민 동문은 '두루사랑, 두루핍(thorough love)' 실천을 비전으로 "교회·봉사단체·커뮤니티에 버팀목이 돼주고 그들을 높여주는 일이 교협에게 맡겨진 사명 같다"고 했다.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무료 부흥강사 시스템'을 만들어 도움을 주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활동을 잘 하는 기독교 봉사단체들을 발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 역시 그의 청사진에 들어 있다. 1년에 한 차례 발행돼온 뉴스레터를 격월로 낼 것을 검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같은 구상의 배경에는 '교회(church), 봉사단체(corps), 지역사회(community)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그의 평소 지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이민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교회가 이민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와 자녀들을 어떻게 미국의 리더로 키울지를 고민하는 한편 세미나 등을 통해 이단의 침투를 막는 일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교협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15명의 부회장을 정치색을 배제한 채 지역 등을 안배해 선임하고 1.5세나 2세를 2명 정도 영입해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밖에 광복절 연합예배 때 이민자로 살면서 애국을 실천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을 기리는 일, 자연재해 등의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 등도 게을리 않겠다.

민 동문은 모교 정치학과 졸업 후 1988년 유학 와 평신도로 충현선교교회를 다녔다. 1990~97년 풀러신학교에서 신학 석·박사 공부를 하는 동안 이 교회 부목사로 섬겼으며, 귀국해 교수생활을 하던 중 담임목사 청빙을 받아 2002년 김백했다. 그 후 세계선교와 제자훈련에 초점을 맞춘 목회로 '충현 공동체'를 청장년 약 1천200명, 어린이 약 400명 등 출석교인 총 1천600여명에 달하는 중형교회로 성장시켰다.

서양화가 이정주 동문

워싱턴 한미미술가협 회장에 선임



워싱턴 한미미술가협회(이하 미협) 차기회장에 서양화가 이정주(사진) 동문이 선출됐다.

미협은 지난 11월6일 타이슨스우래옥에서 25명의 임원 및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

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 동문을 차기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동문은 "나를 앞세우기보다 협회와 회원을 먼저 생각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일 없이 회원들과 협의하는 조화로운 협회를 만들겠다"며 "36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역대 회장단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전문 미술인협회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버지니아 우드브릿지에 거주하는 이 동문은 지난 1998년 미협에 가입, 2002년 부회장을 역임했다. 모교 미대와 동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로 발레리 대학에서 미술사,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작가 김은형 동문

뉴욕 한국문화원 강연

작가 김은형 동문이 뉴욕 한국문화원(원장 이우성)에서 실시한 '한국문화원 강좌 시리즈'의 한국화 교실에 초빙돼 지난 11월16일 강연했다.

한국화 교실은 뉴욕·시카고·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형 작가를 초청해 오는 2011년 1월 4일까지 8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2시간씩 열린다.

한국화 교실을 통해 김은형 동문은 기본적인 한국화의 종이와 붓의 운용, 인물화에 대해 강의, 한국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한국화 기법을 이용한 표현력을 길러준다.

김은형 동문은 모교 미대에서 동양화로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시카고 미술대학에서 다시 석사학위를 받았다.

스코히겐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파리·퀼른·헬싱키·시카고·뉴욕·동경 및 서울에서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해왔다.

동문 동정

공연 · 활동 · 전시회



서도호 · 안영일 · 원미랑 동문

주류화단 개척 한인작가 3인

내년 UC샌디에고에 들어설 설치작가 서도호 동문의 프로젝트 '떨어진 별(Fallen Star)'을 축하하기 위한 한인작가 3인전이 12월4일부터 30일까지 샌디에고의 CJ 갤러리(대표 김창송)에서 열렸다.

세 동문은 1950~80년대 모교 미대 졸업후 일찍 미국으로 건너와 당시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온 선구적 작가들이다.

서도호 동문은 뉴욕, 안영일 동문은 LA, 원미랑 동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터전을 잡고 작업해왔으며, 한인사회보다는 국제 미술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아티스트들이다.

서 동문은 드로잉 9점, 안 동문은 유화 12점, 원 동문은 설치작품 12점 등으로, 판매수의 일부는 '떨어진 별' 프로젝트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스튜어트 컬렉션의 매리 비비 디렉터는 "총 100만달러의 예산이 거의 다 모금돼 내년 2월 중 설치전축이 시작돼 여름에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동문은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한인작가의 한 사람으로 모교 동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온 후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BFA, 예일대 미술대학 조소과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카파미술상 수상, 2001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작가로 선정돼 국제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아트선재센터, 시애틀미술관, 휘트니미술관 등 세계 유수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06년 LACMA가 작품 '문(Gate)'을 매입했으며 휴스턴 미술관, 뉴욕 현대미술관, 휘트니미술관, 구겐하임미술관에도 작품이 소장돼 있다.

이번 전시는 신작 '아버지와 딸(Father and Daughter)', '꽃(Flower)', '도어맷: 웰컴백(Door Mat: Welcome Back)' 등을 소개했다.

안 동문은 네살 때부터 붓을 잡고, 여섯살 때 일본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으며, 중학교 때 국전에서 최연소 작가로 특선했다. 모교 미대 4학년이던 1957년 뉴욕 월드 하우스 갤러리 초대로 미국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고 59년 시카고 힐 하우스 갤러리, 62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잇달아 초대전을 가졌던 천재화가다. 1966년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베벌리힐스의 재커리 웰러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20년간 왕성하게 활동해왔다. 2002년 미주 한인작가로는 최초로 미연방 국무부가 선

원쪽부터 서도호 동문의 '아버지와 딸' 안영일 동문의 '스페이스 #1' 원미랑 동문의 '불꽃' 시리즈

정하는 '미술대사'로 위촉돼 2005년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미 대사관저에 작품이 전시되기도 했는데 이번 전시에는 바로 그 작품(스페이스 #1)을 비롯해 유명한 '물' 시리즈와 신작들도 소개했다.

원 동문은 모교 미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0년 프랑스 정부 국비장학생으로 도블, 교 등 장식 미술 학교(Ecole nationale supérieure des Arts Decoratifs)에서 디플로마와 준석사과정을, 소르본느에서 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첫 개인전은 73년 파리 뱅상느 꽃공원에서 설치미술전이었고 76년 미국으로 이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과 퍼시픽 해리티지 뮤지엄 등지에서 17회의 개인전을 비롯 수많은 그룹전에 참여했다. 2008년 경기도 100주년 기념전으로 성곡미술관에서 30여년 만에 한국서 작품을 선보이기 시작, 2009년 인천 이민사박물관의 '디아스포라의 귀향' 전시에 초대됐다.

철망을 불로 태워 그리는 스크린 작업으로 자연의 순환과 태양의 에너지, 순간의 무한성을 표현하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12점의 '불꽃' 시리즈를 소개한다.

정희자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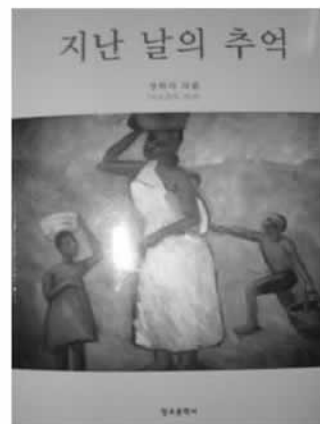
'지난 날의 추억' 출간

시카고에서 화가이자 문인으로 활동하던 정희자(미대 50) 동문이 자전적 에세이 집 '지난 날의 추억'을 펴내고 12월 11일 캘리포니아의 Laguna Hill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외교관의 아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내용은 제1부 외교관의 아내, 제2부 시카고 중앙일보 기고집, 제3부 시 모음 제4부 은퇴마을, 제5부 정희자의 개인전시 작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희자 동문의 부군은 시카고 영사를 지낸 정규호(대학원 58) 동문으로 정희자 동문은 외교관인 부군을 따라 과거 호주에서 시드니 국립 미술대에서도 수학했다.

그 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조보 켈야타 케냐 대통령 초상화를 그려 나이로비 국전에도 출품해 이 지역 Sunday Nation 지 아트 섹션에서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상화 작가'라는 극찬을 받



기도 했다.

시카고에서는 2006~2007년 시카고 미술인대회에 출품했으며 2007년 시카고에서 개인전도 열었다. '글렌 파크 디스트릭 아트반'에서 활동하며 '현대 미술의 이론과 테크닉' 전수에 힘을 쏟았다.

한편으로는 시카고 문인회 회원으로 '해외문학' 신인문학상과 '수필과 비평'에 각각 시가 당선돼 동단한 바 있다.

모교 LA 미주센터

경제닷컴 '투자경제 세미나' 열어

미주 서울대학교 사무소(사무국장 김인종)가 강의실(3699 Wilshire Blvd. #970 LA)에서 지난 11월 18일 투자경제 정보 사이트 '경제닷컴' 주관으로 투자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제닷컴 토마스 박 대표가 강사로 나온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의 거센 맞바람에 처한 오바마 정부의 방향 전환은 무엇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저금리, 저달러 통화정책의 결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진단해 보았다.

또한 그러한 결말이 부동산·

주식·채권·에너지 자원·귀금속·달러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진단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상업용과 주택 부동산의 현주소 ▶주식·골드·실버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세계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화폐전쟁과 에너지 자원 전쟁이 가져다주는 투자기회 등의 주제가 강연됐다.

이번 세미나의 입장료는 사전 예약 20달러, 당일 등록 25달러로 세미나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부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됐다.

모교 황준연 교수

뉴욕 산조 페스티벌 심포지엄 참가

모교 유대 황준연 교수가 지난 10월 28~29일 뉴욕시립대 대학원센터에서 열린 제2회 뉴욕산조 페스티벌·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 페스티벌은 한국을 대표하는 산조명인들과 미국 현지 저명한 학자들의 만남으로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악방송, 뉴욕시립대 대학원이 공동 개최한 것이다.

올해 산조 축제는 '한국의 산

조와 무속음악, 그리고 여타 아시아권의 의식음악'이란 주제로 열렸다. 기존 공연 형식의 축제와는 달리 연주자들의 산조연주와 학자들의 심포지엄을 병행했다.

행사는 심포지엄과 산조 레저리사이클로 진행됐는데 특히 29일에는 5명의 명인들이 한국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30분 이상의 즉흥 산조를 연주한 페스티벌 콘서트가 열렸다.



'호연회' 한국화 모임 박리미 동문

뉴욕 플러싱 타운에서 전시회 가져

뉴욕지역에서 한국화를 그리는 화가들의 모임인 '호연회'의 부회장 박리미(사진 오른쪽) 동문을 비롯한 이 모임의 그룹 전시회가 지난 11월 19일 열렸다.

이번이 제 6회 회원전으로 내년 1월 7일까지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의

타이틀은 '자연 속으로(A Walk Through Nature)'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연을 보고, 숨을 내쉬며, 조금이라도 위안과 행복을 찾으시길 바란다'는 이번 전시회 주최 단체인 호연회는 1987년 이래 김주상씨의 지도를 받은 한국화 동호인 그룹이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동양화를 지도했던 김씨는 1994년 호연회를 결성, 2001년부터 2년마다 그룹전을 열어왔다.

이 모임의 흥정자 회장은 76년 아르헨티나로 이민했다가 20년 후 뉴욕으로 이주했다. 브루클린에 살면서 7트레인을 타고 플러싱까지 가서 김씨의 지도를 받았다.

자정이 넘는 시간에도 지하철이 무섭지 않았던 이유는 순전히 뒤늦게 발견한 그림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박리미 부회장은 서울대 서양화과 졸업 후 25년 전 뉴욕으로 이민 왔다.

"자연을 사랑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그리면서 느끼는 성취감, 또 전시에서 타인들과 내 작품을 나누는 기쁨이 크답니다."

김주상씨는 미술의 기본기를 마스터한 박리미 동문의 한국화에 대한 실력과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



시국칼럼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

연평도 패전과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이명일(정치 57)
한중문화협회 총재

국가안보에 커다란 허점

북한은 지난 11월 23일 대낮에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을 가했다.

이 공격으로 연평도 주민들과 군인들이 사상 당했고 군 시설과 민간인 생활공간이 처절하게 파괴됐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6.25한국전쟁 이래 처음 있는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공공연한 무력도발이다.

이 사건은 천안함 폭침이 있는 지 7개월 만에 일어났다. 천안함에 대한 폭침도 국제법상 군함에 대한 공격으로 유엔 헌장이 정한 자위권 행사의 대상이지만 연평도 포격이야말로 곧바로 자위차원에서 반드시 대응해야 할 군사도발이다.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미리 계획된 것이다. 포격이 행해지기 10일 전 북한은 미국의 핵과학자 S. Hecker 박사를 북한으로 초청, 농축우라늄 폭탄제조에 응용될 원심분리기를 공개하고 북의 핵능력의 존재를 과시했다.

미국이 북의 대남도발에 개입한다면 핵개발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조치를 선행시킨 후 한국의 육해공 3군이 함께 하는 합동군사훈련에 때맞춰 연평도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행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어떨까.

그는 지난 5월 24일 천안함 사건의 진상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평도 포격에서 MB가 국민에게 약속한 자위권차원의 대응은 없었다. 대응시늉은 있었지만 사실상 자위를 포기하는 수준의 대응이었다.

국내언론들은 MB가 “단호히 대처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지만 결과는 좋게 말해 전략적 인내지만 실체는 확전방지에 실패한 대치였다.

이 사태에서 국민들을 절망시킨 것은 3군 합동훈련기간 중에 발생한 ‘연습상황 아닌 실

제상황’에서 군이 제대로 된 대응을 보이지 못한 것이다. 특히 연평도를 지키기 위해 배치된 자주포 K-9 6문 중 2문이 작동불능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 사태에서 보전대 천안함 폭침사건이 한국의 안보에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물설 틈 없는 안보태세가 아님이 밝혀졌다. 군사연습에서 가장 기초적 점검사항인 최전방의 무기 손질상태 따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연습이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포격은 바로 이러한 태세불량 상태에서 발생했다. 정말 한심하고 통탄스럽다. 국군통수권자의 지도력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표출보다는 이성적 대처다.

대통령의 지도력도 비판해야겠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북한의 만행을 규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절한 자기반성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대비라고 하겠다.

국내구조상 안보허점 직시

국내언론들은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됐던 미국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포함되는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에 관심을 쏟았다.

이 훈련이 북한에 강한 경고는 되겠지만 그것으로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여름 동해에서도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지만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11월 27일 북한은 그들의 선전매체를 통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있었다면 유감”이라면서 “이것은 한국군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삼은 때문”이라고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유감표명이 아니라 ‘인간방패’라는 표현이다.

북한은 NNL을 부정하면서 연평도가 자기 땅인데 한국이 민간인들을 들여보내 북한의 포격을 막는 인간방패로 이용했다는 취지다.

이번 포격으로 민간인들이 연평도를 모두 떠나 이 지역 일대가 국제분쟁지역으로 변한다면 북한은 연평도를 군사적으로 점거, NNL을 철폐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심리전을 펼친 것이다.

국가안보에 허점이 크게 뚫린 원인은 김대중·노무현시대의 잘못된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다. 북한에 대한 퍼주기과 정상회담(病)이 바로 그 원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지사이며 MB 집권 이후 김대중·노무현 양 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바로 잡지 않은데 현실적 잘못이 있다.

MB는 퍼주기 정책을 추종하지

는 않았지만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배제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유산을 철저히 정리하지 않았다.

MB도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은근히 추구하면서 정상회담을 의식, 자기 노선을 중도실용으로 내걸고 국내의 친북·중북세력의 발호에 단호히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논객들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國民葬),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國葬)이 모두 MB의 시국관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 하에서 목숨으로 북의 도발에 맞설 충직한 군 지휘관이 나올 수 있을까. 국가안보를 담보할 국내구조 정착 없이는 북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처를 기대할 수 없다.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과잉 대응, 일부러 확대시키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결코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어느 측도 오늘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최중적 승리의 전망이 없는 한 전면전은 시도할 수 없다. 전략적 환경이 이러할 진데 확전이 두려워 북한의 군사도발을 인내라는 구실로 묵인하는 것이야말로 더 큰 도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확전은 한국의 우려나 자제로 막아지지 않는다. 확전방지는 미국과 중국이 필요하다. 한국은 확전우려보다는 북의 도발을 자위차원에서 강력응징, 제발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

총력응징이 없는 한 북한은 군사도발을 내치외교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세습체제 이행에 따른 내부 저항을 봉합하고 외교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는 데 주력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한국이 도발에 강력 대처할 의지가 약할 경우 한미방위조약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대북응징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천안함 폭침 때도 그랬지만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처방을 내놓는다. “양측이 냉정한 자세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한국에 파견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해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 북한을 엄호하기 위해서다.

이 점에서 확전방지 문제는 애당초 MB가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 빈틈없는 안보태세의 확립과 즉각적인 대응보복만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취할 정도다. 그러나 자위차원의 대응을 단행할 기회를 우리는 놓쳤다.

진솔한 대통령을 원한다

그간 국민들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다. G20의 개최와 성공에 긍지를 느꼈다. 핑퐁우 아시안 게임도 국민들의 사기를 앙양시켰다.

술이부작(述而不作)과 해석학



정정수(의대 56)

공자는 “나 자신이 새로 지은 지식은 하나도 없고 모두 인간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혜와 원리를 잘 관찰해서 기술한 것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현자 성인으로 떠받든다”고 했다.

우리가 이해하고 습득하는 모든 지식은 교수나 선생이나, 친구나 선현들이 읽고 경험한 모든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Hermeneutics)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 안에서 재해석해서 우리의 주관으로 자리 잡고 새 개념으로 우리 뇌에 저장한다.

역사상 이단종교(History of Heresy)를 보면 수많은 생명이 종교의 경전을 잘못 해석해서 박해받거나 목숨을 잃는데 이것도 경전 해석을 잘못 했거나 옳은 해석이었지만 소수 혹은 약자편에 섰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성(理性)과 논리(論理)를 우선하는 철학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제정신만 잘 지키면 산다’는 우리 선현들의 속담 한 마디에 잘 함축돼 있다.

호랑이가 조용한 장소에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잡아 먹겠다고 설령설령 이동하는 사이에 놀라서 기절해 있을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호랑이 잡소, 혹은 두 눈을 내리쳐서 혼돈상태에 있는 호랑이에게서 도망치든지 해야 할 것이다. 확률이야 대단히 낮겠지만,

그리스 신화에 ‘Hope(희망·소망)’가 Can of Vices에 들어 있는데 ‘설마가 사람 죽인다’는 우리 속담에 잘 함축돼 있다.

희망·소망은 바람직한 Virtue이지만 근거없고 터무니없는 희망은 우리의 생명을 잃

그러나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포격 앞에 제대로 된 대응도 없이 무너진 우리의 방어태세는 국민들의 안보자신감에 치명적 타격을 안겨주었다.

지금 국민들은 MB가 과연 중북·친북세력이 날뛰는 국내구조를 그대로 두고 국가의 안보태세를 확립,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중도실용이라는 어설픈 입장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인가.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가져올 자신이 있는가를 대통령에게 묻고 있다.

또 대중국 정책결정의 지도부인 외교통상부 장관·차관 3인과 외교안보수석, 그리고 주 중국 대사까지 어느 자리도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는 인사배치가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지도 묻고 있다.

이제 대통령은 자기의 입장과 안보관, 주어진 여건과 처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실행해 낼 수 있는 목표를 국민들에게 내놓고 지지와 단합과 협력을 호소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참된 리더십을 보고 싶은 것이다.

<필자 소개> 1939년생/서울대 정치학과 졸/동양통신 기자, 기독교방송(OBS) 해설위원/통일원 대변인, 통일 연수원장 역임/81~2000년 11·12·15대 국회위원/원성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우석대 초빙교수/현재 한중문화협회 총재, 한국아프가니스탄 친선협회장/2008년 3월 중국 북경대학으로부터 동북아 전략연구중심특약연구원 위촉/rh201@nmail.net

게 하기도 한다(암이 확산됐는데도 “설마 나한테 무슨 암일리가...”, 또는 “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라고 믿는 등).

인류 역사를 크게 보면 ‘이성·영웅주의(Master moral, Hero moral, Reason moral)’가 지배하던 Early Greco-roman period와 사랑과 평화와 복종을 강조하는 Priest moral or Slave moral이 주축이 된 중세 암흑기 1천년이 있다.

현대 인류사회 개인생활과 철학에도 이 두 산맥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데, 나 개인 소견으로는 두 산맥이 서로 융합해서 꽃 피고 새 우는 아름다운 에덴동산이 되었으면, 하는 Day Dream을 나 혼자서 가끔 꾸민다.

모든 책에 들어 있는 지식의 Resources들이 범람하는 Information Overload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야말로 해석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해석해서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생의 정답이 시험문제와는 달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다 보니 더욱 더 재미있고 가끔 혼돈되기도 한다.

음악칼럼

예술가곡을 찾아서

프랑스의 예술가곡



조민규(문리 50)

프랑스 예술가곡(Melodie) 소개

프랑스의 예술가곡이라 하면 Henri Duparc의 '여행으로의 초대(L'invitation Au Voyage)'와 Gabriel Faure의 '달빛(Claire de Lune)', '꿈을 꾸 다음(Apres Un Reve)'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권 밖에 있는 한국에서는 예술가곡이라면 우선 독일가곡이 앞설 것이다. 그런데 프랑스 예술가곡, 즉 프랑스 시와 음악을 융합한 멜로디는 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예외가 있다면 Faure의 '달빛'과 '꿈을 꾸 다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이 두 가곡의 아름다운 선율과 시는 정말 아주 신비스럽고 즐거운 화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맞출 수 없을 것 같은 이경(異景)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뿐만아니라 이 두 멜로디는 온 세상에서 널리 연주되고 독창곡으로 혹은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과 첼로 독주, 앙콜 곡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Duparc의 '여행으로의 초대'는 좀 다르다. 우선 작곡가로서도 그의 작품은 수도 적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여행으로의 초대'는 비교적 더 널리 알려져 있는 편이지만 문학이나 음악 애호가 밖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본다.

Duparc의 '여행으로의 초대'는 그의 독창적인 작곡가로서의 전형적인 사롱(Salon)음악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귀에 익숙한 '멜로디'와는 이질적인 면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한다.

필자의 경험으로 이 곡을 수없이 들었고 음악회에서 연주도 참관했으나 항상 지금도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 한편 새로이 들을 때마다, 어쩐지 좀 다른 것 같고 시원스럽게 들리지 않는다고 종종 생각한다.

왜 그럴까. 아마 우리들의 귀는 화음이 안정된 독일 가곡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멜로디의 성격

예술가곡은 성악곡이다. 성악 창작곡으로 일반적으로 피아노 반주를 동반하며 시조의 한계(?), 분위기, 풍경 등을 묘사, 혹은 암시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인간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노래다.

성악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19세기의 낭만파 작곡가들이 시와 음악을 융합시킴으로써 예술가곡의 최대의 발전을 이뤘다.

독일에서는 'Lied'라고 불리며 프랑스에서는 'Melodie'라고 한다. 역사상으로 볼 때 낭만주의는 고전의 형식 표준과 제한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한 점에서 예술가곡의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19세기는 독일가곡의 절정기였고 독일가곡은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 우리도 예술가곡이라고 하면 독일가곡을 쉽게 상정한다. 독일에서는 당시 저명한 시인 괴테·하이네, 혹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시인들의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 예가 슈베르트·슈만·베토벤·브람스 등이다.

프랑스의 Melodie'는 독일의 'Lied'에 해당하며 우리의 귀에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Henri Duparc·Gabriel Faure·Claude Debussy·Maurice Ravel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의 작품은 당대의 걸작시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시인의 작품을 작곡하는 것이었다.

그 예가 '여행으로의 초대'로 보들레르의 시를 작곡한 것이고 또 Faure의 '월광(月光)'은 폴 베르렌느(Paul Verlaine), '꿈을 꾸 다음'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탈리아 무명시인의 작품으로 '부신(Romain Bussine)'이 번역해서 Faure가 작곡한 것이다.

필자는 60년 초기에 어떤 마스터 클래스(Master Class)에서 프랑스의 세계적인 성악가 '제럴드 슈제(Gerald Souzay)'가 '프랑스 가곡'이라던 흔히 상송을 생각하지만 이는 대중가요고 '에디 피아프(Edith Piaf)'나 '모리스 슈바리예(Maurice Chevalier)'가 부르는 대중가요"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

프랑스 가곡의 특징

역사적으로 볼 때 독일가곡이 로맨틱한 형태로 강력한 표현을 요구하는 데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반면 프랑스 Melodie는 그 형성과정을 살펴볼 때 다른 특색을 지닌다.

멜로디는 역사상으로 볼 때 소규모의 사롱이었던 연주장에서 발달하고 로망스가 주체였으며 사용하는 시는 간결명료함과 손쉬운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과도한 자곡과 장식은 피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연주는 자유스럽게 이뤄져야 한다.

Souzay는 "멜로디의 과도 연주 연습은 멜로디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장애가 됨으로 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멜로디의 저명 성악가 가운데 Kiri Te Kanawa와 Jose van Dam·Fredrick von Stade Susan Graham·Anna Sophie Von Otter등은 프랑스인이 아니다. 프랑스인은 Regine Crespin·Gerald Souzay·Francois LeRoux 등이다.

여행중 프랑스 음악 애호가와의 대화에서 "누가 가장 으뜸가는 대표 성악가인가?"라는 질문에 그들은 한참 주저하더니 "누굴까?"하고 서로 쳐다보더니 대부분이 "외국인이죠?"했던 반응을 기억한다.

예술가곡 연주상의 요구

예술가곡 연주에 필연적 요구는 무엇인지, 성악가와 반주자의 긴밀한 협조로 최소의 지시로 시와 음악에 표현돼 있는 섬세한 정서를 관중에게 소통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곡 연주는 성악가와 반주자의 가장 예민한 협조를

요구하며 때로는 성악 부분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은 반주자가 더욱 빛나게 표시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 귀절보다 음악 본질을 즉시로 표현할 수도 있는 까닭이다.

예술가곡의 시는 청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성악가는 이를 위해 편지를 다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시의 원본과 번역문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또한 독창가의 과도한 자기위주의 연주는 피해야 하며 과도한 몸짓 또한 금물이다. 따라서 예술가곡 연주는 대규모보다 소규모 공연장이 적합하다.

그러나 많은 청중이 따르는 저명 성악가의 독주회는 대강당 연주도 성공하는데 앞에 나열한 성악가들이 이에 속한다. 그러므로 가끔 소연주장이나 박물관 등에서의 연주는 진정한 큰 호사(Blessing)다.

위에서 말한 LeRoux의 아주 작은 미술관(Musee Guimet, Paris)에서 열린 독주회는 불과 30~40명 남짓 관중이 있었는데 연주곡목은 보들레르의 시를 작곡한 Duparc의 '여행으로의 초대'도 있었는데 필자에게는 귀중한 경험이었다.

Henri Duparc 여행으로의 초대

'보들레르는 우물에 가득찬 자신의 내면세계를 스스로 얹힌 비평의 눈으로 보고 바라보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 막에 사달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피안(彼岸)에 대한 심혼의 동경을 노래했다(보들레르 시선, 박은수 저, 삼중당 1975 참조).'

Henri Duparc(1848~1933)와 같이 소수의 작품을 남기고(14개의 가곡과 다른 작품을 배출) 음악계에 명성을 올린 예는 드물다(그의 작곡생활은 정신적 질환으로 37세에 마치게 됐다).

그를 평가할 때 오로지 가곡에 의 존할 뿐이다. George Servieres는 Guide Musical Paris(1895)에서 "Duparc의 가곡은 철저히 독창적이고 힘이 가득차고 프랑스 음악에서는 보기드문 깊은 감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 그 특색은 어디서 오는지 이것을 찾으려면 프랑스 밖에서 Duparc가 받은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Vaugirard 제주위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각별히 제주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초빙교수로 와 있던 '세자르 프랑크(Cesar Franck)'에게서 피아노와 작곡을 사사하면서 비약적인 창작성을 발휘해 멜로디의 걸작들을 배출한다. 17개의 멜로디를 작곡했으나 완벽주의자로 자기 자신의 까다로운 비판자였던 그는 13개만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그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여행으로의 초대'는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악의 꽃(Les fleurs du mal, 1852년 판본)'에 게재돼 있는 것을 1870년 작곡한 것이고 '엑스타스(Extase, 1872)·라비엔테리엘(La vie anterieure, 1884)' 등이 있다.

그의 교향시곡 'Lenore(1887)'가 있고 오페라 '루잘카(Rous-salka)'를 작곡하다 중단했다.

1870년 당시 프랑스에서는 독일 전쟁의 폐해로 음악계의 풍조는 독일음악에 지배적이어서 독일 음악에 거부감을 보였다. 이때는 독일 음악의 전성기로 진보음악으로 간주되는 바그너의 오페라와 그의 음악은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단자로 대우받는 세자르 프랑크는 이에 해탈되지 않았다. 따라서 모험적인 기질을 가진 제자들이 따랐고 그중 가장 재능 있는 제자가 Duparc였다.

Duparc는 프랑크의 영향으로 정



Gerald Souzay(왼쪽)와 그의 반주자 Dalton Baldwin의 공연모습

여행으로의 초대

본앙팡 마 쇠외에르
저기 가서 같이 사는
감미로운 생각해보렴!
한가로운 사랑하고
사랑하다 죽고 지고
너를 닮은 그 고장에서!
안개 낀 날씨
젖은 태양이
내 정신에겐 눈물겨워 반짝
이는
변화무쌍한 내 눈의
그토록 신비로운
그런 매력 풍긴다네
거기선, 일체가 질서와 아름다움,
화화로운, 고요함과 그리고
쾌락 뿐.

보라 저 운하 위에
배들이 잠들음
그들의 성미가 방랑자 같아
세계의 끝에서
그들이 거기 온 것은
네 사소한 욕망도 채워주기
위할일세
-서산에 지는 해는
들판을 풀들여서
은하들이며 온 거리 거리
보랏빛과 황금빛,
세상은 잠들도다
저녁노을 훈훈한 빛 속에

거기선, 일체가 질서와 아름다움
다움
화화로운, 조용함과 그리고
쾌락 뿐.

*민음사 간행 Baudelaire의 '악의 꽃(Les Fleurs du Mal, 김봉구 옮김)에서 인용

L'invitation Au Voyage

Mon Enfant, ma soeur
Songe a la douceur
D' aller la-bas vivre en
semble!
Aimer et loisir
Aimer et mourir
Au pays qui te ressemble!
Les soleils mouilles
De ces cieles brouilles
Pour mon esprit ont les
charmes
Si mysterieux,
Brillant a travers leurs
larmes.
La,tout n' est qu' ordre
et beaute,
Luxe,calme et volupte.

Vois sur ces canaux
Dormir ces vaisseaux
Dont l' humeur est
vagabonde;
C' est pour assouvir
Ton moindre desir
Qu' ils viennent du bout
du monde.
-Les soleils couchants
Revetent les champs,
Les canaux, la ville en
tiere,
D' hyacinthe et d' or:
Le monde s' endort
Dans une chaude lumiere.

La,tout n' est qu' ordre
et beaute,
Luxe,calme et volupte.

기적으로 바그너의 오페라를 참관하러 베이루트 뮌헨 등지로 여행했다. 여기서 Wagner·Liszt등을 만나 바그너의 독특한 협화음과 그의 교향곡식 추진형태를 체득했다.

한편 19세기 독일 낭만시의 주재였던 미지의 세상에 대한 동경심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그너 신봉자는 아니었다. 바그너의 강점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거창함이 아니고 오페라의 축소된 소부분의 반 그늘과 죽어가는 빛의 비밀을 섬세하게 조명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 시는 신비에 가득차고 미지의 땅에 대한 기대에 가득찬 노래다. 이 여행으로의 초대는 저음반 피아노 반주에 반복되는 기초음과 멜로디로 엮여있는 기교스러운 화음을 통해 어설피게 잠에서 깨우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점점 전개되는 멜로디는 시 귀절과 은은히 연결되며 마음 속 깊이 숨어 있는 미지의 세상에의 동경을 다채롭게 떠낸다.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저기 가서 같이 사는 감미로운을 생각해보렴' '가서 살 고장과 안개낀 날씨, 젖은 태양, 그런 매력을 풍긴다네. 거기선 일체가 질서와 아름다움' '서산에 지는 해와 운하의 저녁노을, 오색찬란한 색깔로 서산에 지는 해, 운하의 저녁노을...' 같은 표현 등이다.

피아노 반주는 교묘한 페달의 사용으로 최저음도 살아나도록 했고 당시 사롱연주에서 유행된 고도의 감성표시를 초월한다. 다만 때로는 열정에 넘친 그의 감도표시는 사롱의 제한을 벗어나 이때는 마치 슈베르트나 슈만을 방불케 한다. 그의 시귀절 사용은 다른 작곡가보다 더 까다로운 것은 없지만 그의 시의 분위기의 느낌을 음악으로 소통하는 제주는 그에 필적할 사람이 없었다.

Henri Duparc는 멜로디 음악의 본질과 정서의 강인성, 시와 음악의 결합을 배웠는데 이는 Gabriel Faure가 성숙기에 이르기 전까지 그와 필적할 사람이 없었다.

동문광장

소감·칼럼

마라톤



김충열(의대 63졸)

미국 50개 주 마라톤을 향해 가는 젊은(?) 동문이다.

지난 11월 7일 노스캐롤라이나 Raleigh 마라톤을 완주함으로써 25개 주 마라톤을 마쳤다. 텍사스 주에서 7번 마라톤을 했으므로 지금까지 31회 마라톤을 완주했다.

지난 1995년 휴스턴 마라톤에 처음 도전해 4시간 53분에 끝마쳐 자신감이 생겨 1996년에 다시 도전해 20분이나 단축, 보스턴 마라톤 참가자격 시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1997년 휴스턴 마라톤에 임했다. 그러나 당시 나이 69세로 4시간 15분 이내로 완주는 했으나 시간이 미달돼 저우기 실망했다.

마라톤 후 호텔방에 들어가 욕조에 물을 틀어 놓고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그만 잠이 들어 깨어나 보니 물이 욕조를 넘어 화장실을 지나 침실 카펫까지 가서 호텔 중업원을 불러야 하는 소동을 일으킨 일도 있다.

오래된 포틀랜드 마라톤에서는 20마일까지 댄 후 양쪽 다리에 통증이 와서 그만 기권까지 생각했으나 아픔을 참고 걸어서 마라톤을 마치기도 했다. 따라서 무려 5시간 27분이 걸린 마라톤이었다.

보스턴 마라톤 참가를 포기하려고 했으나 다음에 열린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쉬지 않고 계속 뛰어 4시간 40분에 완주함으로써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2008년도 휴스턴 마라톤에 도전했다.

당시 70세였으므로 4시간 30분 이내로 완주하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었다.

그날 날씨도 좋았고 몸 상태도 좋아 열심히 달려 종착점에

가서 전광판에 나의 기록이 4시간 20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는 시간기록임을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마라톤을 시작한지 8번째 만에 마침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고 싶은 나의 아내 딘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같은 해 보스턴 마라톤에 참가해 고국에서 온 마라톤 선수들을 많이 만났다. 1950년도 보스턴마라톤에 참가한 한국 선수들이 나란히 1.2.3등을 해서 이 기록영화를 6.25 전 서울에서 감명깊게 본 기억이 있다. 따라서 이 보스턴 마라톤을 하면서 옛날 고국의 선배 선수들이 댄 곳을 나도 뛰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 보았다. 25개 주 마라톤을 하면서 잊지 못할 기억이 많은데 그 중 하나가 뉴멕시코 주 알바르키 마라톤이다.

그 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하고 보니 러닝 팬츠를 가져 올 것을 잊어버려 마라톤 등록 장소에 가서 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러닝 팬츠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불행하게도 팔지를 알아 너무도 난감했다.

그 때 메릴랜드에서 마라톤에 참가하려고 온 여자들이 나를 지켜보던 중 자기도 티셔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해서 스포츠 상점에 가서 러닝 팬츠를 사서 이른날 마라톤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마라톤을 위해 떠나기 전 러닝 팬츠를 제일 먼저 백에다 넣어두고 있다.

2009년 유타 주 솔트 레이크 마라톤 후 오른 쪽 발바닥에 통증이 와서 자세히 보니 까만 피물집이 생겨 운동선수들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 골절같이 앞으로 더이상 마라톤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생겼다. 휴스턴에 도착하자마자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았더니 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 달에 있는 델라웨어 마라톤에 참석할 수가 있었다.

마라톤 코스에 마라톤 선수들을 위해 많은 이동식 화장실을 준비해놓고 있으나 언제나 선수들이 화장실 앞에서 줄을 지어 기다려야 하므로 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여러 번 길 옆 수풀에서 실례한 적이 있다.

남자 선수들은 이렇게 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으나 여자 선수들은 꼭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므로 마라톤 경기에서는 여자 선수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이다.

지난 2009년도 뉴햄프셔의 맨체스터 마라톤에서는 70세 이상 선수 중에서 2초 차이로 텍사스의 산안토니아에서 온 선수를 물리치고 내가 1등을 하기도 했다.

시카고 마라톤에서는 20마일 지점에서 한국에서 온 71세 노인장을 만나

뉴욕의 맛과 멋



김창수(약대 64, 경영 대학원 68, CPA·MBA)

뉴욕에 사는 프리미엄 중 하나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래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맨해튼은 수많은 관광객을 위해 식당 수가 대단히 많고, 세계적인 금융·비즈니스·패션·예술의 중심지답게 최고급에 속하는 레스토랑과 바(Restaurant & Bar)가 즐비하다.

나는 32가 한인타운에서 동포들을 주고객으로 하는 공인회계사 사무실을 오픈하기 전 14년간 미국 직장생활을 하면서 한식 이외의 각국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특히 이탈리아·프랑스·일본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아 그때부터 우리 한식보다는 외국 음식을 더 좋아하게 됐다.

내가 좋아하는 위의 세 나라 음식과 중국음식은 먹을 때 맛있고, 먹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뱃속이 편해서 좋다.

그리고 식당 내부의 디자인이나 식당 중업원의 서비스가 대부분의 한식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 그래서 식구들과, 또는 직장생활에서 외식할 기회가 있으면, 한국식당보다는 외국식당을 더 선호하게 됐다.

매주 수요일 뉴욕 타임즈에는 다이닝(Dining) 섹션이 있다.

거기에 샘 시프톤(Sam Sifton)이라는 음식평론가가 뉴욕시내의 여러 레스토랑을 순례하면서 'Restaurants'라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프랭크 브루니(Frank Bruni)씨가, 그리고 그 전 몇년간은 윌리엄 그라임즈(William Grimes)씨가 이 칼럼을 담당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라톤 종착점에 손을 잡고 같이 마쳤다.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 마라톤 종착점이 유명한 노틀담 미식축구장에 있었는데 마지막 마라톤 코스인 축구장의 터널을 통해 미식 축구장에 들어갈 때는 내가 마치 노틀담 미식 축구선수가 된 기분이었다.

2009년 9월에 열린 콜로라도 스프링 마라톤에서는 4시간 53분 11초로 완주해 2001년도에 시작한 이 마라톤에서 70세 이상인 집단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을 했다.

2010년도에도 나는 내 기록을 갱신하지 못했으나 나의 나이 집단에서 1등을 4번 했다.

이분들은 식당을 선택한 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드링크와 애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안트레이(Entree)를 거쳐 디저트까지 다 먹어 보고 나서 주방장(Chef), 음식 맛, 분위기, 서비스 등에 관해 길게 평을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가를 별표(*)로 표시하는데, 최고 등급이 별 4개다. 간혹 별을 하나도 못 받는 Fair 등급의 식당도 소개된다.

그리고 식당 분위기, 소음 정도, 추천할만한 음식, 포도주 리스트, 가격수준, 영업시간, 예약관계, 크레딧 카드, 휠체어 이용 등에 관해 별표 밑에 요약해 둔다.

보통 팬클럽 식당은 별이 2개인데, 한두 달만에 별 3개짜리가 한 번씩 소개되고, 별 4개짜리는 1년에 한두 곳 밖에 안 나온다.

음식이 아무리 좋아도 안트레이 값이 25-50 달러 정도면 별을 2개 밖에 못 받고, 세 코스가 75 달러 이상은 돼야 별 3개를 바라볼 수 있다.

별을 3개 정도 받는 식당은 수주 전 전화해야 예약할 수 있는데, 1인당 식사비가 보통 100달러가 넘는다.

뉴욕 타임즈의 별 3개는 미셸린(Michelin)별 2개와 같은 급이다. 미셸린 스타는 최고가 별 세개다.

나는 오랜 세월동안 이 뉴욕 타임즈의 칼럼을 스크랩해 오고 있다. 거기에 소개된 식당 중에 많은 곳을 찾아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 것이 취미 중의 하나가 됐다.

외식을 할 경우 뉴욕 타임즈 칼럼 이외에 주로 참고하는 가이드는 '자갓(Zagat)'에 나온 '뉴욕시 레스토랑 업소록(ZAGAT NYC Restaurant Directory)'이다.

'자갓' 회사에서는 수만명의 자원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뉴욕을 비롯한 미국내 대도시와 세계 주요 도시의 식당 리스트를 매년 발간한다.

그 가이드는 선정된 식당마다 음식맛, 데코레이션, 서비스의 세가지 부문에 각각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놓았다. 그리고 더너 가격도 기재하고 있다.

'자갓'의 뉴욕시 레스토랑 디렉토리에 1천700여개 식당

이 수록돼 있다.

우선 알페벳 순서로 식당이 소개돼 있고, 뒤쪽에는 음식의 종류와 식당의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해 놓았고, 모임의 목적과 원하는 분위기, 서비스 스타일에 따라서 분류한 페이지도 있다. 원하는 종류의 음식에 따라 교통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식당을 몇 군데 찾아서, 우선 4줄 정도의 평을 읽어보고 음식맛과 가격을 참고해서 예약을 하면, 별로 실망하지 않는다.

뉴욕 타임즈의 신문 독자가 아닌 분들은 웹사이트 nyc-times.com/dining에 들어가서 Restaurant Review 칼럼을 볼 수 있고, 원하는 지역, 음식 종류, 가격 수준에 따라 뉴욕 시내(특히 맨해튼)의 식당을 썰치할 수 있다.

그리고 자갓의 식당 가이드도 'zagat.com'에서 찾아볼 수 있고, 각자 원하는 식당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

뉴욕시에서는 겨울과 여름에 2-3주씩의 식당 주간(NYC Restaurant Week)을 갖는다. 겨울에는 1월이나 3월 중, 여름에는 6-7월 중에 열리는데, 참가 식당들이 점심은 24달러, 저녁은 35 달러에 3코스를 제공한다.

그 기간 동안 한 주에 두세 곳을 방문하면, 뉴욕에서 펜클럽은 식당에 가서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과 멋진 분위기를 즐기는 셈이다.

고급 레스토랑은 테이블 위에 식탁보와 천으로 된 내프킨이 있어야 하고, 간접 조명으로 멋진 분위기를 자아내야 한다. 그리고 라테일을 만들 수 있는 고급스런 바(Bar)가 시선을 끌어야 하고, 서비스는 아무나 하지 않고 그 테이블의 담당 웨이터(혹은 웨이트레스)와 버스보이가 하게 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한국식당은 실내 장식과 서비스 면에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고 식사 시간에 찾아가는 밥집과 같은 수준이다.

뉴욕의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한식보다는 비용이 곱절이 들지만 분위기와 서비스는 네배 정도 즐길 수 있다.

이 맛과 멋이 생활비 비싼 뉴욕에 사는 프리미엄이다.

종착점을 통과할 때 느낀 성취감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값진 추억이다. 휴스턴 크로니클 스포츠 기자 리처드 저스티스는 "마라톤 종착점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승자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했다.

매일 아침 약 10킬로미터를 뛰면서 다음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동문들, 아직 늦지 않았다. 패자가 없고 승자만이 있는 이 마라톤에 이 젊은(?) 동문과 함께 꼭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25개 주 마라톤을 할 수 있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같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건강

미용성형

동양인과 서양인의 안면성형수술 차이



박정일(의대 61)

안면성형수술에 대해서는 언론과 여성지, 또는 성형외과 website 등을 통해 상당히 깊은 지식까지 알려져 있다. 하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의 안면성형 수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어 이 차이점을 비교 관찰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쌍꺼풀 수술(Double eyelid operation) vs Blepharoplasty

동양인 특히 한국인에게 성형수술이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쌍꺼풀 수술로 주로 젊은 층에 많겠지만 나이가 들면 따라 눈꺼풀이 처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젊은 사람의 경우는 눈이 커지고 미적효과를 갖게 되는 반면 나이가 들면 눈꺼풀 피부가 피하지방을 잃고 탄력성이 적어지며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후자의 경우 Blepharoplasty가 더 적합한 용어다. 피부 지방이 줄어 들면 잔주름이 생길 뿐 아니라 눈꺼풀이 밑으로 처지면 눈이 작아보이고 심지어는 시야도 가리게 된다. 쌍꺼풀 수술과 달리 윗 눈꺼풀의 처짐을 교정하는 수술(blepharoplasty)은 나이가 든 동양인과 서양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동서양인 사이의 눈 주위 형태를 비교해보면 서양인은 눈꺼풀이 매우 얇고 피하지방도 아주 적다. 그리고 눈 자체가 속으로 함몰된 음파 눈이기 때문에 수술, 특히 윗 눈의 피부를 제거했을 때 부기가 별로 심하지 않아 일주일이면 수술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쾌한다.

반면 동양인 특히 나이 드신분들은 눈꺼풀 피부자체가 두껍고 피하지방이 서양인에 비해 많아 눈꺼풀 수술후 회복기간 중 눈이 푸석푸석하고 눈두덩이가 붓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동서양인의 피부조직의

차이이므로 어쩔 수 없다. 윗 눈수술은 피부 절개를 속눈썹에 가까운 부위에서 해야 수술상처가 가늘고 눈에 잘 띄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진 피부를 제거할 경우 아래쪽 피부를 희생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부는 속눈썹에 가까운수록 얇고 눈썹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두터워진다. 수술로 아래쪽 얇은 피부가 제거되기 때문에 윗쪽 두꺼운 피부만 남으며 이 남은 피부를 접어 쌍꺼풀을 만들면 자연히 쌍꺼풀이 두꺼워지고 눈주위가 푸석푸석하며 부자연스러울수 밖에 없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처진 피부만 살짝 제거하고 쌍꺼풀은 만들지 않든지 아니면 아주 얇은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 방법이 있으나 자리잡을 동안 부자연스러운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마(눈썹)올리는 수술(Forehead lift)

눈수술 후의 부자연스러움을 피하기 위한 수술법으로 이마거상수술 또는 눈썹거상수술이 있는데 이 수술이 개발된 것은 실제로 서양인의 눈썹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동양인도 마찬가지로 서양인은 나이가 들면서 눈썹이 내려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싫어한다.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면 부드러운 인상이 없어져 남자의 경우 범접인상을 줄 수 있어 이를 교정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시행돼 왔지만 지난 20-30년간 이마거상수술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다. 이 수술법의 또다른 목적은 양미간의 주름을 만드는 눈썹 사이 근육을 제거해 켈그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켈그리 생기는 깊은 주름은 백인에 비해 덜생기는 편이다.

하지만 동양인은 이 수술 방법이 앞서 언급한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수술이 윗 눈꺼풀 수술에 도움되는 것은 눈썹을 위로 치켜 올려 눈썹과 눈 사이의 처진 피부가 위로 당겨지는 때문이다. 처짐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마거상 수술로 눈썹 아래로 내려왔던 피부가 완전히 올라가기 때문에 눈꺼풀 수술이 불필요하게 되거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는 이 수술을 병행함으로써 쌍꺼풀 수술시 아래 피부를 조금만 절개해도



윗사진은 Face lift에 관한 시술로 왼쪽은 수술 전, 오른쪽은 수술 후의 모습이다. 아랫 사진 왼쪽은 전체 성형 전후 모습이고, 가운데는 쌍꺼풀 수술전, 오른쪽은 쌍꺼풀 수술 후의 모습이다.

되므로 수술 후 생기는 두툼하고 푸석푸석함이 훨씬 적어져 회복이 빠르고 자연스런 결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눈이 처져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는 먼저 이마거상수술을 권한다. 이 수술로 눈꺼풀 처짐이 만족하게 개선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래도 처진 부분이 남을 경우 쌍꺼풀 수술을 하면 더 자연스런 결과를 얻는다. 앞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부가 속눈썹에 가까울수록 아주 얇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므로 아래쪽 얇은 피부를 적게 제거할수록 얇은 피부가 쌍꺼풀 형성에 이용돼 더 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된다.

또 한가지 쌍꺼풀 수술시 주의점은 윗눈꺼풀이 처질 경우 눈꼬리도 함께 처진다는 사실이다. 이 경우 눈꼬리 근처의 살도 함께 제거해주어야 쌍꺼풀선이 자연스럽게 눈꼬리까지 연장된다. 눈꺼풀의 중간부분 살만 제거하고 쌍꺼풀을 만들면 놀란 토끼눈이 된다. 눈꼬리 근처의 살도 제거하고 쌍꺼풀 수술을 해 놀란 토끼눈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 또한 이마거상수술이다. 왜냐하면 이마거상수술의 경우 눈꺼풀의 살만 아니라 눈꼬리 근처의 살도 함께 올라 가기 때문이다.

▶코 용비 수술(Nasal Augmentation) vs 코 축소 수술(Reduction Rhinoplasty)

동양인이 많이 하는 수술은 코 용비(높임) 수술인데 비해 백인은 반대로 nasal reduc-

tion(코 축소)수술을 한다. 백인들은 이른바 매부리코가 많아 콧등이 튀어 나오고 코가 길며 아래로 처진 경우 콧등뼈를 끊어내고 코 길이를 짧게 하며 위로 높여 꼬매주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다.

동양인은 반대의 경우로 코가 얇고 짧고 평평해지고 콧구멍이 위로 치켜진 경우가 많다.

또 한가지 서양인은 인중과 코 밑의 각도가 90도 이상이 돼 앵글이 없이 둥그렇게 이행이 되는 반면 동양인의 코는 인중과 코 밑 사이가 거의 90도 또는 90도 이하가 돼 코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앵글이 각이 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깊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동양인이 바라는 수술은 코를 높이고 길게 하거나, 인중과 코 밑 각도를 좀더 완화시켜주며 들쭉한 경우는 콧구멍을 가리는 수술을 한다. 또 코밑 쪽이 넓은 경우 코밑 쪽을 좁혀주는 수술을 한다.

코용비 수술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물질인 임플란트 사용법으로 주로 실리콘이 많이 쓰이는데 최근에는 Gore-Tex로 만들어진 임플란트를 쓰기도 한다. 임플란트 이용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임상경험 혹은 그간 연구결과 부작용의 이유중 하나는 수술 자체가 적절히 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코용비는 콧등성이 부분을 올리는 경우와 코 끝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적절한 수련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성형외과의가 수술하면 부작용과 실패의 경우가 일부 조형물질 사용을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한편 연골만 따서 하는 경우 이물질에 대한 거부반응은 없지만 나뭇대로의 부작용이 있다. 콧등을 연골로 높이려면 연골의 양이 많아야 한다.

귀 뒤의 연골은 채취하기가 쉬운 반면 양이 적어 콧등을 높이는 데는 적합치 않다. 따라서 양이 많은 갈빗대에서 연골을

떼어내는 데 이 경우 수술이 크고 가슴에 흉터가 남고 또 잘못되는 경우 기흉, 즉 폐의 공기가 빠져 생명이 위험한 의료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소위 warping이라 해서 연골이 휘 모양으로 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연골을 떼고 재수술을 해야 한다.

대체로 콧등성은 임플란트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코 끝에 임플란트를 넣는 경우에 비해 훨씬 적다. 그래서 콧등성에는 임플란트를 넣고 코 끝은 연골을 넣어서 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용비수술은 크게 그냥 임플란트만 넣어 하는 경우, 연골만 따서 하는 경우 그리고 콧등은 조형물질을 넣고 코 끝은 연골을 넣는 세 가지 수술 방법이 있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세 가지 모두 장 단점이 있으므로 환자의 조직상태, 요구사항 그리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플란트 이용수술은 아주 간단한 수술이고 비용도 연골이 용수술에 비해 저렴하고 회복도 일주일 정도가 장점이다.

임플란트와 연골을 함께 이용해서 수술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나 요구, 의사의 판단에 의해 콧등은 비교적 안전한 조형물질을 쓰고 코끝은 귀 뒤에 있는 연골을 이용해 두가지 방법의 장점을 모두 택할 수도 있다. 상처도 귀 뒤에 가려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또 연골을 떼어내도 귀 자체의 모양이나 기능 자체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있다.

조형물의 부작용 가능성 때문에 연골만 고집할 경우 늑골(갈비뼈)에 부착된 연골을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되 의사선택에 특히 신경써야 한다.

▶광대뼈 수술(Cheek bone)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에 정 반대의 접근방법을 요하는 수술로 소위 광대뼈 수술이 있다. 서양인들은 광대뼈가 평편해서 이 부분이 나오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곳에 임플란트를 넣어 동양인의 광대뼈처럼 되는 것을 좋아한다.

고(故) 오기창 박사 추모미사 2개대학서 시행

지난 9월 10~13일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 대학과, 가톨릭대학 등 2개 대학에서 고(故) 오기창 박사에 대한 추도 미사를 올렸다.

두 대학에서 총장을 비롯한 80여 명의 인사들과 친지들이 이 미사에서 참배했다.

가족 측에서는 부인 조봉환(Bonnie Oh, 법대 53집) 박사과 아들 James J. Oh, Esq., 사

촌 동생 김주진(James J. Kim, 상대 54집) 아남 기업/Amkor Technology 이사장 부부가 참석했다.

미사 후 가족이 준비한 오찬에서 오 박사의 일생에 대한 담화가 나누어 지면서, 교인의 동료인사들은 오 박사의 강직한 성품과 학자로서의 뛰어난 공적, 능숙한 행정자로서의 업적 등에 대해 추모했다.

이 추모행사에서는 부인 조봉환 박사의 '당신은 왔는데'라는 시가 Ben Whang 박사에 의해 낭독돼 듣는 사람들의 눈시울을 젖게 했다.

고 오 박사의 가족들은 현재 조지타운 대학에 기증하는 'Oh Award'에 추가금을 기증했다.

가톨릭 대학에서는 매 2년마다 열릴 'John K.C. Oh' 연수강연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문광장

칼럼 · 시



위 사진은 사각 턱의 수술 전 (왼쪽)후(오른쪽) 모습이고 아랫 사진은 옆에서 본 수술 전후 모습이다.



반면 한국인들은 광대뼈가 크고 앞 쪽만 아니라 옆 측두쪽의 뼈가 나오는 사각 얼굴을 싫어한다. 세련되게 보이지 않고 배움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인다는 편견 때문에 수술로 교정을 바라는 경우가 많다.

또 이런 비슷한 현상을 턱뼈수술에서도 볼 수 있다.

서양인들은 턱뼈가 옆으로 나온 사각턱을 좋아한다. 서양인에서는 facelift 했을 경우 턱뼈가 앞쪽이나 옆쪽으로 나오면 결과가 더 좋다고 믿고 있다. 왜냐면 얼굴피부를 땡길 때 턱뼈가 뚜렷하게 나왔으면 그곳을 근거로 해서 살을 더 땡길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넣는 것을 권장한다.

반면 턱뼈가 옆으로 많이 나온 경우 각진 얼굴이 되므로 이상적 여성의 얼굴인 달걀형과는 정반대기 때문에 옆턱을 깎는 수술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 수술은 회복이 오래 걸리고 부작용이 비교적 많으며 비용도 많이 드는 수술이다.

최근 Botox가 나와 이런 턱뼈수술 대신 Botox를 주사해 씹는 근육(저작근)을 약화시킴으로써 사각턱이 좀더 부드럽게 보이게 할 수 있는데 약 효과는 3-6개월 지속되고 대개 6개월 정도에 한번씩 맞고 또 여러번 맞으면 근육이 약해져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광대뼈 자체가 워낙 큰 사람들은 Botox주사가 도움이 안되었지만 약간 사각이고 특히 젊은 사람인 경우 Botox주사로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턱수술 (Chin Augmentation)

동서양인이 모두 많이 한다. 서양인의 경우 코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양인의 작은 코를 부러워 한다.

코가 크고 턱이 작으면 코가 더욱 커보이기 때문에 턱을 크게 하면 상대적으로 코가 적어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턱을 크게 하는 수술을 코를 줄이는 수술과 함께 하면 코수술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 많이 한다.

반면 동양인 중에는 턱이 작고 또 입주위가 앞으로 나오면서 얼굴의 균형이 잡히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턱을 높여줌으로써 얼굴의 균형이 맞을 뿐 아니라 입주위 부분이 덜 돌출해 보이게 하는 이중 효과를 얻을 수 있다.

▶Premaxillary reduction

흔히 요구하는 수술중 하나는 입주위를 평평하게 하는 수술이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입주위 부분이 앞으로 나온 경우가 있는데 이는 뼈드렁니 때문이거나 아니면 입 근처 뼈 자체가 앞으로 나온 때문이다.

이 경우 근본적으로 앞쪽에 있는 뼈와 치아를 함께 절제해서 뒤로 밀어 준 다음 다시 묶어주면 뼈가 새로운 자리에 유착돼 특 튀어나온 입을 평평하게 해주는 결과를 보게 된다.

▶안면거상수술(Facelift)

많은 분들이 facelift에 관심이 있는데 이 수술은 동서양인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서양인은 일반적으로 노화현상이 일찍 나타난다. 그들은 피부가 얇고 또 피하지방이 적어(비단시 축적되는 심층의 지방이 아니라 피부층 자체에 아주 얇은 피부와 같이 움직이는 피하 지방층) 젊을 때는 피부가 섬세하고 고와보이나 노화가 빨리 오고 또한 멜라닌 색소 부족으로 자외선에 대한 피부

보호기능이 약해 피부가 거칠고 주름이 깊어지며 빨리 늙어지고 빨리 주글주글해진다. 이들에게 facelift를 하면 살이 얇고 늘어지는 부분이 땡기 때문에 수술결과가 눈에 띄게 좋다. 반면 동양인은 피부가 두껍고 피하지방이 많아 백인에 비해 노화가 매우 늦다.

동양인은 대부분 수술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효과가 백인처럼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안면거상수술의 최대효과는 피부가 얇고 피하 내지 심층지방이 적으며 살이 밀어서 처진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이다.

반면 얼굴의 피부에 생긴 잔주름은 안면거상수술보다는 미용크림, 박피술 (Chemical Peel), 또는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훨씬 효과가 크다.

안면거상수술의 부작용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안면신경마비며 그다음 수술로 인한 피부괴사 및 반흔 형성이다.

두 가지 부작용 모두 부적절 또는 과도한 수술에 의한 것으로 다행인 것은 동양인의 경우 피부가 두꺼운 관계로 피부괴사에 의한 흉칙한 상처가 생기는 위험은 다소 적다는 것이다.

두꺼운 피부에는 혈관 그리고 이에 따른 혈액순환이 왕성해서 피부를 당길 때 발생하는 혈액차단위험이 비교적 적기 때문이다. 과도한 피부당김에 의한 피부괴사와는 달리 수술 절개부위의 자연적인 치유는 백인의 피부가 보다 유리하다.

한민족의 우수성과 단일성



김기태(문리 59졸)

우리 한민족은 요동 만주의 크나큰 벌판을 버리고 영토를 현재의 영토로 위축시켜 살면서 많은 외적들의 침입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큰 영토의 포기는 동시에 그 많은 인구도 포기했음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의 인해(人海)를 대적할 우리의 인해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방어가 불가능한 인해, 성벽같이 큰 츠나미 인해가 쳐들어오니 싸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역경이었을 것이다.

이런 처지에서 싸워 이겨낸 분들이 우리 조상이고 조부모이고 부모님이시다.

숨진 전우와 부모 처자형제를 위해 피눈물의 통곡으로 애도하며, 또 한편 살아남은 전우들과 부동켜 안고 승리의 환호를 포효했을 것이다(혹은 참패로 쓰러져 기동도 못했을 것).

이렇게 한반도에 간헐 역경을 견딜 때마다 한쪽은 Melting Pot에서 별절게 녹은 용암이 되어 동질화·단일화 되곤 했을 것이다.

미국에서 애용하는 멜팅팟은 다름 아닌 용광로다. 물론 한민족은 순수한 단일민족은 아니다. 적지않게 다른 피가 섞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없이 멜팅팟에서 용암이 되고 동결화된 단일민족이다. 그러니 우리 조상께서 주장하신 한민족의 단일성을 우리는 꽤히 받아들이 수 있다.

우리 조상이 겪은 '고난의 역사' -함석헌씨의 '뜻에서 본 한국역사' 에서 사용된 어귀는 우리 한민족을 우수하고 강건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했다. 우리조상은 고난의 역사를 통해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 by Herbert Spencer &/or Natural Selec-

tion by Charles Darwin)의 이치를 몸소 체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은 조상이 거둬드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 개량된 최우수종임을 인지 하시라!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물론 조상의 덕이다. 예쁘고 씩씩한 젊은이들이여, 열심히 일하고 사랑해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큰 재산이다. 즉 다산은 우리 한민족의 영역(영토)확장의 길이며, 다급다부름 이룩하는데 필연적 요건이 된다. 이것이 곧 바로 Pax-Koreana로 가는 길이다.

우리 한민족은 한반도에 갇혀서만 살 것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면서 이겨나가야 한다. 우리는 선조로부터 적자생존의 도리와 불굴의 의지(Endurance)를 물려 받았다. 우리 한민족은 선의의 경쟁에서 꼭 이기도록 훈련돼 왔다.

이와 동시에 동족끼리 혈통고 싸우는 폐습도 생겼다.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힘은 Sports를 통해서라고 사료된다. Olympic의 시조 Greece도 경기를 통해 민족단합의 목적이 그 이면에 있었다 한다. 2002 FIFA World Cup때 우리 붉은 악마가 얼마나 열심히 단합하여 응원했는가! 이는 전 세계가 지켜 왔으며 찬사의 손벽을 쳤다. 이는 2006년과 2010 FIFA에서도 계속됐고, 한국식 붉은악마가 전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Fashion을 이루고 있었다. David vs Goliath의 David는 그 큰 덩치를 제압하는 신력을 갖고 있었듯이 우리 모두 개개인이 그 신력(Spiritual Power)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있다가 적시적소에 발휘해야 할 것이다. 조상께서 주신 귀중한 이 신력에 우리는 언제나 경의를 표할 것이다.

<필자소개>1959년 모교 지질학과 졸업. 1962년 모교 문리대 대학원에서 석사(지질학) 학위. 1970년 Canada Ontario Hamilton의 McMaster 대학에서 박사 학위(지질학) 취득.

1965-1967년 경북대 조교수. 1970-1972년 Post-Doctoral Research Scholar, Institute of Geophysics & Planetary Physics, UCLA

동양인은 백인에 비해 콜라겐 형성이 훨씬 왕성해 절개한 상처가 보다 두껍고 붉은 색깔로 변하는 단점이 있다. 소수 환자에서는 소위 Keloid 라고 하는 아주 흉한 상처를 남기고 치유 또한 거의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수 있어 수술 전 조심스럽게 과거 상처치유 경력을 조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서양인 중에는 많은 사람이 동양인의 용모, 미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미에 대한 기준은 다양한 것으로 어떠한 편견을 갖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미에 대한 궁극적인 추구는 다음 말에 잘 요약돼 있지 않을까.

"Beauty is in the eyes of beholder"

동문 시 감상



고독

정희자(미대 50)

고독은 밀려온다
성난 파도화같이
힘차게 들이닥쳐
거품 토하고 스러져간다

고독은 스며든다
물래 물래
안개낀 숲 속을 헤매는

나그네같이

꿈 속인지 깨어 있는지
그저 걷기만 하다
끝도 없이 희망도 없이
안개에 둘러싸여서

조물주의 재미로 빚은
이 땅의 생명체인가
다시 불러줄 날까지
고독 속을 헤매인다

동문광장

칼럼 · 일지

'직지' 이야기



임종열(미대 61)
미주 전통 한국문화연구원장

현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존돼 있는 세계 단 하나 밖에 없는 '직지'의 책 이야기입니다.

'직지'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白雲和常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인데 이 책을 '직지심경'이라고도 부르고 '직지심체요절', 혹은 줄여서 '직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책이 불교경전에 관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직지심경'이라 부르는 것은 잘못입니다.

'직지'는 지난 1967년 프랑스 국립도서관 고서적 창고에서 당시 소르본느 대학에 유학중이던 동문 박병선 박사에 의해 처음 발견돼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선정 발표됨으로써 일약 세계적인 관심과 각광을 받게 된 귀중한 책입니다.

'직지'는 1377년 7월 고려 우왕 3년 충북 청주에 있던 홍덕사(지금의 주춧돌만 남아 있음)에서 최초로 금속활자로 인쇄된 서적입니다.

당시 홍덕사 '백운'이라는 스님이 부처님과 부처의 제자인 인도와 중국 및 한국의 역대 고승이 남긴 말씀(經)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요약한 책입니다.

이 책이 발견됨으로써 세계 출판계 뿐 아니라 문화계 전체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 직접적 이유는 그 때까지 온 세계가 알고 있었던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인은 독일의 구텐베르크였는데 '직지'의 발간 연대가 구텐베르크의 최초 인쇄본보다 78년이나 앞섰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백운화상에 의해 저술된 이 책은 그의 제자인 석찬과 달장, 그리고 재정적 지원자인 비구니 요덕 등에 의해 두 가지 형태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1377년 금속활자로 찍은 책이고 또 하나는 그 이듬해 1378년 백운화상이 입적한 경기도 여주 위암사에서 목판으로 찍은 책입니다.

이 목판본 '직지'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서각)에 상·하권이 보존돼 있으며 1997년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에서 출토된 것과 합쳐 총 3종의 목판본이 국내에 현존합니다.

이에 반해 금속 활자본 '직지'는 하권 1권만이 프랑스 국립 도서관 동양 원서부에 보존돼 있습니다.

금속 활자본 '직지'는 19세기 말 초대 대한제국 프랑스 공사로 부임한 폴랭드 플랑시가 수집해 프랑스로 반출했는데 그 후 1911년 드루오 경매장에서 폴랭드 플랑시 소장 경매 때 앙리 베베르라는 사람이 구입해 보존하고 있다가 1953년 앙리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금속 활자본 '직지'에 대한 기록은 폴랭드 플랑시와 조선에서 함께 근무한 보리스 푸랑이 1901년 지은 '조선서지'에 기록돼 있습니다. 이 책은 불어판으로 출간됐지만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직지'가 처음 소개됐을 때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 사용했다는 사실을 서구의 학자들은 선뜻 인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백인 우월주의와 서양의 문물이 동양을 앞지른다는 고정관념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 사용했음을 확실하게 고증하고 유럽 내 동양학 학자들의 모임인 '동양학 학회'에서 이 사실을 발표해 공식 인정을 받아낸 분이 동문 박병선 박사입니다.

박병선 박사는 1926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그의 부모는 당시 독립군에게 자금을 비밀리에 조달한 애국지사였습니다.

6.25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모교 사범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해방 후 첫 프랑스 유학생으로 소르본느대에서 수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유학길에 오를 때 그의 스승이었던 이병도 교수께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관의 행방을 찾아보게!"

이 부탁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박병선 박사는 그곳에서 역사를 전공하면서 학문에 열정을 기울였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자 파리 국립도서관을 자주 출입하면서 마침내 특별 연구원으로 채용돼 동양, 특히 한국 책의 선별과 해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외규장각 도서관의 행방을 찾아 노력하던 중 1967년 우연하게도 '직지'를 발견하게 됐고, 1978년 드디어 외규장각도서관의 행방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직지'는 놀랍게도 그 마지막 장에 1377년 청주 홍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직지'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임을 온 세계에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2001년에는 그 가치를 인정해 세계 기록유산으로 정식 선정 등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사용되던 모든 관련 서적들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특히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백과사전들의 제 인쇄를 단행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최근 새로 발간된 브리태니카(Britanica) 백과사전의 인쇄(Printing)와 금속활자(Metallic Type)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쇄물(목판)은 서기 750년 코리아에서 인쇄된 불교 경전이다. 활자 주조 공장은 14세기 후반 코리아에서 최초로 설립됐으며 그곳에서 수 없이 많은 동판으로 된 동일형 활자 세트(fonts)가 주조됐다. 코리아에서는 중국과 달리 13세기 전반에 이미 인쇄술이 시작됐으며 1403년 태종의 명령으로 동판 활자 10만개를 주조함으로써 인쇄술이 대대적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한 일본 '만유백과 대사전'에

는 다음과 같이 기재돼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인쇄물(목판)이 일본에 남아 있다고 여겨왔지만 1966년 조선 경주 불국사에서 '다라니'의 인쇄물이 발견됐는데 그것은 8세기 전반의 것으로 이는 일본의 것 보다 훨씬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체는 고려시대(1377년) 것이다.'

'직지'가 갖는 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봅니다. 인류는 의사 전달을 위해 네 번에 걸친 정보 혁명을 거쳐 발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몸짓이나 소리에 약속된 의미를 부여해 의사를 전달한 것을 말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각종 부호나 문자를 사용해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금속 활자를 발명해 책을 간행한 일이며, 네 번째로 컴퓨터의 발명을 들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혁명이 금속활자의 발명을 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활자를 이용해 책을 간행해 보급함으로써 정보의 대량전달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보화의 가장 핵심인 금속활자의 발명이 '직지'의 발견을 통해 13세기 초에 한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따라서 '직지'는 세계 어느 민족도 이루지 못한 금속활자를 우리 민족이 발명한 슬기로운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물로 존제하고 있습니다.

'직지'는 인류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소산인 동시에 오늘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화 시대를 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 우리조상들이 남긴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찬란한 빛을 발하는 '직지'야말로 인류 역사상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한 보배로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이 영원히 공유할 귀한 문화유산입니다.

<후기> 1239년 목판으로 간행된 '남명천화상충도가(南明泉和尚頌道歌)'라고 하는 고서가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서적은 원래 금속활자본이었는데 목판으로 다시 새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1239년('직지'보다 138년 앞섬) 이전에 이미 금속활자 인쇄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규보가 1234년에서 1241년 사이에 저술한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의하면 '상정예문(詳定禮文)28부를 금속활자로 인쇄해 각 관서에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타깝게도 기록으로만 전할 뿐 실물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계인의 공인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직지'는 실물이 전해졌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공인을 받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직지'의 경제 가치는 1조원에 이른다고 하며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해 2004년 4월 '직지상'을 제정한 뒤 2005년부터 격년제로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공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Mainz에 있는 세계 인쇄박물관(Welt Drunkust Museum)에는 한국 인쇄술이 구텐베르크보다 100년 앞섰다고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10월 어느날의 일지(日誌)

정원훈(상대 38)

그렇다.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부터가 그렇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선 우선 먼저 세수를 해야겠다. 한데, 수도꼭지를 틀 염이 나지 않는다. 삶의 끝이 그런 모양이다. 한파다. 한심하다.

그래도 가까스로 오트밀로 조반을 끝냈다. 그랬더니 찾아온 손님이다. 졸음이다.

"또 왔구나.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그러나 졸음이란 놈은 힘이 있다. 이겨낼 수가 없다. 의사가 하던 말이 기억난다.

"졸릴 때는 자는 거지요. 그게 오지 않아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래, 양보하지!" 하고 어깨와 목, 팔다리에서 힘을 뺐다. 어느새 나는 의식을 잃고 잠에 빠졌다. 얼마 있다 깨나서야 잠의 포로가 됐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40분 정도 망상에 빠졌을 것이다.

"정신을 차려야지" 하고 옷을 벗어 입는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선다.

저만치서 젊은 여인이 온다. 장신에, 명랑해보인다.

"How are you, today?"

내가 먼저 인사를 던진다. 그러면서 나는 속으로 엉뚱한 시나리오를 펼쳐본다.

가냘픈 여자다. 그러나 이 양반이 나에게 주먹으로 한방 치고든다면 어떨까. 나는 여지없이 나가떨어질 것이다. 걸보기에는 보통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할 90대의 노쇠한 허수아비, 밖에서 오는 힘이 대수롭지 않아도 꼼짝할 수 없을 것이다.

"It's a beautiful day. Please have a nice one!" 여인으로부터 명랑한 대답이 온다. "Same to you!"

"Thank you!" 하고 그녀의 인사가 답했다.

이런 사람 풀이 LA의 Wilshire 도로를 활보한다. "더 살려면 걸어라!" 라던 의사의 말을 따랐을 뿐이다. 결론에는 한가한 양반의 그럴만한 산책이다. 본인에게는 그러니 힘겨운 행보다. 500보 정도는 그런대로 걸었다.

'오늘도 걷는다'라는 정치 없는 이 발걸음... 콧노래를 불러보며 쉽게 넘어갔으면, 하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1천보에 가까와오니 힘에 겹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것이 힘이 더 든다. 몸이 균형을 잃으면서 앞으로 쓰러지려고 한다. 애써 발을 옮기면서 겨우 콘도 현관 앞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더 이상 갈 수가 없다. 순간 나는 전에 있었던 전도(顛倒)의 예를 들어본다. 몇 번이던가. 길가에서 넘어졌다. 그러면서도 별반 상처는 입지 않았다. 오늘도 그렇겠지...

그러면서 나는 콘도 현관 앞에서 쉬어지고 말았다. 넘어져 큰 대(大)자로 사자를 펴보니

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세상이 다 무너진들 무슨 걱정이냐. 유아독존(唯我獨尊)의 경지가 따로 있어 보이지 않는다. 몸을 움직일 부담도 없고 무력무아(無力無我), 허공에 뽕 뜬 느낌이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바라다본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읽을 수 있다.

"한심하다!"

실은 나도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몸이 붕 뜨건, 한심한 생각에 빠지건 배는 비울 수 없다. 어제 먹다 남아 갖고 온 햄버거를 데워 먹는다. 거기에 코카콜라를 곁한다. 햄버거와 콜라의 상반된 맛은 무덤덤한 진미(眞味)가 있다.

진미라고? 그런 말을 입 밖에 비치다간 오히려 편찬을 당할 수도 있다. 햄버거에 대한 거부감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공통의식일 것 같다. 그들 앞에서는 나는 함구무언(噤口無言)이다. 애써 남의 반격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어간 나는 먹다 남은 햄버거와 콜라를 천천히 들이키면서 제정신을 되찾았다. 건전한 몸에 바른 정신, 입맛에 맞는 음식을 취하는 동안 기력을 도로 찾은 것이다. 그 때까지 한심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심경이 마치 꿈만 같다. 그렇다. 한심한 생각은 신기루였다.

뭔가 하자. 배란대로 나갔다. 나의 아틀리에다. 먼저 그러두었던 Malib 해안의 풍경 밀그림이다. Pepperdine대학의 캠퍼스 일대다. 잡초와 돌 언덕을 다듬어 일궈낸 예쁜 대학부지다. 잔디 언덕 뒤에 몇 개의 캠퍼스가 들어섰고 그 높은 대지에 학교 사택 같은 집들이 들어섰다.

팔레의 제안이 있으면 이곳에 나와 토요일이나 일요일의 한나절을 지내곤 한다. 그 때 그런 밀그림이 두서넛이라 그 중 하나에 가칠하는 것이다. 낮은 풍경, 그러나 그것을 메꾸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손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나는 어느새 붓놀림에 푹 빠졌다. 튜브에서 물감을 짜내고 기를 써는 것이다. 어떤 때는 붓으로 물감을 바른다. 때로는 페인팅 나이프로 물감을 두텁게 캔버스에 문지른다. 붓이나 나이프의 놀림은 그저 대범할 뿐이다. 그런 조잡한 작업이 겹쳐가고 있는 동안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자신없는 결과를 노리면서 바르고 깎고,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인상파의 대가들, 피카소 등도 이런 확실치 않은 효과를 기대했었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겐 허황스런 바람이었다. 두번, 세번 작품 풀을 들여다보면 나는 실망의 늪에 빠졌다. 같이 있었다면 나는 내 그림에 난도질을 했을 것이다. 더 애써봤자 무슨 소용, 나는 그림작업을 단념했다. 어처구니 없다. 한심하다. 이렇게 또 하루가 갔다. <2010년 10월 어느 날>

세계명화 감상<10>

이조시대의 미술과 명작들



단원 김홍도의 '군선도' 1776, 133 x 576cm, 호암 미술관

이조시대 미술은 한국화의 형성과정

소박하고 평화로운 자연주의에 고품격 예술창조

임이섭(미대 54)

군선도

이조시대 또는 조선시대의 미술은 한국화의 형성과정이며 개화기라 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서양미술의 눈부신 전성기라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명과 청나라 등 중국미술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확실하게 한국미술을 형성해 나갔다.

한국인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자연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평민적이고 격조높은 예술을 창조해 나갔다. 당시 미술이 소위 양반의 풍류이기는 했어도 한민족 평민의 수려한 기백을 훌륭하게 표현한 많은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이조시대의 많은 명작 가운데 필자가 몇 작품을 선정해 소개한다.

김홍도는 정선 신윤복과 함께 이조시대 3대 미술가의 한사람으로 영조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궁중 초상화와 산수화 등 여러 장르의 걸작을 남겼다. 특히 단원의 풍속화는 한국 풍속화의 시작이면서 그 절정을 이뤘다.

그는 궁중 화가였지만 서민들의 생활상을 다채롭게, 더러는 즐겁게 또는 풍자적으로 묘사해 이조시대 한국인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낸 한국적인 화가다.

그의 작품 '군선도'는 그가 30대에 그린 병풍대작의 일부인데 여덟명의 서랑이 서왕모의 생신잔치에 가는 행렬을 그린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진하는 선량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개개인의

표정과 몸매를 변화시켜 그의 능숙하고 대담한 필치를 비상하게 구사했다. 인물들의 의상 처리와 탄력있는 선묘법은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어초문답도

17세기 후반의 궁중 화가로 활약한 이명옥은 숙종이 그의 개인도장을 만들어 줄 정도로 임금의 총애를 받았다.

'어초 문답도'는 이명옥의 유일한 작품으로 남아 있는 이 그림은 가난하지만 욕심없는 한국인의 정겨운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낸 명작이다.

갈대가 무성한 강 언덕 위를 걸어가며 어부와 나뭇꾼이 나눈 대화의 분위기를 경쾌하고 신선하게 표현했다.

한국인의 소박하고 다정한 인



이명옥의 '어초문답도' 17세기, 173cm x 94cm, 간송 미술관

간관계를 벗지게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을 중심으로 무성한 갈대의 구성도 완벽하고, 어부의 낚시대와 나뭇꾼의 갈퀴가 대각선으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마음과 뜻이 통하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림이다.

정선 비 온 뒤의 인왕산

겸재 정선은 임진왜란 이후 삼천리 강산을 누비며 한국 산수의 진경을 그의 창의성과 뛰어난 화풍으로 글자 그대로 금수강산을 표현한 한국 산수화의 첫걸음은 거장이었다.

한국의 문예부흥시기라고 할 시기에 당시 중국의 남송 화풍이나 북송 화풍을 망라해 한국적인 회화의 새로운 이해와 활로를 개척해 이조 500년 회화사에 큰 업적을 남긴 대가다.

인왕산도는 그의 대표작으로 짙은 먹색으로 대담하게 표현한 인왕산맥과 비 온 뒤 안개와 구름이 걷힌 맑고 신선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구도는 강한 리듬이 흐르면서 빈틈없는 구성이다. 정선은 많은 유작들을 남겼는데 모두가 국보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달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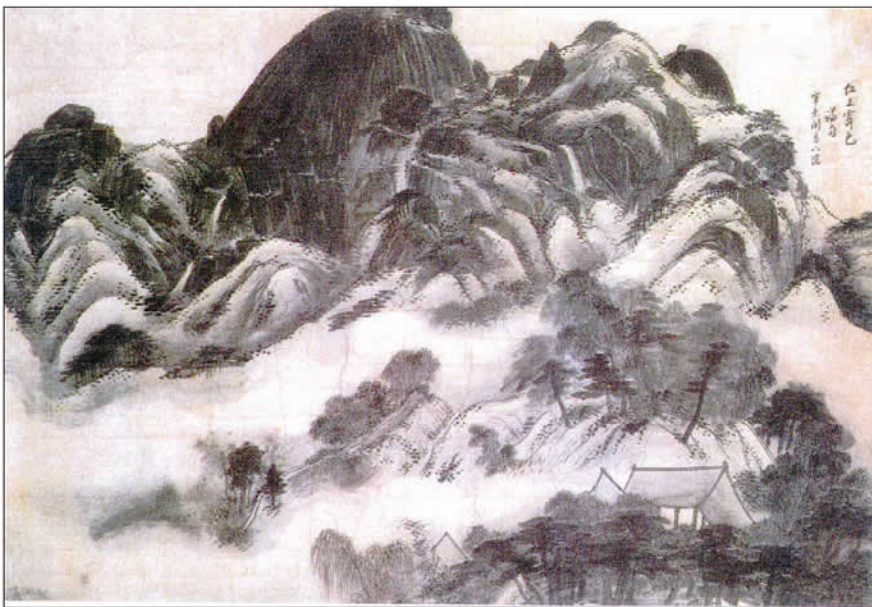
17세기 조선 중기의 화가 김명국은 도화서 회원과 사학 교수로 지내면서 1636년경 불도인으로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 그림을 그렸다.

호방하고 해학에 능숙했던 김명국은 술에 취하면 그림을 잘 그리는 버릇이 있었다고 한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창적인 화법을 구사했는데 대담하고 간결한 그의 필치는 그 속도를 느낄만치 자유롭고 자신 있게 움직인 액션 페인팅이다.

불교도의 기상을 담은 가운데 일본화의 인상도 풍기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중국에서 불교화를 통달하고 이 기법을 일본에 전달한 화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그림은 근대에 와서 일본에서 구입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한다.

정선 비 온 뒤의 인왕산 1751, 79 x 138cm, 호암 미술관



김명국 달마도 1637, 102cm x 55cm, 한국 중앙박물관



지역 소식

남가주



남가주 동창회

음대 연주회 500여 청중 선율에 매혹

지난 12월 3일 LA다운타운 콜먼 스쿨 지퍼홀에서 열린 남가주 동창회 음대 정기연주회에는 수준급의 동문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무대를 한껏 빛냈다. 지퍼홀 공연장의 좌석을 꽉 채운 500여 명의 청중들은 혼신을 다해 절경의 실력을 뽐낸 공연자들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특히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남성 중창단 '라 보체'의 넘치는 카리스마에 잇따라 앵콜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는 동문들이 많이 참석한 관계로 공연이 끝난 뒤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즐거운 애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흥선례 음대 동창회 회장은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아낌없

는 지원을 해준 많은 동문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이같은 높은 관심 때문에 동문 음대 공연이 한인사회 최고의 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출연진들과 일부 팬들은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뒤풀이를 가지며 기나긴 여운을 나눴다.

음대 동창회는 12월 17일 JJ Grand Hotel에서 음대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가졌다.

<흥선례 음대 동창회장>

↑출연진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감사를 표하고 있다(윗 사진). UCLA한국음악 앙상블과 김동석 교수의 가야금 합주(오른쪽 윗 사진). 남성 중창단 '라 보체'의 큰 울림(아랫사진).



관악연대 해결잔치 100여 가족 친목 나눠

사랑..낭만..우정..겨울밤이 짧았다

참으로 겨울 밤이 짧았다. 수많은 애기들을 나눴고 정을 보냈다. 웃음꽃이 만발했고, 선후배가 하나 돼 어느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악연대만의 독특한 정겨움을 만끽했다. 지난 12월 4일 LA 북부 칼라바사스에 위치한 서치원님의 자택에서 열린 이번 해결잔치는 거리가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렌지카운티 동문들도 많이 참석했고, 관악연대의 독특

한 친교 문화에 매료된 여러 게스트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을 끝으로 1년 임기를 마친 이경희 전임 연대장은 "1년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갔다. 연대장하면서 비즈니스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을 얻었다. 올해 1년은 관악연대장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단독 후보로 출마해 압도적인 지지로 새 연대장에 선출된 이

상대 회장(조경 80)은 "관악연대와 총동창회의 융합의 해로 만들어가겠다. 새 후배들을 위한 보금자리 역할을 하면서 총동창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2가지의 목표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은종 동창회장은 "관악연대의 활기차고 화기에애한 모습을 보면서 동창회의 미래를 낙관한다. 앞으로 동창회 부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소음악회에는 전날 음대 공연에도 불구하고 주일엽(바이올린)·김소현(피아노)·김일두



↑퇴임하는 이경희 연대장과 지난 1년 같이 일한 집행부가 함께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신임 연대장에 선출된 이상대 동문(왼쪽). 이원영 동문이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강조.

(테너)·곽현주(소프라노)·이혜경 동문이 주옥같은 음악울 선사해 감동을 받았다.

이어 열린 '제2회 아크로 어워드'에서는 모두 12명이 동문 커뮤니티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상장과 상품을 받았다.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영혼고양상=곽건용(좋은 영성관련 글) ▶넷글문학상=홍선례(정성스런 댓글) ▶미술문학상=박준창(놀라운 미술실력 과시) ▶건축에세이상=한선정(딱딱한 건축 제밧게 풀어) ▶포토예술상=고정범(좋은 사진으로 아크로 지면 기여) ▶미각중진상=이석우(전문적 와인 칼

럼으로 지면 빛냄) ▶4차원 논문상=양민(잡자리와 모기의 사랑법 비교) ▶우정상=이경희(연대장으로 주목할 성과) ▶인기상=안소영(새내기로 맛깔스런 글로 관심) ▶브리지상=김인종(아크로를 통해 동창회와 모교 가교역할) ▶정서함양상=켈리 박(추억의 멜로디와 내레이션으로 새 음악장르 개척) ▶봉불광상=김지영(아크로 창간부더 지치지 않는 필력, 아크로 발전에 기여) ▶엔돌핀상=서치원(아크로인들에게 엔돌핀을 듣게 해준 공로)

<Acropolistimes.com 이원영>

지역 소식

뉴욕



뉴욕 동창회

약대 동문 그룹여행과 사진전 출품

중동 3개국 여행

뉴욕 약대 동문회 회원들은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6일까지 15박 16일 일정으로 이집트·요르단·이스라엘 등 3개국 관광을 했다.

부부 동반으로 모두 37명이 참가한 이번 여행은 약대 뉴욕 동문회가 2년마다 시행해온 그룹 여행의 다섯번째 행사였다. 지난 8년간 중부유럽·동구·북구·스페인 및 포르투갈 등을 격년으로 여행했다. 보통 여행 때보다 긴 일정이어

↑첫 사진은 뉴욕의 약대 동문회 원 부부들이 이집트의 피라미트 앞에서 촬영한 것이며 ↑아래 사진은 아부심벨 신전 앞에 선 장면이다.

서 12명은 8박9일로 이집트만 여행했고, 나머지 25명은 홍해를 건너 성지순례를 했다.

손갑수 동문 출품

뉴욕 약대 동문회의 손갑수 동

문(1963년 졸업)이 뉴욕의 사진 클럽인 '사진 동네 사람들 (People of the Photo)'에서 개최하는 제1회 사진전에 참가해 작품을 출품했다.

POT Photo로 알려진 이 사진 동호회의 본 사진전은 지난 11월16일부터 22일까지 헤이코리안 갤러리(286 Fifth Avenue, New York, New York: 30th - 31st Street, Manhattan)에서 열렸다.

평소 사진 촬영에 취미를 가진 손 동문은 여러 해 동안 국내는

플론 외국을 여행할 때마다 여행지의 풍물과 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 오고 있다.

본 사진 클럽 회원이 된 이후 더욱 뛰어난 솜씨로 주로 자연물에 대해 피사체로 본격적인 사진활동을 해 오는 손 동문은 촬영을 위해 거의 주말에 산·강·호수 등지를 찾는다.

첫 사진은 이번에 출품한 네 작품 가운데 하나인 '시나이산 중턱의 산장에서 본 일출 풍경'이다.

<김창수·동창회보 논설위원>

워싱턴 동창회

공순옥 회장 동문위한 와인강좌 열어

워싱턴 동창회(회장 공순옥, 간호대 66)가 지난 11월14일 동문들을 위한 포도주 강좌를 개최했다.

포도주 강좌의 목적은 술을 못하는 분들에게는 사교에서 쓸 수 있는 포도주에 대한 에티켓을 배우고, 폭음하는 분들에게는 폭음보다는 포도주의 의미와 매력으로 포도주를 제대로 감상하는 기회가 되도록 마련했다.

또한 술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포도주와 음식의 신비한 결합으로 좀 더 식생활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강좌에서는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열심히 포도주의 Structure·Balance·Taste등에 대해서 강의들을 들었

고 실제로 6명의 포도주를 감정했다.

포도주는 White wine·Red wine 그리고 Desert wine으로 구분해 일상생활에 자주 쓸 수 있는 평범한 Wine이면서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선택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포도주는 술로써 마시는 분위기 보다는 사교의 하나로, 그리고 음식의 맛을 돕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많은 호감을 주었다.

이날 강좌는 공순옥(Sue Song) 회장이 직접 나서서 실시했는데, 공 회장은 미국에서 포도주 감정사 자격증도 가진 메다가 Wine making을 하나의 Hobby로 하는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에 한국에서 온 한 동문은



공순옥 회장(오른쪽)이 직접 와인강좌에 나서서 동문들에게 와인의 모든 것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공순옥 회장을 한국에서 강의하도록 추천하겠다”며 Feedback도 받았다. 공 회장은 “많은 동문들이

건강에 신경은 쓰고 있으면서도 폭음을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아쉬워 했다. 공 회장은 이어 “동문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순옥 동창회장>

지역 소식

시카고·미주 총동창회 주최 지중해 크루즈



시카고 동창회

Oakbrook Terrace서 연말 총회

지난 11월 28일 Drury Lane Oakbrook Terrace Crystal Ball Room에서 연말 총회를 가졌다. 이철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제1부 만찬과 총회에 이어 제2부 연말 파티의 여흥 순으로 마련됐다. 이영우 회장은 이임사를 겸한 인사말에서 “지난 28년간 역대 회장님들 노고로 동창회가 단단한 기초 위에 서게 됐다”며 “또한 지난 1년간 동창회를 위해 헌신해주신 임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송순영 미주 총동창회장은 “

지난 6월 시카고 평의원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지중해 크루즈와 LA에서 가진 Brain Network 구성을 위한 Workshop을 대성황리에 끝낸 것은 임원 여러분들의 힘이였다”고 관계 동문들을 치하했다. 연말 총회는 사업보고, 재무보고, 감사보고, Golden Club 활동보고, 세종문화회 보고, 장학기금 현황및 장학금 수여, 감사패 증정, 차차기 회장인준 및 인사, 차기 회장 인사, 차기 회장단 및 임원소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윤효정 총무는 사업보고에서 지난 5월 자녀교육 세미나와 6월 평의원 회의, 7월 하계 야유회, 뉴스레터 발간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동균 동문과 전현일 동문의 재무와 감사보고에 이어 박영규 회장의 Golden Club보고가 이어졌다.

또 김호범 동문의 세종문화회 활동 보고에 이어 장학금 관리위원장 황치용 동문이 장학기금 보고를 한 뒤 이영우 회장에 의해 장학금 수여가 있었다.

장학금은 총 8명에게 각 1천 달러씩 지급했다(오른쪽 아래 사진). 장학금 수혜자는 ▶여승진(Northeastern Ill. Univ.) ▶김진주(Uni. of Chicago) ▶

강동걸(Univ. of Ill UC) ▶전민우(Northwestern Univ.) ▶허수진(III. Institute of Tech.) ▶노성숙(DePaul Univ.) ▶박상채(Harvard Univ.) ▶김인원 등이다.

동창회는 지금까지 매년 장학금을 기부해준 mb Financial 오국정 사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노영일 전임 회장에게도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어 김사직 차기회장에 의한 2011년도 임원진 소개가 있었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수석부회장=김영호 ▶부회장=최순분·왕진한 ▶총무=이재호 ▶재무=이동균(유임) ▶기획=김동희 ▶문화=이소정·김기봉

▶출판=김영호 ▶섭외=장윤일·지옥희 ▶사진=노재욱 ▶웹마스터=김호범 ▶장학=황치용 ▶감사=박창만·한재은

이날 예년과는 달리 여흥으로 마련된 2부 순서에서는 Helen Kim & Blue Star 김우경 악단을 초청해 가요와 함께 대규모 라인 댄스 파티가 어우러졌다.

특히 여성 동문들과 동문 부인들로 이뤄진 탈춤은 주변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흥이 무르익기 전 54년 이전 입학, 75세 이상의 11명 선배들을 무대 앞으로 초청해 이벤트를 함께 예우 쇼를 펼쳐 모든 동문들로부터 힘찬 박수를 받기도 했다.



←AD 79년 베스비오 화산의 대분화로 한순간에 폐허로 변한 도시 폼페이의 모습이다.

↓9박10일간의 크루즈에서 함께 했던 동문가족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모나코 관광뒤 배에 돌아온 동문들이 밴드에 맞춰 World Dance와 Line Dance로 타인종 관광객들까지 같이 즐기도록 분위기를 이끌었다

미주 총동창회 주최 지중해 크루즈

환상의 'Mediterranean Holiday'

동문 가족들을 위한 '지중해 크루즈'는 제10대 미주 총동창회(회장 송순영)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

64명의 동문 가족들로 구성된 크루즈 팀이 지난 10월8일부터 9박10일 동안 환상과 낭만의 지중해 일대를 돌아보았다.

마치 1960년대 영화 'Mediterranean Holiday'에서 그 신비한 자연경관과 유적들을 보고 마음 실레던 주인공들처럼...

이미 동창회보 11월호에 이승자 동문의 글로 게재된 바 있

는 '지중해 크루즈'와 관련하여 동행한 김문희 시인(아래 사진 왼쪽, 오른쪽은 안익태 선생 따님)의 글을 19면에 게재한다.



여행기

미주 동창회 주최 지중해 크루즈

남부유럽의 도시, 아름다운 손짓을 따라



김문희(시인)
(공대68 김병연 동문 부인)

서울대 미주 총동창회에서 기획한 지중해 크루즈 일정에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항에 내린 것은 10월9일 오전 10시였다. 우리가 만나야 할 Caffe Di Fiore에는 미국 전 지역에서 도착한 동문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패션 모델같은 엔터테이너 Julie Park이 커다란 모자를 쓰고 나타나 인원점검을 하면서 이번 여행에 참여한 동문가족이 총 65명이라 말했다.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인상을 가진 분, 송순영(경의과 52) 총동창회장장과 부군 안경진(외과)의 사)타타가 인정받은 보안관같은 모습으로 일일이 동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일행은 A팀과 B팀으로 나누어 버스에 분승하고 첫 기착지인 바르셀로나 시내 관광이 시작됐다.

전위예술의 도시, 바르셀로나

여행 전 뒤적거리 본 여행안내도서에는 바르셀로나가 '스페인 전위예술의 도시'라고까지 표현돼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천재 건축가 가우디가 미래의 전원도시를 꿈꾸면서 설계한 '구엘공원' 현지에서 나눠어진 각 조별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동문들끼리 친해지고 있었다.

차장으로 보이는 나무숲이나 한가로운 목장이 소박한 풍경으로 펼쳐져 있었다. 이렇게 지중해 여정의 첫 발은 화려하고 다이나믹한 중부 유럽과는 전혀 다르게 조용하고 안정된 인상으로 시작되었다.

지금도 계속 건축을 진행 중인 가우디의 걸작품 '성가족성당'과 '까사바트요' '까사밀라' 등의 섬세한 건축물에 탄성을 올렸다.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의 기념비가 있는 '몬주의 올림픽공원'에서 조정시(60 공대)동문 부부와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다.

호텔에서 아침에 내다보는 바르셀로나는 참으로 평화롭다는 생각을 물론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다. 안개가 흩어지고 있었다.

"봉조르노(Good Morning)!"

자전거를 타고 바람처럼 지나가는 주황 스웨터의 소년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아침 인사를 던지고는 은색 바퀴살을 반짝이며 달려간다.

"그라제(Thank you)!"

내가 서툰 삼식으로 답례를 던질 때 그 유쾌한 소년은 지면 코너를 돌아가고 있었다.

크루즈 터미널에서 승선 수속후 바라 본 선창에는 수백대의 자동차들이 승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객실 주변에는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인상적인 것은 승객들이 대부분 소탈하고, 활기있고, 즐겁게 여행을 더욱 즐기려고 하는 모습들이었다.

물길따라 지중해 유람선

초대형 유람선 주변으로 갈매기 떼가 날고 있었다. 검푸른 바다 위에 하얗게 흩어지는 꽃잎처럼 나는 갈매기는 이국의 정취를 실감나게 해주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는 잔잔했고 날씨는 맑았지만, 저녁이 되자 안개가 바다를 뒤덮었다. 안개비 속을 유람선은 계속으로 달려나갔다. 그러자 안개는 말끔히 걷히고 하늘에는 열아홉 정도의 하현달이 서쪽 하늘에 수은등처럼 비치고 있었다. 낮에는 검푸르기만 하던 바다가 비단 잠옷을 갈아입은 여인처럼 바다 표면을 하얗게 반짝이며 흔들거리고 있었다. 크루즈마다 음식은 풍년이라 했듯이 12층 뷔페에는 동 서양식 음식이 손색없이 제공됐는데 우리는 특별히 예약된 7층의 Grand Pacific Dining Room에서 귀족처럼 정장하고 식사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텍사스주 델러스 김현서(53 사대)동문과 필라델피아 심완섭(67 의대) 동문은 방사선과 의사인데 2년 전 5월 동문회에서 기획한 이집트 크루즈에도 부인과 함께 다녀온 단골 여행팀이기도 하다.

이날 저녁 와인은 Dr.심이 "부라보!"를 외치며 샀다. 부라보에 이어 내가 "당신멋져!"로 후창하니 모두들 팔팔대며 박장대소했다. "당당하고 멋있게 거주면서 살자"고 했더니 말이다.

열 테이블 뉴욕의 김용만(66 사대) 김경혜(69 사대) 동문부부는 캠퍼스의 선후배로 결혼했고 서용순(58 미대) 동문은 향학의 꿈을 버릴 줄 못해 74년 금속공예 석사학위를 따고 지금도 전공을 살리며 플로리다주에 거주하고 있다. 식사후 줄리박(Julie Park)이 극장에서 오프닝쇼가 있다가에 모두 리시아가 자랑하는 줄타기와 신기에 가까운 묘기에 감탄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모나코

모나코에는 풀잎에서 지난밤을 자고 갓 우유빛 안개가 햇빛에 반사돼 일제히 움깃움깃 하늘높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레이스 켈리가 결혼한 대성당에 지금은 그레이스 왕비의 묘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에서 2번째로 작은 나라인 모나코는 지중해의 항만 도시로 온난한 기후와 아름다운 풍경으로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었다. 니스는 해변가의 산책로 '프롬나드 데 장글레' 즉 '영국인의 산책로'로 여행자들을 때로시키는 도시다.

오하이오주 나수섭(50 의대) 오혜원(55 약대)동문 부부는 41년 미국생활에서 두 아들을 잘 키웠지만 한국말을 제대로 못가르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했다. 8남매중 맏이로 19년 연하 막내 동생 나두섭(66 의대)동문과 사

촌동생 나만섭(서울대 행정대학원)동문이 함께 여행하는 형제애를 보여주었고 나두섭 동문은 사진작가 수준의 솜씨로 단체사진과 그룹사진을 도맡았다. 그림엽서처럼 예쁘게 서있는 호텔 뒤로 멀리 보이는 바다는 섬세한 물빛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한구비 돌아설 때마다 또 다르게 펼쳐지던 빛깔 다른 물빛은 오묘한 피리소리로 달려있던 나의 오감(五感)을 하나하나 깨우는 듯 싶었다. 구름진 날씨에서도 모나코 왕궁은 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존심을 품은 채로, 그들은 거리 휴지통 하나에도 예술감각을 살려 놓았고 건물 모퉁이 조그만 창살에도 그들의 예술적인 감각이 숨쉬고 있었다.

갑자기 영화 '백조'가 생각났다. 그녀가 보여준 청순한 아름다움과 깊은 눈빛, 인상적인 연기는 미인을 더욱 빛나게 하는 하나의 예술이었다. 이면생활 40년째라는 장윤희(54 사대)동문은 25년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생활하다가 지금은 볼티모어에서 어려운 형편인의 대변인이 돼 통역도 하고 인생상담역으로 자원 봉사하고 있다.

모나코를 들고 배로 돌아오니 13층 꼭대기에서 환영 바베큐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Julie Park에서 보였던 월드컵 댄스와 차차차 Line Dance를 배운 동문들 10여명이 무대 앞에서 댄스에 맞춰 바다를 끼고 앉은 관객을 이끌며 주도하고 있었다. 박수와 주위의 환호를 받으며 열기는 뜨겁게 타올라 나중에는 백인·흑인·라티노까지 합세, 대규모 Line Dance 그룹이 형성됐다. 이 멋진 그룹 댄스도 서울대 동문이 앞서서 국위선양을 한 셈이었다.

나중에 들으니 총동창회 총무 이승자(60 사대)동문이 라인댄스를 먼저 배워 전체 동문에게 직접 연습을 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서울대 핏지가 세겨진 멋진 하얀 T셔츠를 선물해 참가한 동문들을 감격시켰다.

남부 유럽의 꽃, 피렌체

14세기 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피렌체는 남부유럽 특유의 쾌청한 날씨와 코발트빛 하늘 아래서 봄비는 관광객의 발길 속에서도 조용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아늑하게 앉아 있었다.

피테·안데르센·바이런 등이 매료됐던 르네상스의 성지라든가 미켈란젤로·마켈란젤로·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길이 도시 곳곳에 살아있는 숨결로 남아 있다든가 하는 상식적인 얘기는 피렌체에 내려서면 일시에 사라져버린다.

피렌체는 참 야단스럽지 않게, 그리고 깨끗하게 차려 입은 아름다운 중년의 여성같이 정이 배인 고도(古都)였다. 피사의 사탑은 널찍한 잔디밭을 앞에 두고 마치 상아 세공품처럼 건축된 성당, 세례당과 함께 건축 예술을 보여주고 있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이었다.

석양빛을 받으며 피사의 세 건물들이 황금색으로 찬란히 물드는 것을 보면서 가버린 시대의 덧없는 꿈을 보았다. 그 모든 것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꾸었던 꿈이 꺾일로 남아있는게 아닐까, 생각

했다.

옆에 있던 박원준(53 공대) 동문이 우리 부부에게 피사의 사탑을 뒤로 하고 포즈를 취하라고 제근한다. 그는 오하이오주의 Wright State University에서 통계학 교수로 32년 봉직하다가 2년 전 캘리포니아주 카마릴로에 사는 아들 옆으로 정착했다는 것. 항상 부인 손을 꼭잡고 다니는 전형적인 커플중의 하나다.

정경훈(64 치대)동문 역시 부인의 손을 놓지 않는 순애보적인 모습이었다. 80년 도미 후 1년만에 독학으로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대단한 인물이었다. 뉴욕의 장영식(59 법대)동문, 시카고의 정병욱(55 의대)동문, 볼티모어의 엄승용(57 농대)동문은 한가지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이번 여행에 참가한 동문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70세 이상이 50%, 60세 이상은 75%가 된다는 것이다

가톨릭의 본고장 바티칸 왕국

눈부시게 비치는 햇빛 속을 버스는 미끄러져 가며 로마 시내를 두루 돌아 바티칸으로 향했다. 인구 1천여명의 완전한 독립국, 바티칸은 로마에서 북서쪽 한 모퉁이에 자리하고 있었다.

가톨릭의 총 본산인 성 베드로 성당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가톨릭 신자를 통솔하는 교황청이 있는 것도 바로 이곳이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내가 샌키비치의 '웨바디스'에서 감명깊게 읽고 상상했던 대로 의연하게 서서 내리찍는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하얗게 펼쳐진 광장, 눈부신 태양 아래서 옥상의 140명이 나 뒀다는 성자의 석상들이 제각기 근엄하기도 하고 명상에 잠기기도 한 자세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나하나 성자의 조각이 엄원하며 떠나는 순례자들의 모습같았다. 가슴이 뛰고 죄스러운 마음이 났었다. 바로 이 광장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장소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조여왔던 것이다. 120년 동안 건축됐다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그 많은 세월동안 인간의 정성과 집념 그리고 신앙심의 결정체기도 했다. 성당이 완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터전 위에서 혼신을 바쳤던가. 그들이 가진 신앙의 힘과 완성케 해주신 그 절대적인 믿음을 존경하고 싶어졌다. 1506년 율리우스 II세때 건축가 브라만테의 설계로 기초공사가 시작됐지만 그가 사망 후 이 베드로 성당은 미켈란젤로로 이어져 공사가 진행됐다고 한다. 이제 이 거대한 건축물은 바로크 건축양식의 꽃이 됐다.

산타루치아와 꿈같은 폼페이

버스는 폼페이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기원 후 79년 베스비오 화산의 대 분화로 순식간에 재로 변한 폼페이의 거리를 둘러보았다. 도시 전체가 오랜 역사와 그동안의 풍상을 말해주는 회색빛으로 어둡게 다가오고 있었다.

녹슨 석파이프들이 건물마다 불쑥 불쑥 튀어나와 있었고 초라한 건물과 지저분한 낙서, 구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도시 자체가 슬픈 얼굴로 내 마음에 담겨오는 것이었다. 회색빛 건물을 돌아서 나폴리를 향했다.

예로부터 '나폴리를 보고 죽으라'는 유명한 속담이 전해올 만큼 세계적인 나폴리의 산타루치아 항구에서 내렸다.

"창공에 빛난 별 물 위에 어리어~ '산타루치아'를 흥얼거리면서 싱그러운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끼고 즐겼다.

"선배보다 일찍 은퇴해서 죄송합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차재철(62 의대)·남광순(64 음대)동문부부는 여행을 즐기면서 산다.

40년간 뉴욕에서 살며 지역 동창회를 결성한 김진승(철학 53) 동문, 금년 봄 부군 오기창(50 법대)동문을 천국에 보내고 크루즈에 참여한 조봉완(53 법대)동문은 미국에서 역사학을 다시 공부해 교수가 됐던 당당한 여성이기도 하다.

홀려간 옛노래 가사를 하나도 틀리지 않게 구성지게 불렀던 이 유찬(58 의대), 이화자(60 간호대)동문부부와 불의의 사고로 실명한 조태환(56 사대)동문의 불굴의 의지가 나를 감탄케 했다. 부인은 58년 사대 가정과 출신답게 뉴욕시의 식당위생 검사원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며 조동문의 눈이 돼주고 있다.

또한 LA 인근에 거주중인 박건(69 문리대)·최성신(69 간호대)커플과 오하이오 이상강(70 의대)·이경숙(70 가정대)커플은 부인들이 초·중·고·대학까지 동창인 Best Friend란다. 휴스턴의 김세진(69 공대)·백인분(69 미대)동문 역시 캠퍼스 커플이다. 김정옥(61 미대) 동문은 선배답게 주변 후배를 챙기는가 하면 조장 역할도 훌륭히 해냈다.

고 안익태 선생 생가를 찾아

지중해를 바라보며 우뚝 서있는 스페인 고딕양식의 '대성당'에 비쳐지는 건축가들의 정성이 오버랩 됐다. 섬세하고 세밀한 선 하나를 둘로 깎아 붙였으니 얼마나 철저한가 말이다. 팔마 데 마요르카 시내에 금속으로 제작된 안익태 선생의 기념탑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생가를 찾았다.

자그마한 아담한 집에서 안익태 선생의 셋째 딸이 뛰어나와 반겨 주었다.

그 때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이다. 송순영 총동창회장의 부군인 Dr. 안경진과 안익태 선생의 따님이 친척이라니. 그러니까 안익태 선생이 Dr.안의 오촌 당숙이 된다는 것이다. 거실에는 안익태 선생의 유품과 생전의 지휘하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지중해를 지나오면서 나를 뿌리채 혼돈 감동은 진정 있을 수 없는 추억으로 머물게 됐다. 무상한 생명의 윤회, 대양 아래서 시작각으로 변하는 바다의 빛깔, 꿈같은 폐허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도시의 얼굴, 그리고 그 추억의 거리들과 함께 했던 동문들의 모습이 마음에 감동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열흘동안 돌아본 오랜 역사의 유물은 옅은 슬픔과 한으로 점철돼 가슴 속에 남았다. 정박동이 하나하나 눈을 뜨고 밤의 침묵은 적막을 물고 왔다.

이 밤이 지나면 지중해와도 작별해야 한다. 아쉬움과 미련 속에서 별로 가득한 남부 유럽의 하늘을, 나는 물 위에서 오래오래 꺼꾸로 바라보고 있었다.

고국 동문

신간 출간

■ 법치와 자유
- 정성진 지음

국민대 총장, 부패방지위원장, 법무부장관 등을 지낸 국민대 정성진(법학 58-63) 명예교수가 법치와 자유의 원칙과 가치를 모색한 서적이다. '법치'는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지향하고 정착시켜야 할 원칙이고, '자유'는 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끊임없이 찾고 추구하는 가치다.

이 책에는 정 동문이 검사생활을 떠나 대학과 반 부패 또는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구에 몸담았을 동안 집필한 논문과 판례평석, 대담, 시론 및 칼럼 그리고 법조와 대학 주변의 현안 등에 관련한 에세이 등이 실렸다. <박영사·값 20,000원>

■ Public Relations Strategy : Korean Case Studies - 원우현 지음

고려대 명예교수자 미 UCSD 및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인 원우현(행정 61-65) 동문이 한국의 PR커뮤니케이션 전략 사례를 영문으로 소개했다.

기업과 조직을 고용, 소비자, 미디어 관점에서 분석해 효율적인 홍보대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위기관리를 고려해 상황별·사례별 다양한 대응 전략을 보여준다. 비전공자도 현장 문제를 전문가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PR관리의 기초 이론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커뮤니케이션북스·값35,000원>

■ 더블린 사람들
- 진선주 옮김

충북대 진선주(대학원 62~69) 명예교수가 제임스 조이스의 원작 'Dubliners'를 번역 출간했다.



제임스 조이스의 첫 단편집인 이 작품은 조이스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의 토대가 된 실험적인 작품이다. 정신·정치·문화·사회적으로 마비된 아일랜드의 도시 더블린. 이 도시의 일상생활의 양상은 모두가 불쾌하고 가없고 품위없는 것들 뿐이다.

외부적으로는 현실적인 강제와 내면적으로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 무기력하고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더블린 사람들의 모습이 핵심주제다.

총 15편의 단편으로 이뤄진 이 책은 더블린에 살았던 중산층의 삶을 통해 더블린 전역에 퍼져 있는 정신적·문화적·사회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간 본성에 대한 치열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의 문제를 재조명한 작품으로 평해진다. <문학동네·값 12,000원>

■ 당신을 부르며 살았다
- 마종기 지음

1959년 현대문학에 시 '해부학교실' 등을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한 이후, 삶과 죽음을 오가며 겪는 아프고 쓸쓸한 체험을 따뜻하게 감싸안는 시를 써온 마종기(대학원 66졸 연세대의대 초빙교수) 동문의 시작(詩作) 에세이집이다. 마 동문이 그동안 써온 시 중 50편을 엄선했다. 그것과 관련된 50편의 에세이를 덧붙였다.

분석이나 해석을 담기 보다는 시마다 그것을 썼을 때의 생각과 상황, 그리고 문학적 상상력을 평이하게 설명하고 있다. 삶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살았으나, 언제나 시만큼은 모국어로 쓰면서 투명한 서정의 언어를 내뿜어온 마 동문 교유의 시 세계를 엿보게 된다. <비제·값 11,500원>

■ 지도자의 화법
- 박경현 지음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자질 가운데 하나인 화법에 관한 책을 경찰대 박경현(국어교육64~68)교수가 펴냈다.

한국화법학회장을 역임한 박 동문은 요즈음 한국 사회의 일부 지도자들은 구성원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충고한다. 또



우리가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언어 행위는 기본적으로 말보다는 사람에 중심을 두고, 말하는 이의 사람됨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언어 행위는 최소한의 품위나 품격이 담겨 있어야 하고,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역락·값35,000원>

■ 생명의 화학, 삶의 화학
- 김희준 외 지음

모교 화학부 김희준(화학 66~70)교수가 김병문(화학 75~80)·김성근(화학 76~80)·신석민(화학 81~85)교수와 더불어 화학의 핵심을 논리적·체계적으로 다뤘다.

화학은 누가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과학의 한 분야가 아니고 인간이 자연의 언어를 파악하고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파헤쳐나간 과정의 기록이다.



화학의 발전 과정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인간적인 노력을 엿보는 과학사적 측면을 강조했다.

렌델레예프·퍼킨·플링·왓슨 등 과학자들의 일화를 통해 무엇인가 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될 것이다. <자유아카데미·값38,000원>

■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 이현창 엮음

고려대 경제학과 이현창(경제 74~78)교수가 모교 경제학부 이영훈(경제70~78)교수, 성신여대 박기주(경제 78~82)교수, 전남대 김재호(경제 82~86)교수, 성균관대 박이택(경제 83~87)교수, 모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조영준(경제 94~01)BK연구교수 등과 함께 펴낸 조선왕조시대 관련 연구총서.

조선후기 거시적 경제구조를 재정과 시장을 기본 요소로 하는 경제체제론으로 파악한다. 재정과 시장이 조선후기 경제를 통합하는 2대 배분기구였기 때문이다.

재정 중에서도 중앙 재정, 그리고 시장 중에서도 서울 시장을 위주로 다룬다. 중앙 재정과 서울 시장이 지방 재정과 지방 시장보다 풍부하고 정비된 자료를 제공하며 경제체제의 해명에 핵심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값38,000원>

■ 한국인을 위한 경제학
- 이근 지음

모교 경제학부 이근(경제 79~83)교수가 2001년에 펴낸 경제학 교양서의 개정판.

이 책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 소개하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가지는 의미를, 왜 한국이 또 한번 휘청거렸는가, 이런 위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경제정책 및 시스템상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기술했다.

또 1997년 외환위기 때와 이번 위기 때에 판이하게 다른 한



국형 대기업을 죽, 재벌에 대한 제 평가를 다뤘다. 마지막으로 영미식 경제 운용 방식을 후발국들에게 처방한 소위 워싱턴 컨센서스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성과를 못내고 퇴각하는 상황을 반영해,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논쟁과 대안적 정책 처방의 모색을 담았다. <박영사·값18,000원>

■ 다문화사회 일본과 경제성 정치
- 권숙인 엮음

모교 인류학과 권숙인(인류 81~85)교수가 국제대학원 한영혜(영어교육 80졸)교수, 일본연구소 조아라(지리 96~00)BK연구교수, 광운대 김일영(사회 88~92)교수 등과 함께 저술한 책이다. 복수의 문화와 경제성이 충돌하고 협상하는, 역동하는 현대 일본사회를 조망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급속하게 진행된 일본사회의 다문화와 경제성 정치를 고려로 현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일본사회의 여러 현상과 역학을 소개한다.

또 다문화화·다민족화가 일본사회에 제기하는 도전과 과제, 대응방식 등을 고찰했다. 이에 따라서 지구화가 일본사회에 미친 영향과 역학의 함의를 검토한다. <서울대 출판문화원·값18,000원>

■ 나 없이 절대 고치지마
- 김병건 지음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건(의학 84~88 BK동양성형외과 원장) 동문이 직접 밝히는 성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 책은 자신감이나 아름다움, 그리고 치료 등을 위해서 성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려해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안전하게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정확히 알아보고 따져봐야 할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특히 제3부에서는 부위별 성형을 완전 정복하고 있다. 눈·코·가슴·주름·영양·종아리, 그리고 얼굴형 등으로 나눠서 소개한다. 사례별로 사진과 함께 알기 쉽

게 설명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이끌고 있다. <동아일보·값 13,000원>

■ 한영 불교사전
- 황남주 외 지음

IT렌트업의 회장을 지낸 황남주(물리 87~92 원광대 한의예과 제학) 동문이 동국대 교영섭교수와 함께 한영불교사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한글로 된 불교용어, 불교문화, 불교인명을 한자와 영어로 표현하고 관련된 표제어 1만여 개를 담아 수록했다. 또 '중국어불교어집'을 한글 표제어 순으로 바꾸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 불교에 관한 새로운 표제어 300여 개를 작성하고 영해례 보충 정리한 것이다. <아사·값 40,000원>

■ 韓國나라꽃
- 권지용 편저

한국어문연구회 상임이사, 전국한자교육추진연합회 공동대표 등을 지낸 권지용(행정48~52) 동문이 무궁화에 관한 글과 보도문, 특별 문헌 등을 한 권에 담았다.

제1부는 각계 인사들의 무궁화를 예찬한 글과 일제시대의 무궁화 수난 사례를 증언하는 글로 이뤄졌다.

제2부에는 권 동문이 30년간 무궁화 선양 및 무상 보급활동을 하면서 집필한 글과 신문, 잡지 보도문을 수록했다.

한편 특별 문헌으로 禹浩燾 승실대 전 교수의 논문 '無窮花考'를 현대문으로 윤문해 소개했다. <지리출판사·비매출>

■ 기독교 공동체 운동의 사회학 : Koinonia의 이론과 전략
- 김경동 지음

모교 사회학과 김경동(사회55~59) 명예교수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이 책은 기독교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여기서 사회학과 기독교가 각기 할 일을 찾는다.

사회학은 왜 그런 현상이 전개됐는지를 분석해 현실 진단을 내리는 기능에서 교회를 도울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한편 기독교는 이러한 사회학적 분석을 참고해 스스로의 문제를 포함하는 사회변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신적인 구심점인 동시에 사회를 섬기는 봉사자의 기능으로 중요한 몫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두 가지 기능을 한데 엮어내는 일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울출판사·값 20,000원>

고국동문 동정

수상 · 인사 · 행사 · 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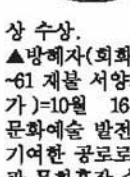
수상



▲유희준 (상학49-55 한일 이화 회장)=10월 8일 보성교우회로부터 제17회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수상.



▲이신옥 (건축52-56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명예회장)=10월 8일 세계여성건축가협회 서울총회에서 서울광주 회장으로 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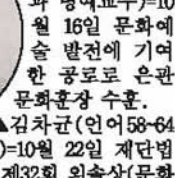
상 수상.
▲방해자(회화56-61 재물 서양화가)=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옥관 문화훈장 수상.



▲김동호(행정56-61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11월 1일 일맥문화재단으로부터 제13회 일맥문화대상(문화예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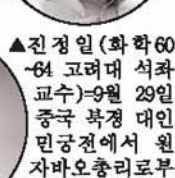
▲황동규(영문57-61 모교 명예영문학과 명예교수)=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관 문화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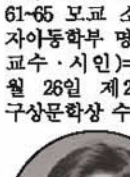
▲김차균(언어58-64 충남대 명예교수)=10월 22일 제23회 인의학회로부터 제32회 의술상(문화부문) 수상.



▲부대진 (건축59-63 진아건축도시 회장)=10월 4일 제6회 건축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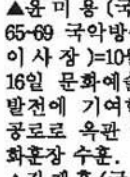
▲진정일(화학60-64 고려대 석좌교수)=9월 29일 중국 북경 대인민궁전에서 원자바오총리로부터 '중국 우의장' 수상.



▲최원수(사학61-65 간송미술관 연구실장)=11월 1일 韋庵 張志淵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21회 韋庵 張志淵賞(한국학부문) 수상.



▲유안진 (교육61-65 모교 소비자동맹부 명예교수·시인)=10월 26일 제2회 구상문학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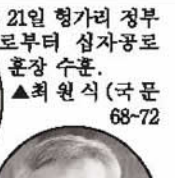
▲홍라희 (응용미술63-67 삼성미술관 리움 전관장)=10월 16일 경기여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윤미용 (국악65-69 국악방송이사장)=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 문화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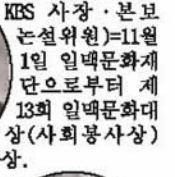
▲전국열(토목공학45-48 유신 회장)=10월 18일 연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상.



▲최원식 (국문68-72 인하대 교수)=10월 15일 연구서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로 제2회 일화문학예술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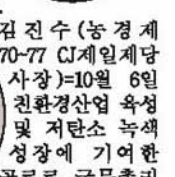
▲김인규(정치69-73 KBS 사장·본보 논설위원)=11월 1일 일맥문화재단으로부터 제13회 일맥문화대상(사회봉사상) 수상.



▲강천석(사회69-76 조선일보 주필·본보 논설위원)=11월 1일 韋庵 張志淵선생기념사업회로부터 제21회 韋庵 張志淵賞(인문부문)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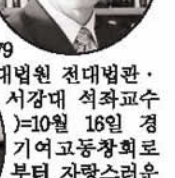
▲김진수(농경70-77 CJ제일제당 사장)=10월 6일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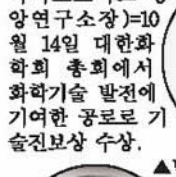
▲지근익(식품공학75-79 모교 식품영양학과 교수)=10월 1일 제4회 다산대상(실용과학부문) 수상.



▲김영란(법학75-79 대법원 전대법관·서강대 석좌교수)=10월 16일 경기여고동창회로부터 자랑스러운 경기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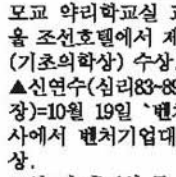
▲교광일(전기공학80졸 고려대테크노로지 대학에서 석좌 산업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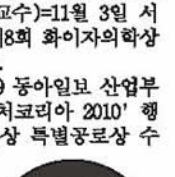
▲윤홍식(화학77-83 아미노로직스 중앙연구소장)=10월 14일 대한화학회 총회에서 화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기술진보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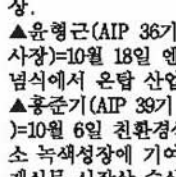
▲남민우(기계공학80-84 다산네트웍스 대표)=10월 19일 '벤처코리아 2010' 행사에서 동탑 산업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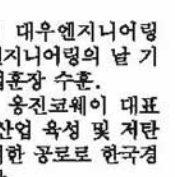
▲박종환(의학80-86 모교 약리학교실 교수)=11월 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제8회 화이자학상(기초의학상) 수상.



▲신연수(심리83-89 동아일보 산업부장)=10월 19일 '벤처코리아 2010' 행사에서 벤처기업대상 특별공로상 수상.



▲안지훈(식물84-88 고려대 교수)=10월 8일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7회 마크로젠 신진과학자상 수상.



▲윤형근(AIP 36기 대우엔지니어링 사장)=10월 18일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 산업훈장 수상.



▲이승환(SGS 11기 삼성테크 회장)=10월 6일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문훈숙(ALP 12기 유니버설문화재단 이사장)=10월 16일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 문화훈장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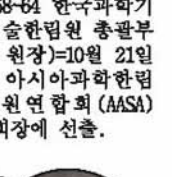
▲이승환(행정55-59 특허청 전 차장·주그리스 전 대사·송원국 제헌헌법률 대표 변리사)=최근 설립된 한국특허감정원 대표에 취임.



▲박원훈(화학공학58-64 한국과학기술원 총괄부원장)=10월 21일 아시아과학한림원 연합회(AASA) 회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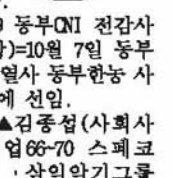
▲김윤배(농공학61-66 새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10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지적재산보호협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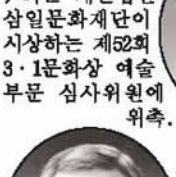
▲우종일(상학63-69 동부CNI 전감사·동부메탈 전 사장)=10월 7일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한농사장에 선임.



▲김종철(사회사업66-70 스펙트럼·삼익악기그룹 회장·본회 부회장)=10월 1일 청소년복지사업 후원회장에 위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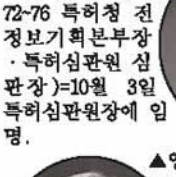
▲서동희(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최근 재단법인 삼일문화재단이 시상하는 제52회 3·1문화상 예술부문 심사위원에 위촉.



▲김성환(경제72-76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10월 8일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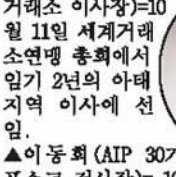
▲김성환(법학72-76 특허청 전 정보기획본부장·특허심판원 심판장)=10월 3일 특허심판원장에 임명.



▲양승목(신문74-79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10월 16일 임기 1년의 한국언론학회 제37대 회장에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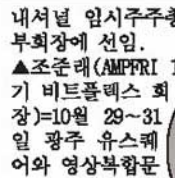
▲김봉수(AMP 53기 한국 거대소 이사장)=10월 11일 세계거대소연대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아태지역 이사에 선임.



▲이동희(AIP 30기 포스코 전사장)=10월 1일 대우인터



내셔널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부회장에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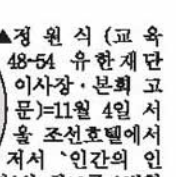
▲조준래(AMPFRI 12기 비트텍스 회장)=10월 29~31일 광주 유스페어와 영상복합문화관에서 열린 제12회 한국청소년영상제 조직위원장에 취임.



▲정원식(교육48-54 유한재단 이사장·본회 교문)=11월 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저서 '인간의 인지와 회고록' '변혁의 시대에서' 출판기념회 개최.



▲강태성(조소49-54 이화여대 명예교수)=10월 5일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제7회 이동훈미술상 수상작가 초대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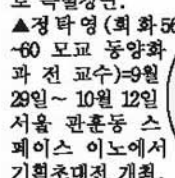
▲김후란(가정교육53일 문학의 집·서울 이사장)=10월 21일 '전쟁과 인간'을 주제로 2010년 서울문학인대회 개최.



▲김윤식(국어교육55~59 모교 국문학과 명예교수)=10월 13일 울산대 시청각교육관 다매체강당에서 '한국현대소설읽기'를 주제로 특별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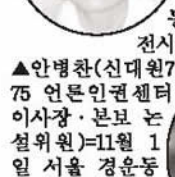
▲정탁영(회화56-60 모교 동양화과 전 교수)=9월 29일~10월 12일 서울 관훈동 스페이스 이노에서 기획초대전 개최.



▲조성애(응용미술64-68 임경관화공방 대표)=10월 6~10일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에서 李貞林(회화73~77) 동문과 함께 작품 전시회 개최.



▲안병환(신대원71-75 언론인센터 이사장·본보 논설위원)=11월 1일 서울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경술국치순국 100주년맞아 조부인 애국지사 安瀾 추모 및 韋堂遺稿 '선비 安瀾 日誌' 발간 기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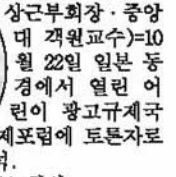
▲김이환(신대원72~75 한국광고주협회 전 상근부회장·중앙대 객원교수)=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어린이 광고국제국제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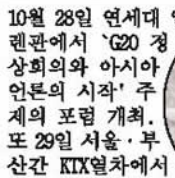
▲박정옥(기약77-81 한양대 교수·펠리스트)=오는 11월 18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아트홀에서 '파트너 21' 제35회 정기연주회 개최.



▲김정희(기약75-79 한국브라스협회장·피아니스트)=11월 8일 서울 부암동 부암아트홀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운(기약95-99)동문 등과 함께 조인트 리사이틀 개최.



▲이상기(서양사학81~87 아시아기자협회 창립회장·본보 논설위원)=



10월 28일 연세대 알렌관에서 'G20 정상회의와 아시아 언론의 시작' 주제의 포럼 개최. 또 29일 서울·부산간 KTX열차에서 오픈 포럼 열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타임캡슐 봉인식 개최.



▲임경원(기약81-85 성신여대 교수·펠리스트)=11월 9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아트홀에서 루빈스타인 작품으로 첼로 독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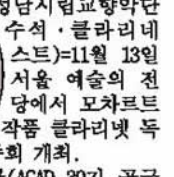
▲이석준(기약90-9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호른니스트)=11월 4일 서울 예술의 전당 리아트홀에서 슈만, 바흐 등의 작품으로 호른 독주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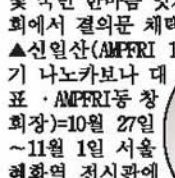
▲임명진(기약93~97 성남시립교향악단 수석·클라리네스트)=11월 13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모차르트 작품 클라리넷 독주회 개최.



▲김규(ACAD 39기 공군방공포병전사령관·국방대 초빙교수)=최근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장군의 리더십'(나무코) 출간.



▲김태환(ACAD 44기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회장)=10월 10일 충북 청원군 법왕사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기원 및 국민 한마음 잇기운동 범불교대회에서 결의문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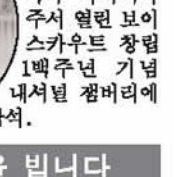
▲신일산(AMPFRI 14기 나카카보나 대표·AMPFRI동창회장)=10월 27일~11월 1일 서울 해곡역 전시관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탄소포발 초상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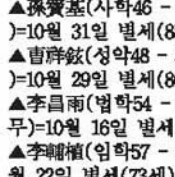
▲홍제희(GLP 20기 신세대문화예술교류단 이사)=최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열린 보이 스카우트 창립 1백주년 기념 내셔널 캠퍼리에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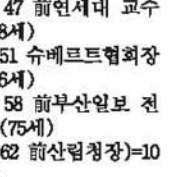
▲朱孝瑛(법학42졸 前중앙선관위위원장)=10월 11일 별세(92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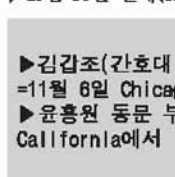
▲金昌德(법학47졸 前중앙철학 이사)=10월 5일 별세(9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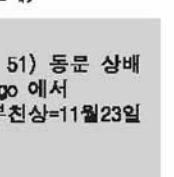
▲安 鏞(정치44~48 前정균관대 교수)=10월 17일 별세(89세)



▲孫寶基(사학46~47 前연세대 교수)=10월 31일 별세(88세)



▲曹祥鉉(성악48~51 슈베르트협회장)=10월 29일 별세(86세)



▲李昌雨(법학54~58 前부산일보 전무)=10월 16일 별세(75세)



▲李輔植(의학57~62 前산림청장)=10월 22일 별세(73세)



▲姜源熙(해양77졸 前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10월 30일 별세(60세)



▲車泰勳(경영83~87 한국외대 교수)=10월 2일 별세(46세)



▲李勳東(AMP 2기 조선내화 명예회장)=10월 30일 별세(92세)

▶김갑조(간호대 51) 동문 상배=11월 6일 Chicago에서

▶윤홍원 동문 부친상=11월23일 California에서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2010년 7월1일~12월7일까지)

2010~11 동창회비납부동문

Alaska
윤제중(농대55)

Alabama
유성무(상대66)
장세문(상대59)
진명규(공대70)

Arizona
지영환(의대59)
최윤근(공대59)

California
강길용(공대46)
강동순(법대59)
강신용(사대73)
강신호(사대49)
강영호(의대59)
강일선(약대44)
강정진(문리60)
강정훈(미대56)
강중경(공대48)
강천호(사대58)
강홍재(상대53)
강희창(공대57)
고석원(문리50)
고영철(의대45)
고재천(공대57)
권기상(경영72)
권길상(음대45)
권영덕(공대54)
권영재(의대57)
권오형(사대61)
권중건(치대65)
권태삼(수의73)
기옥진(문리52)
김경무(공대69)
김경수(치대58)
김경옥(음대62)
김재윤(의대57)
김광온(음대56)
김광하(치대46)
김광한(농대63)
김교복(농대63)
김기덕(사회대)
김기수(공대74)
김기태(의대52)
김낙구(상대67)
김동성(행정59)
김동인(상대56)
김란영(공대53)
김명원(치대56)
김병삼(공대52)
김병완(공대58)
김병호(상대57)
김상엽(공대57)
김생철(법대54)
김석홍(법대59)
김선기(법대59)

김선명(공대75)
김성웅(농대70)
김순길(법대54)
김영기(의대53)
김영덕(법대58)
김영배(미대61)
김영석(문리54)
김영한(법대54)
김옥경(음대67)
김용수(경영74)
김원탁(공대65)
김원호(약대63)
김은희(치대46)
김익창(의대49)
김일영(의대65)
김재중(치대62)
김정민(상대58)
김정복(사대55)
김정빈(공대66)
김정애(간호69)
김정희(음대56)
김지익(의대45)
김진호(약대64)
김창무(음대50)
김태곤(공대59)
김태용(의대57)
김태윤(법대53)
김한평(치대65)
김현순(간호69)
김현철(의대57)
김현호(문리59)
김홍복(문리60)
김홍서(의대63)
김희창(공대64)
나두섭(의대66)
남장우(사대56)
노명호(공대61)
노재민(문리9)
문인일(공대51)
문병하(법대51)
민경탁(의대61)
민성하(공대60)
민영기(치대61)
박경호(사대53)
박경화(문리46)
박병원(의대49)
박성옥(상대58)
박우성(상대77)
박순자(간호60)
박원준(공대53)
박은덕(치대68)
박익순(수의74)
박인수(농대64)
박정모(문리66)
박종성(법대53)
박종수(수의58)
박종식(의대48)
박찬호(자연81)
박취서(약대60)
박태호(치대66)

박형철(사대72)
박희규(수의55)
방명진(공대73)
방정자(간호61)
배병옥(음대58)
백소진(문리55)
백승호(치대55)
백옥자(음대71)
부영무(치대70)
서정하(공대55)
서치원(공대69)
신대식(상대60)
신우식(치대62)
손학식(공대61)
송은섭(치대69)
송정자(의대67)
송준섭(농대65)
신동국(수의80)
신영규(치대57)
신영수(상대70)
신정연(미대61)
심상온(상대54)
신백영(공대75)
안현중(음대56)
양광주(문리58)
양승문(공대65)
양은석(음대70)
양태준(상대56)
염동해(농대74)
오명주(간호77)
오양숙(간호60)
오제인(치대33)
오완수(약대57)
원미향(미대65)
유석홍(상대61)
유진형(상대47)
윤경민(법대55)
윤석철(상대60)
윤용길(공대55)
윤홍기(의대58)
윤희성(치대65)
은윤석(공대50)
이강원(인문76)
이건설(치대54)
이경수(수의73)
이규달(의대62)
이근설(상대56)
이근원(공대67)
이근웅(의대61)
이근호(공대46)
이기재(사대52)
이길자(약대63)
이동섭(사대36)
이동복(의대52)
이동성(의대51)
이명규(미대73)
이명선(상대59)
이명희(간호67)
이문상(공대62)
이미정(의대76)

이방기(농대59)
이병우(법대54)
이상목(문리55)
이상문(의대54)
이상훈(공대63)
이성웅(음대58)
이승훈(상대74)
이연행(문리68)
이영식(농대58)
이양구(상대57)
이영송(치대63)
이영수(상대60)
이영신(간호77)
이우근(음대46)
이원택(의대65)
이윤기(상대63)
이재권(법대56)
이제룡(공대71)
이정옥(공대52)
이정옥(생활71)
이정화(공대52)
이종걸(상대53)
이준식(의대61)
이창무(공대54)
이채진(문리55)
이필권(보대65)
이학근(치대63)
이해영(공대56)
이호진(간호74)
이홍표(의대58)
이호경(치대63)
이희순
임동규(미대57)
임동호(약대55)
임용오(의대57)
임정란(음대76)
임재영(공대59)
임진자(미대60)
임진한(치대68)
임춘수(의대57)
임화식(치대59)
장기열(치대55)
장동석(문리66)
장진성(약대66)
전낙관(사대60)
전범수(농대71)
전희택(의대58)
정규남(공대52)
정동구(공대57)
정동식(공대57)
정두호(공대64)
정복근(사대69)
정문용(상대54)
정수만(의대66)
정예현(상대63)
정원훈(상대38)
정인환(법대54)
정재훈(공대64)
정진수(공대56)
정진화
정대무(사대44)
정형민(문리71)

정황(공대64)
제영혜(생활71)
조동준(의대57)
조만연(상대58)
조상하(치대54)
조성운(법대46)
조경시(공대60)
조제길(사대61)
조태복(사대60)
조태준(문리59)
주수봉(공대67)
지인수(상대59)
차기민(공대85)
채낙영(음대52)
최명용(음대64)
최복영(사대56)
최상진(치대63)
최승륜(상대53)
최영순(간호69)
최왕옥(공대69)
최재윤(문리54)
최준호(치대58)
최대근(법대48)
탁혜숙(음대67)
하기환(공대66)
하상원(대학원)
하선호(치대81)
한종철(치대62)
한평철(상대64)
한태호(인문75)
한호동(공대58)
허영진(문리61)
현원영(사대45)
홍경삼(문리61)
홍춘만(문리58)
황동하(의대65)
황만익(사대59)
황석우(의대53)

Colorado
이석호(공대66)
정화용(사대61)
표한승(치대58)

Connecticut
김기훈(상대52)

Delaware
문대옥(의대67)
배성호(의대65)
안세현(의대62)
이재성(공대70)

Florida
김정권(의대58)
김택희(문리55)
문상규(의대56)
신상재(수의59)
안창현(의대55)
양찬기(의대57)
오석일(의대64)
윤홍철(의대56)

이정필(의대58)
이중오(의대58)
전영자(미대58)
정진복(의대51)
한기빈(공대52)
한용현(의대44)

Georgia
김영서(상대54)
김용진(문리48)
박천기(법대56)
방창모(문리49)
손종수(의대50)
안승덕(상대51)
임수암(공대62)
정광수(의대60)
정인태(의대58)
최우백(공대76)

Hawaii
김승태(의대57)
김용진(공대50)
김창원(공대49)
박장부(의대61)
박창희(의대52)
윤상철(약대47)

Illinois
강창만(의대58)
강화영(문리48)
계훈택(의대55)
고병철(법대55)
구정희(의대59)
김갑조(간호51)
김갑중(의대57)
김대균(공대60)
김사직(상대59)
김영호(의대71)
김옥자(간호60)
김윤범(의대54)
김윤하(공대66)
김일훈(의대51)
김재환(사대72)
김정주(문리60)
김학수(공대70)
김현옥(문리67)
노갑준(의대72)
노영일(의대62)
문병훈(사대47)
문조훈(약대62)
박속(의대64)
박영규(농대57)
박인숙(미대69)
박창옥(공대56)
박홍근(공대64)
배영섭(의대54)
백영구(대원61)
서상현(의대65)
소진문(치대58)
송원희(미대60)
송재현(의대46)
신석균(문리54)

Illinois
강창만(의대58)
강화영(문리48)
계훈택(의대55)
고병철(법대55)
구정희(의대59)
김갑조(간호51)
김갑중(의대57)
김대균(공대60)
김사직(상대59)
김영호(의대71)
김옥자(간호60)
김윤범(의대54)
김윤하(공대66)
김일훈(의대51)
김재환(사대72)
김정주(문리60)
김학수(공대70)
김현옥(문리67)
노갑준(의대72)
노영일(의대62)
문병훈(사대47)
문조훈(약대62)
박속(의대64)
박영규(농대57)
박인숙(미대69)
박창옥(공대56)
박홍근(공대64)
배영섭(의대54)
백영구(대원61)
서상현(의대65)
소진문(치대58)
송원희(미대60)
송재현(의대46)
신석균(문리54)

Connecticut
김기훈(상대52)

Florida
김정권(의대58)
김택희(문리55)
문상규(의대56)
신상재(수의59)
안창현(의대55)
양찬기(의대57)
오석일(의대64)
윤홍철(의대56)

안은식(문리55)
양승표(문리57)
오명자(간호60)
유기정(간호72)
이강옥(공대86)
이덕수(문리58)
이동균(공대75)
이명희(상대52)
이소희(의대61)
이소희(간호68)
이승자(사대60)
이승훈(공대66)
이시영(상대46)
이윤락(공대48)
이윤모(농대57)
이정일(농대57)
이진주(문리55)
이춘우(치대54)
임이섭(미대54)
임현재(의대59)
장시경(약대58)
장윤일(공대60)
정광준(공대60)
정병욱(의대53)
정승규(공대60)
정영숙(사대59)
정지희(문리55)
정호(공대62)
조대현(공대57)
조민규(문리50)
조봉환(법대53)
조중형(의대63)
조철(공대49)
조현일(약대50)
진보린(약대56)
천양곡(의대63)
최길용(문리57)
최대환(의대53)
최순분(간호57)
최순용(문리61)
최애옥(간호47)
최의필(의대53)
최혜숙(의대53)
한의일(공대62)
한재은(의대59)
함성택(문리55)
홍건(의대54)
황치룡(문리65)

Indiana
곽일성(의대60)
김연화(음대58)
이종일(의대65)
임영선(의대54)
하상대(의대57)
한원중(수의83)
현은석(법대64)

Iowa
서만길(의대61)

Kansas
구명순(간호66)
배규영(사대68)
오계숙(미대59)
오명순(생활69)
임하진(의대79)
지일성(의대61)

Maryland
강창옥(의대55)
공순옥(간호66)
권철수(의대68)
김성우(공대59)
김용한(상대46)
김철(의대62)
나수섭(의대50)
남옥현(경영84)
박명영(의대68)
박찬호(약대67)
박한수(경영81)
석균범(문리61)
소숙영(간호64)
송병준(약대72)
신구용(공대59)
안창호(약대70)
엄승용(농대57)
오인환(문리63)
유덕영(공대57)
이영희(상대55)
이제승(의대55)
이준영(약대74)
임필순(의대54)
전경철(공대55)
전병구(의대46)
정두현(의대56)
정요셉(사대70)
조세진(의대65)
최경수(문리54)
최지원(의대55)
홍영석(공대58)

Minnesota
권학주(치대59)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매병철(문리65)
변우진(인문81)
왕규현(의대56)

Nebraska
김명자(문리62)

Nevada
이관(공대55)

New England
고일석(보대69)
윤희경(문리62)

N.Carolina
마동일(의대57)
이석형(사대56)
조동립(의대52)
최종진(의대63)

N.Dakota
박정선(농대60)

Massachusetts
김제호(상대56)
박재영(문리48)
박종진(의대56)
유규호(음대70)
윤상대(수의62)
윤희경(문리62)
정태진(의대53)
최홍균(공대69)

Meine
채도경(의대59)

Michigan
권순관(공대60)
권영조(의대55)
김국화(공대60)
김홍호(약대69)
김정일(의대57)
김창구(의대65)
남상용(공대52)

서울대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납부서

동창회비 (회보 구독료 포함)

· 회계년도

2009. 7. 1.- 2010. 6. 30.

☐ \$75

2010. 7. 1.- 2011. 6. 30.

☐ \$75

관악 후원금

\$200	\$200+	\$500	\$1,000
☐	☐	☐	☐

종신 이사비	모교발전기금 (백만불기금)	지부 분담금
☐ \$3,000	☐	☐

성명:(한글)		작성일: 년 월 일	
(영문)			
단과대:	대학원:	학과:	입학 년도:
현주소:			
전주소:			
전화/집:	Cell:	E-mail:	
* 지불방법 (Check or Credit Card)			
Amount: \$		Card Holder Name:	
☐ Check: Pay to the order of SNUA-USA		Card: Visa ☐ Master Card ☐	
Send to: SNU Alumni Association 456 Frontage Road, #3 Northfield, IL 60093		Card No.: Exp. Date:	
		Security Code: Signature:	

동창회비·후원금·광고비 납부현황

New Jersey 강석권(법대61) 고순정(간호69) 곽선섭(공대61) 권문용(미대61) 권오근(상대58) 김광현(미대57) 김규화(상대63) 김동진(사대67) 김명철(공대60) 김미란(간호76) 김성수(상대64) 김양호(의대51) 김영길(문리62) 김영만(상대59) 김영무(공대75) 김영일(상대58) 김완주(의대54) 김은섭(의대53) 김자익(의대69) 김정빈(약대54) 김태중(의대56) 김훈일(공대60) 류재은(미대71) 박건이(공대60) 박경룡(약대63) 박경원(미대66) 박성일(상대58) 박순영(법대56) 박익수(사대52) 박진우(상대77) 박태호(상대76) 반영철(약대54) 배명애(간호47) 서정용(약대63) 성옥진(치대67) 손갑수(약대59) 손광호(의대59) 송기인(의대60) 송영우(사대64) 송용섭(농대63) 신두식(의대52) 신정택(약대52) 안인철(법대53) 양문석(상대54) 양성택(상대) 엄종열(미대61)	오용호(의대66) 옥순재(의대63) 윤광선(공대67) 윤영돈(법대69) 윤준식(법대58) 윤현남(공대64) 이정림(상대64) 이경태(공대63) 이농석(의대57) 이문휘(문리54) 이성근(의대60) 이유환(의대58) 이재덕(법대60) 이재원(법대60) 이전구(농대60) 이종석(상대57) 이종환(법대51) 정용국(공대50) 최준희(의대58) 탁명양(약대52) 한인섭(약대)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김승호(공대71) 김용술(상대56) 김우영(상대60) 김원영(미대81) 김인형(미대59) 김재희(문리54) 김정희(간호69) 김종원(사대58) 김진승(문리53) 김진자(간호60) 김창수(약대64) 김창화(미대65) 김태욱(공대55) 김현중(공대63) 김형찬(약대50) 이현호(의대58) 남상래(간호66) 노용면(의대49) 민발식(의대60) 박정식(사대59) 박정우(의대54) 박찬명(약대57) 박현성(약대60) 라홍채(공대62) 박교자(음대61) 박수안(의대59) 박순영(법대56) 박찬명(약대57) 배상규(약대61) 백윤자(간호60) 서경애(음대67) 선종철(의대57) 성기호(약대57) 송영순(사대60) 신의정(음대55) 신정자(간호62) 안태홍(상대65) 양기영(의대49) 양금자(미대69) 양세관(경명66) 염상진(상대77) 유광현(의대58) 유부영(공대66) 유연기(음대90) 유제철(공대65) 윤병남(사대62) 윤병하(농대80)	윤봉균(사대54) 윤영섭(의대57) 윤인숙(간호63) 이국진(사대51) 이근수(상대64) 이기준(문리66) 이대영(문리64) 이승우(약대63) 이승철(약대66) 이영애(치대52) 이영애(농대59) 이오연(문리61) 이주경(상대69) 이준행(공대48) 이해청(약대62) 이현호(공대58) 이희경(의대55) 이희자(간호70) 임건식(음대52) 임공세(의대62) 임규하(경명98) 임대목(의대58) 임충섭(미대60) 장영식(법대59) 전병삼(약대54) 전웅상(공대46) 정은영(음대59) 정인식(상대58) 정창동(간호45) 정택수(문리46) 조종수(공대64) 조태환(상대56) 차국만(상대56) 천병수(공대70) 최구진(약대54) 최석진(사대54) 최영혜(간호64) 한용진(미대55) 홍선경(의대58) 황문하(수의76) 황성현(공대56)	김용현(경명66) 김윤성(의대63) 김한교(문리47) 김현황(공대64) 명인재(자연75) 손기용(의대55) 송용덕(의대57) 송용재(의대63) 신영찬(의대63) 이범세(의대56) 이영웅(의대56) 이용재(공대60) 최인갑(공대57) 홍준표(의대58)	이규호(공대56) 이만택(의대52) 이성숙(생과74) 이재성(공대70) 이해원(의대55) 장성환(의대55) 전희곤(의대54) 정영자(치대63) 정용남 주기복(수의68) 전희곤(의대54) 제갈은(문리59)	RhodeIsland 고일석(보대69) 오세자(문리71) 주창준(의대52)	Tennessee 오세환(의대61) 정성장(의대43)	Texas 곽노환(문리48) 곽용길(문리59) 김기준(공대60) 김동수(의대61) 김옥균(공대54) 김영창(공대64) 김익신(의대60) 김정훈(공대46) 김진만(공대57) 김태훈(공대57) 민동식(농대70) 박민자(사대58) 박영규(사대66) 박유미(약대62) 신달수(공대59) 유규용(법대50) 유길진(공대73) 유세만(공대59) 이길영(문리59) 이영재(상대58) 이규진(약대60) 전중희(공대56) 정철률(의대55) 조시호(문리59)	조진태(문리57) 최관일(공대54) 최성호(문리58) 최용천(의대53) 박순덕(사대57) 황의찬(사대76)	Utah 김성완(문리59) 김인기(문리58)	Virginia 고무환(법대57) 김인수(상대45) 김기봉(공대63) 김세광(공대62) 김영성(경원71) 박상근(법대75) 박용길(약대56) 박일영(문리59) 박정훈(상대55) 박인영(의대69) 박정일(농대69) 방정화(의대61) 변만식(사대49) 서희열(의대55) 우갑삼(공대71) 유승열(문리74) 이규섭(상대68) 이상익(의대52) 이재우(상대81) 이종희(의대59) 전기순(상대) 정원자(농대62) 조경운(공대67) 조요윤(공대61) 최규식(상대64) 최준호(공대60)	김영일(공대53) 김윤국(문리49) 김제훈(공대72) 김주용(의대57) 박종수(공대74) 박진수(의대56) 서윤석(의대62) 신창범(법대73) 양용관(수의62) 이대원(사대58) 이영덕(사대61) 이제성(공대95) 이종성(의대58) 이진호(공대48) 최준환(농대58)	Wisconsin 이영균(의대61) 장세근(의대57) 장홍(문리61)	*2009-10년 회비 누락 동문 강상진(의대55) 강영빈(문리58) 고길산(약대69) 고희걸(의대55) 권대원(경명59) 김정옥(음대62) 김동진(사대67) 김란영(공대53) 김영철(의대55) 김성범(상대50) 김성현(약대56) 김용권(문리49) 김용덕(의대53) 윤재(의대60) 김인영(미대81) 김은진(간호77) 김인형(미대59) 김정아 김종호(약대68) 김창화(미대65) 김호경(법대57) 김인수(상대45) 남신우(공대61)	문병훈(사대47) 박순자(간호60) 박영옥(사대55) 박용순(의대53) 박창희(의대52) 서동영(사대60) 서윤석(의대62) 서승표(의대59) 송성균(공대) 송창원(문리53) 신경호(의대57) 신도철(문리58) 신영찬(의대63) 엄승용(농대57) 윤경숙(문리59) 이관모(공대55) 이성구(약대56) 이영덕(사대61) 이영일(문리53) 이영철(공대64) 이영희(공대55) 이장우(문리72) 이종태(공대54) 이종환(법대51) 이진호(공대48) 이찬주(문리63) 임창희(공대73) 임한용(공대60) 장세문(상대59) 정길현(문리60) 정준영(문리67) 조성주(의대59) 조숙자(간호59) 지제원(사대68) 진기주(상대60) 최경수(문리54) 최정윤(사대51) 최대한(의대53) 한광수(의대57) 한승신(의대70) 한영준(사대60) 현영수(음대61) 황의찬(사대76) 황준오(치대70) 황현상(의대55)
---	---	---	---	--	--	---	--	--	--	---------------------------------------	---	---	--	---	---

기타 후원회비및 기금 납부

관악후원회비 California 권영택(공대54)200 김석홍(법대59)200 김은중(상대59)200 김재중(치대62)200 김한평(치대65)200 박정모(문리66) 25 박취서(약대60) 25 염동해(농대74)1000 오제인(치대33) 20 원미량(미대65) 20 이명선(상대59) 20 이승훈(상대74)425 이영일(문리3)1000 이장우(문리72)200 정동구(공대57)200 정복근(사대69) 25 정원훈(상대38)200 최재윤(문리54)200 하기환(공대66)1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52)200 Florida 오석일(의대64)200 이문휘(문리54) 25 전웅상(공대46)200 Hawaii 김승태(의대57)100 김창원(공대49)200	Indiana 김연희(음대68) 25 송순영(문리52)1000 Kansas 구명순(간호66)200 Illinois 고병철(법대55) 1000 구경희(의대59) 1000 김사직(상대59)200 김윤범(의대54)200 노영일(의대62)200 노재욱(의대58)200 박 숙(의대64)1000 박영규(농대57)200 이승자(사대60)200 이용락(공대8)1000 임현재(의대59)500 장윤일(공대60)200 조대현(공대57)200 조봉원(법대53)200 조형원(약대50)100 한재은(의대59)200 Louisiana 강영빈(문리58)200 Maryland 강창옥(의대55)200 권철수(의대68)200 나수섭(의대50)200 오인환(문리63)200 전정철(공대55)200 정두현(의대56)200	최지원(의대55) Massachusetts 김제호(상대56)200 Minnesota 김태환(의대58)200 Nevada 최창식(의대61)200 New Jersey 김동진(사대67)200 김명철(공대60)200 김영만(상대59)200 김영일(약대58) 25 박태호(상대76)500 윤현남(공대64)200 허선행(의대58)200 New York 강충무(사대60)200 권영국(상대60)200 김진겸(인문) 2000 김창수(약대64)200 성기호(약대57)200 염상진(상대77)200 이준행(공대48)1000 최석진(사대54) 200 Ohio 김한교(문리47)200 명인재(자연75)200 송용덕(의대57)200	Oklahoma 김경숙(생과70)200 이상강(의대70)200 Oregon 김상순(상대67)225 Philadelphia 김영우(의대55)200 손재욱(생과77)200 송성균(공대) 200 Texas 김동수(의대60)200 김익신(의대60)200 김정훈(공대46)200 김태훈(공대57)200 조시호(문리59)225 Utah 김성완(문리59)400 Virginia 박상근(법대75) 25 박정일(농대69) 25 서승표(의대59) 25 이규섭(상대68)200 Washington 김성열(치대61)200 신창범(법대73)200 광고비 California 강동원(수의75)120 김경옥(음대62)120 김광은(음대56)120	김광현(상대69)120 김규정(사대77)120 독고원(공대65)120 방명진(공대73)150 문덕수(공대73)240 서동영(사대60)120 성락호(치대65)120 신동국(수의76)120 이강원(인문76)120 정수만(의대66)120 차기민(공대85)120 Georgia 이영진(공대76)120 Illinois 이훈우(치대54)120 Maryland 엄승용(농대57)150 최경수(문리54)150 Minnesota 왕규현(의대56)200 Nevada 김용재(의대60)200 New York 강충무(사대60)120 박성남(사대76)150 윤병하(농대80)200 최구진(약대54)200 N.Carolina 한광수(의대57)200	Ohio 신영찬(의대63)150 평의원회비 Chicago 지부 강수상(의대 47)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59) 김사직(상대 59) 김정주(문리 60) 노영일(의대 62) 박 숙(의대 64) 박연희(간호 61) 박영규(농대 57) 송순영(문리 52) 이용락(공대 48) 이승자(사대 60) 이영우(문리 66) 정 호(공대 62) 조대현(공대 57) 한상호(의대 56) 한재은(의대 59) 남상용(공대 52) Heartland 지부 구명순(간호 66) 김명자(문리 62) 배규영(사대 68) Houston 지부 조시호(문리 59) LA(남가주) 지부 강호석(상대 81) 김은중(상대 59) 지인수(상대)	New England 지부 박경민(의대 53) 윤희경(문리 62) 고일석(보대 69) 윤상래(수의 62) New York 지부 강충무(사대 60) 김창수(약대 64) 오인석(법대 58) 이전구(농대 60) 이준행(공대 48) 한경수(문리 57) Philadelphia 지부 고병은(문리 55) 서중민(공대 64) 손재욱(생과 77) 조화연(음대 64) Sanfrancisco (북가주)지부 황만익(사대 59) Ohio 지부 최인갑(공대 57) 김용현(약대 53) Washington 지부 강연식(사대 58) 김영미(생과 70) 박정일(농대 69) 오인환(문리 63) 이영복(공대 59)	Toronto(CANADA) 지부 한성택(의대 51) 특별후원금 모교총장실 3,000 임광수 동창회장 3,000 지부분담금 시카고동창회1,200 뉴잉글랜드 동창회 (모교동창회 분담 금 1000, 미주동 창회 분담금 500) 동창회관 건립기금 Alaska 윤재중(농대55)300 Illinois 강영국(수의67)100 구경희(의대59)100 김동희(공대66)100 김병운(문리65)100 김사직(상대59)100 김윤하(공대66)125 김정주(문리60)100 노영일(의대62)100 노재욱(의대58)100 박 숙(의대64)100 박연희(간호61)500 박영규(농대57)100 박용순(의대53)100 설상수(문리52)100 신석균(문리54)100	연경자(약대65)100 왕진환(공대59)100 원인숙(공대66)125 이동균(공대75)100 이승자(사대60)100 이영우(문리66)100 이용락(공대48)100 이윤모(농대57)100 이재호(공대56)100 이철주(치대61)200 임현재(의대59)100 전현일(농대62)100 정지희(문리59)100 정진화(약대54)100 조대현(공대57)100 조종행(의대63)100 최경화(간호54)100 최길용(문리57)100 최의필(의대53)100 한상호(의대56)500 황지용(문리65)100 Massachusetts 박영철(농대64)/경 선주 5,000 윤상래(수의62) 1,000 Maryland 박상신(문리53) 12,000
--	---	---	--	---	--	---	--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로



CA

남가주

건축/건설업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호동(공대 58) (213)384-3730
2525 W. 8th St.#201 L.A. CA 90057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3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영동해(농대 74) (951) 657-8200
23135 Betty Road, Perris CA 92570

공인회계사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Kim & Kang CPA's

(김경무 광명회 공인회계사)
김경무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6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os Angeles,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787-9100
1010 Crenshaw Blvd. Suite 250
Torrance CA 90501

Kim & Youn A Prof.Corp

윤홍원 (사회대 81) (213) 427-96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350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제정업체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영대원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건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여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S.Y.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 (법대 58)
(562) 467-545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8@yahoo.com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태평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천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35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Panarex, Inc.

김원탁(공대 65)
818-768-5161

11672 Tuxford St.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James Lee 부동산
이종모(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청문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상담/교육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촌배 교육상담센터

이촌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

서비스/염색가공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명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학원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 (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l.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 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스토어/하드웨어/엔지니어링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Lee & Ro, Inc.
노영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감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 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 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태평양 상사
하상원(대학원 90) (310) 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은행

Commonwealth Business Bank
최운화(상대 78)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Center Bank 행장
유재환(상대 67) (213) 386-2222
3435 Wilshire Blvd., Suite700 Los Angeles CA
90010

Hanmi Bank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권종규 치과그룹

* 권종규(치대 63)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홍조 치과

** 오홍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명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ima Rowland heights CA 91748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 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종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 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종훈 치과

정종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김민권 치과

김민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 #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 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의료/내과/전문외**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3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LA 내과그룹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효(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태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im, M.D.

임용호(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323) 268-8308
1325 Via Del Reg. South Pasadena CA 91030

김광은 척추신경

김광은(음대 56) (323) 468-1001
4711 Oakwood Ave. #100 Los Angeles CA 90004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 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마취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냉장업**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Chemical & Dyestuff Supply

Westco Spectra Color, Inc.
최복영(사대 56) (310) 903-5515
12238 Hawkins St. Santa Fe springs CA 90670

Dale Tiffany, Inc. (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 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감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라카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뉴 살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사랑의 빛 선교교회

윤종호(문리대 61) (562) 402-7104
2801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7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유니온 교회

이정근(사대 60)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컨설팅**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 Francisco CA 94104

컴퓨터**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통역/번역**Better Comm 통역**

점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악**이봉수 한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샌디에이고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부동산**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상담/컨설팅****두키아나 결혼정보**

5년 전에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률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 451-0240 / (510) 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의료/전문외/치과**산부인과**

황동하(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한의원/안악**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224) 548-2148

DC, MD, VA 워싱턴DC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9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변호사 / 법률사무소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자산관리

IPM

이태영(법대 60) (410) 247-2345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Sweet Homes Realty
강연식(사대 58) (703) 407-4070
13230 Memory Ln Fairfax MD 22031

BPS Appraisal Company

박정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재단

통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항공

Drivotech,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The Boeing Company

김재훈 (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수익사 / 동물병원 / 요식업

한의생(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t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 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i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l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uite U-10 Benwyn Heights, 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테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의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테일러/자동차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FOB 합성회사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07657

이홍미 변호사

이홍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재정상담

로알 부동산

임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철(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셀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익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종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5886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학원 / 문화학원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65

MA 뉴잉글랜드

수익사 / 동물병원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의료 / 내과 / 전문의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I 미시간

교육기관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부동산 / 중개업

남 부동산관리주식회사

남상용(공대 52) (734) 662-0351
2689 Balmoral Ct. Ann Arbor MI 48103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강

Jang Soo Furnishing, Inc.

박대규(사대 55) (201) 945-7879
321 Broad Ave., #B-3 Ridgefield NJ 07657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nd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43-51 Roosevelt Ave. #1A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상(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명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6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테일러**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 (718) 720-4498
195 P.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 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원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 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 #1105
New York, NY 10018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Deloitte & Touch

김영취(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상사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종길(신대원 69) *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상담 / 재정설계

송기뢰 기술상담
송기뢰(행대원 62) * (718) 357-8812
45-22 194 St. Flushing 11358

FICC USA, Inc.
황문하(수의 76) * (631) 736-0099
664 Middle Country Rd. Selden NY 11784

IBECONS Int'l
김제철(공대 58) *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현지 순례 *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급 방문 및 아시아 투어 *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 239-0989

서비스 / 클리너 / 잠금장치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익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언론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 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원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www.kissusa.com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 의사**(Central Funeral Home)**

하해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 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과 / 전문의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목(의대 58) *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심장내과
방병기(의대 67) *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hore NJ 08536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4) *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 (718) 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 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 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의대 75) *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욱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엽(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익(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웅(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land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운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로(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제약

Vital Health Tech. Inc.
서정웅(약대 70) (973) 574-8090
409 Devonshire Dr. Franklin Lake NJ 07417

제조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u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종교 / 교회

튼튼한 교회

김상근(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원(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한의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애 오하이오

상담 / 생활설계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수의자 / 동물병원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YONG JAE SONG, MD
송용재(의대 63) (440) 843-7772
6731 Ridge Rd. #302 Parma OH 44129

Lancas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하틀랜드

의료

Deaconess Hospital
민경현(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교회

***엘림 한인교회**
최근영(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물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ui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금융 / 보험 / 리테일

More Bank 이영재(상대 58) 215-224-6440
47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8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테일 / 집화

서재필 기념센터
안지영(문리 67) (215) 635-0661
900 Valley Rd. #D-202 Melrose Park PA 19027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홍민(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가목(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Germantown Animal Hospital
전무식(수의 61) (215) 843-6282
6843 Germantown Ave. Philadelphia PA 19119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병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Ridley Veterinary Hospital
장 효(수의 66) (610) 833-1252
1408 Chester Pike Crum Lynne PA 19022

연회장 / 요식업

August Moon 연회장

류용진(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19401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심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8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량(약대 56) (215) 641-5323
7170 Lay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옥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215) 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치과

김국간 치과

김국간(치대 64) (215) 224-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PA

김종규 치과

김종규(치대 63) (215) 745-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HOU 휴스턴

수의사 / 동물병원

싱코 동물병원

이윤성(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장 의사

한국 장 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엔지니어링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공해시험
Anacon Inc.
이규진(약대 60) (281)922-7000
730 FM 1959 Houston TX 77034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영인성(공대 50) (832)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UT 유타

서비스 / 여행사
Asia World Travel & 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WA 워싱턴주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부동산 / 중개업

EJ Estate
이은수(경대원 73) (253)851-1658
1505 Crescent Lake Dr.N.W. Gig Harbor WA 98332

의료 / 치과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 SE 136th Ave. Suit #101
Vancouver WA 98684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통증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WI 위스컨신

의료

Gundersen Clinic
윤 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영예회장 : 이진구(농)

제10대 회장 : 송순영(문)
차기회장 : 김은중(상)

관악후원회장 : 구경희(의)
관악후원회 고문 : 이준행(공)

모교 발전기금위원회

오인석(법) · 이병준(상) · 방은호(약) · 윤정목(약) · 이경림(상) · 서동영(사) · 김태환(의)

회칙위원회

오인환(문) · 전금섭(약) · 이용락(공) · 서중민(공) · 한재은(의) · 신웅남(농) · 김지영(사)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김정주(문)
총무국장 : 이승자(사)
재무국장 : 박 속(의)
특별간사 : 조대현(공) · 정 호(공) · 장기남(문) · 최순용(문) · 강 사 : 박영규(농) 김재영(농)

회보 임원및 임원

발행인 : 송순영(문)
편집위원장 : 고병철(법)
편집주관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민규(문) 조봉원(법) 조대현(공)
구경희(의) 이승자(사) 정 호(공) 홍혜례(사)

논설위원

고병철(CH) 김일훈(CH) 김창수(NY) 김재환(WA)
장석정(CH) 남재홍(NY) 백 순(DC) 오강남(BC)
육길원(CH) 윤상래(MA) 이석규(NY) 이형광(LA)
임승래(SF) 정홍택(PA) 한창섭(NY)

각 지부 회의 회장단

남가주	회장	김은중(상대 59입) ekim@pcr-ims.com
	차기회장	한중철(치대 62입) 562-860-8544
북가주	회장	홍성제(치대 69입) 408-504-9358 sjhong@pacbell.net
	차기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샌디에이고	회장	민영기(치대 61입) 818-515-3217 ykmindds@aol.com
	차기회장	임용갑(공대 84입) 858-243-2504 wilsonyyeem@gmail.com
뉴욕	회장	에드워드 감(사대 60입) 212-594-9034 edwardcmkang@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공순옥(간호대 66입) 410-461-4425 ssong00196@verizon.com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이영우(문리 66입) 630-655-2320 young.kim007@gmail.com
	차기회장	김사직(상대 59입) 630-523-1371 kimsajik@yahoo.com
필라델피아	회장	조화연(음대 64입) 610-328-2563
	차기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38-1097
휴스턴	회장	박홍우(공대 76입) 713-443-5310 henrypp@msn.com
	차기회장	김순금(간호 69입) 713-828-5909 sibokkim@yahoo.com
댈러스	회장	이희덕(농대 67입) 214-727-4997 hdlee4@naver.com
	차기회장	이석호(공대 78입) 972-475-1184
조지아	회장	이영진(공대 76입) 404-579-8282 youngjinlee999@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뉴잉글랜드	회장	윤희경(문리 62입) 508-740-9188 heekyoon@hotmail.com
	차기회장	김병국(공대 71입)
미네소타	회장	김영석(공대 73입) 612-750-0885 ysk495@gmail.com
	차기회장	신학철(공대 75입) 651-351-1622 hakcheolshin@gmail.com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이승택(수의대 75) 253-874-3558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이상협(상대 82입) 808-956-8590 leesang@hawaii.edu
	차기회장	전수진(농대 89입) 614-581-5875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회장	배규영(사대 68입) 913-402-8477 kybae8533@gmail.com
	차기회장	구명준(간호대 66입) 913-268-0228 chungmn@yahoo.com
플로리다	회장	
	차기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ah.edu
	차기회장	박찬호(자연 81입) 801-440-0034 chanhopark@fairchildsemi.com
캐롤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541
	차기회장	
로키 마운틴스	회장	전남민(사대 72입) 719-592-0037 jhonjieun@hot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오레곤	회장	백대현(상대) 503-587-0447
	차기회장	박희진(문리 57입) 503-848-6803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연(농대 58입) 907-561-0818
캐나다 온타리오	회장	한성택(약대 58입) 416-293-6138 samhahn@activebioresearch.com
	차기회장	김학성(농대 74입) 905-873-1989 haksk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박하일(문리 59입) 604-266-7955 hailpark@telus.net
	차기회장	이 현(공대 79입) 604-454-4424 jameshyunlee@hotmail.com
캐나다 앨버타	회장	이근홍(농대 65입) 403-554-4830 leekhken@hotmail.com
	차기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620-8261 dalhousiedg@hotmail.com

Season's Greeting

서울대 미주 동문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年末年始)를 맞아 미주 동문 여러분의 가정마다 만복(萬福)과 행운이 가득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단 입동



www.duo.co.kr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 (82인, 문리대)



• 소비자가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전문,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비데관 커뮤케이션: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내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내칭 프로그램으로 이성력을 찾습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1천여 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아/시/아/나/항/공 탑승시 동문께 드리는혜택

- 1) 일반석 승객계도 인천공항 VIP 라운지사용 특권(음식/사위실/인터넷무료제공)
- 2) 최저가 항공권에 항공좌석 우선배정 특권(비상구자리등)
- 3) 매년 2-3회 정기적으로 한국방문하시는 분들께 최상급 우대서비스 제공
- 4) 가족과 동반여행시 가족에게도 상가 혜택 적용

한국 여행

아시아나 이용시 공항 리무진버스 탑승권 제공(서울시내)
한양대학병원 종합검진 스케줄 할인혜택 - \$360(남) \$400(여)
저렴한 요금의 한국 휴대폰 대여(분당 35센트)
한국 유명 호텔 30-40% 할인 예약
디럭스 제주2박3일 관광부터 9박10일 전국 일주관광



일본 및 동남아 여행

일본 미야자키 겨울골프 2박3일
일본 구마모토 겨울골프 2박3일
중국관광(북경3박/상해, 황산3박/곤명골프5박)
방콕, 파타야 3박4일 관광 및 골프여행
마닐라/세부 관광 및 골프여행



유럽 여행

미국부터 전문가이드가 동행하는 VIP 투어
2011년 스페인/포르투갈 8일(\$2690) 3/26출발
2011년 북유럽 10일 VIP 투어(\$3950) 7/11일출발
이태리 6박7일 / 유럽하이라이트 10일
동유럽 하이라이트 9일 / 그리스, 터키 11일



북유럽과 러시아 6개국 크루즈 11박12일
\$1290+항공료(5/24, 6/29, 7/17, 8/13, 9/9출발)

알래스카 크루즈 스페셜 (글레이셔베이 포함)

한국인가이드/선내한식제공/한국가라오케/시애틀 시내관광포함



5/15일, 5/29일 특별출발

시애틀출발 항공료포함

\$1350

중미의 파라다이스



1/28일출발

환상의 여행

4박5일

Costa Rica

\$1320 항공료포함

샤프여행사

예약및 문의 : 800-222-3586

1615 Milwaukee Ave .Suite 125, Glenview IL 60025

Email : sharptour@hotmail.com

Homepage : www.sharptours.com



서울대학교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정운찬 前 국무총리 초청 모금강연회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



◎ 일 시 : 2011년 1월 29일(토) 17:00 ~ 만찬

◎ 장 소 : Doubletree Hotel Norwalk

13111 Sycamore Dr. Norwalk, CA 90650

Tel : 562-863-5555

◎ 주 관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 참가신청 및 행사문의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행사 추진위원회

서울대학교 미주센터

Office : 213-739-0234, Fax : 213-739-0240

Cell : 213-435-1974

Email : america@snu.ac.kr

◎ 참가비 : USD 60

※ 만찬 후, 서울대학교 남가주 동창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1년 신묘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정운찬 前 국무총리 초청 모금강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정치·경제·교육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정운찬 前총리의 강연은 서울대학교 동문을 비롯하여 모국의 미래와 발전에 관심 있는 재미 한인 교포 여러분에게 한국인으로서 긍지를 되새기게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과거,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이루어질 이번

강연에서 정운찬 前총리는 G20을 개최하며 정치·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정운찬 前 국무총리의 강연 후 대화의 시간도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바로 대한민국, 나아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든든한 인재를 육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미연방국세청)에 면세승인기관(501-C-3)으로 등록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은, (재)서울대학교발전기금의 자매기관으로 서울대학교의 장학사업과 각종 연구사업 지원을 비롯하여 미국교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원은 물론 재미 동문들의 친목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앞으로 서울대학교 미주재단의 활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